creative commons

COMMONS DEED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dCollectio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UCI]I804:24011-200000342728

2020년 8월

박사학위 논문

내적관계를 형상화한 도자 표현 연구

- 연구자의 <관계의 형상> 작품을 중심으로 -

조선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과

김 은 지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내적관계를 형상화한 도자 표현 연구

- 연구자의 <관계의 형상> 작품을 중심으로 -

Study on the Ceramic Expression Shaping the Inner Relationship

- Focused on the <The Shape of Relationship> by the researcher-

2020년 8월 28일

조선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과

김 은 지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내적관계를 형상화를 도자 표현 연구

- 연구자의 <관계의 형상> 작품을 중심으로 -

지도교수 박 재 연

이 논문을 디자인학 박사학위신청 논문으로 제출함

2020년 5월

조선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과

김 은 지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김은지의 박사학위논문을 인준함

위원장	호남대학교	교수	강성곤 (인)
위 원	전남대학교	교수	김철우 (인)
위 원	조선대학교	교수	한선주 (인)
위 원	조선대학교	교수	손영미 (인)
위 원	조선대학교	교수	박재연 (인)

2020년 7월

조선대학교 대학원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목 차

표 목 차 ····· iii
도 목 차 ····· iv
작품목차 ····· viii
ABSTRACT ····· ix

제 1장 서론 ····· 1
제 1절 연구배경 및 목적 ····· 2
제 2절 연구범위 및 방법 ····· 4
제 3절 연구의 구성 ····· 6

제 2장 관계와 불안에 대한 학문적 고찰 ····· 7
제 1절 주체 형성의 관계 ····· 8
1. 관계적 존재 ····· 8
2. 실존적 관계철학 ····· 13
3. 현상학적 대상관계이론 ····· 16
제 2절 주체 관계의 불안 ····· 19
1. 불안한 존재 ····· 19
2. 주체적 자아 형성 ····· 24

제 3장 현대미술에 반영된 표현 요소의 분석 ····· 26
제 1절 관념적 요소 ····· 27
1. 내재된 억압 - 타의적 관계 ····· 29
2. 자의식 표출 - 자의적 관계 ····· 41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제 2절 형상적 요소 ····· 53
1. 자아 정체성 - 구 ····· 55
2. 상호 관계성 - 선 ····· 69
3. 표현 확장성 - 재료 ····· 77

제 4장 연구자의 <관계의 형상> 도자 작품 표현 ····· 85
제 1절 관계의 형상 작품 배경 ····· 86
제 2절 관계의 형상 작품 과정 ····· 88
제 3절 관계의 형상 작품 분석 ····· 90
1. 관계의 간극 ····· 90
2. 관계의 성장 ····· 103
3. 관계의 본질 ····· 119

제 5장 결론 ····· 127

참고문헌 ····· 133
국문초록 ····· 136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표 목 차

[표-01] 작가 작품 분석 - 내재적 억압 ····· 39
[표-02] 작가 작품 분석 - 자의식 표출 ····· 51
[표-03] 작가 작품 분석 - 자아 정체성 ····· 67
[표-04] 작가 작품 분석 - 상호 관계성 ····· 75
[표-05] 작가 작품 분석 - 표현 확장성 ····· 83
[표-06] 3D 프로그램을 이용한 작품 사전 제작 과정 ····· 88
[표-07] 작가 작품 분석 - 내재적 억압 : 관념 도출 ····· 92
[표-08] 연구자의 작품 <Relationship : 간극 #1 ,2 ,3> 조형적 의미 분석 ····· 102
[표-09] 작가 작품 분석 - 자의식 표출 : 관념 도출 ····· 105
[표-10] 연구자의 작품 <Relationship : 성장 #1, 2, 3, 4> 조형적 의미 분석 ····· 118
[표-11] 연구자의 작품 <Relationship : 본질> 조형적 의미 분석 ····· 126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도 목 차

[도-01] 논문의 구성 ····· 6
[도-02] 대상관계 인식 체계 ····· 16
[도-03] 서도호, <플로어>, 1997~2000 ····· 29
[도-04] 서도호, <카르마>, 2003 ····· 30
[도-05] 서도호, <고등학생>, 2003 ····· 30
[도-06] 웨민쥔, <웃지 말고 타오를 만큼 충분하지 않다>, 1992 ····· 31
[도-07] 웨민쥔, <대단결>, 1992 ····· 31
[도-08] 웨민쥔, <유연성>, 2009 ····· 32
[도-09] 에드워드 호퍼, <작은 도시의 사무실>, 1953 ····· 33
[도-10] 에드워드 호퍼, <밤을 새는 사람들>, 1994 ····· 34
[도-11] 에드워드 호퍼, <밤의 사무실>, 1940 ····· 34
[도-12] 로버트 롱고, <도시 속 사람> 연작, 1981 ····· 35
[도-13] 로버트 롱고, <내셔널 트러스트>, 1981 ····· 36
[도-14] 로버트 롱고, <공동의 전쟁>부분, 1982 ····· 36
[도-15] 조지 시걸, <건너시오, 건너지 마시오>, 1989 ····· 37
[도-16] 조지 시걸, <우연한 만남>, 1989 ····· 37
[도-17] 조지 시걸, <주류 판매점>, 1966 ····· 38
[도-18] 안규철, <아홉 마리의 금붕어>, 2015 ····· 41
[도-19] 안규철, <64개의 방>, 2015 ····· 42
[도-20] 안규철, <침묵의 방>, 2015 ····· 42
[도-21] 쿠사마 야요이, <무제>, 1939 ····· 43
[도-22] 쿠사마 야요이, <점의 강박>, 1998 ····· 43
[도-23] 쿠사마 야요이, <무한한 거울방-정신이 발산하는 빛들>, 2008 ····· 43
[도-24] 쿠사마 야요이, <버섯>, 1995 ····· 44
[도-25] 쿠사마 야요이, <호박>, 2003 ····· 44
[도-26] 루이스 부르주아, <아버지의 파괴>, 1974 ····· 45
[도-27] 루이스 부르주아, <엄마>, 1999 ····· 45
[도-28] 루이스 부르주아, <출구 없음>, 1989 ····· 46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도-29] 펠릭스 곤잘레스 토레스, <무제-LA로의 초상>, 1991 ····· 47
[도-30] 펠릭스 곤잘레스 토레스, <무제-남자애인>, 1991 ····· 47
[도-31] 펠릭스 곤잘레스 토레스, <무제-스톡홀름에서>, 1992 ····· 48
[도-32] 시오타 치하루, <침묵 퍼포먼스>, 2003, 2008 ····· 49
[도-33] 시오타 치하루, <침묵>, 2008 ····· 49
[도-34] 시오타 치하루, <꿈의 이후>, 2011 ····· 50
[도-35] 시오타 치하루, <대륙을 넘어서>, 2011 ····· 50
[도-36] 막스 빌 <15개 변형의 연작 시리즈> 1938 ····· 55
[도-37] 막스 빌, 반구 Nr. 1,2,3,4,5, 1965 - 1966 ····· 56
[도-38] 신한철, <구>, 2011 ····· 57
[도-39] 신한철, <꿈무리>, 2019 ····· 58
[도-40] 윤솔, <스피어 시리즈>, 2011 ····· 59
[도-41] 윤솔, <스피어 시리즈>, 2019 ····· 59
[도-42] 윤솔, <변주 2007-01>, 2007 ····· 60
[도-43] 윤솔, <변주 2007-12>, 2007 ····· 60
[도-44] 콘스탄틴 브랑쿠시, <잠이든 뮤즈>, 1910 ····· 61
[도-45] 콘스탄틴 브랑쿠시, <프로메테우스>, 1911 ····· 62
[도-46] 콘스탄틴 브랑쿠시, <탄생>, 1911 ····· 62
[도-47] 이수경, <번역된 도자기>, 2010 ····· 63
[도-48] 이수경, <번역된 도자기-세부이미지>, 2010 ····· 63
[도-49] 이수경, <번역된 도자기>, 2008 ····· 64
[도-50] 이수경, <번역된 도자기-달>, 2008 ····· 64
[도-51] 올라퍼 엘리아슨, <당신의 미술관 경험을 위한 준비>, 2014 ····· 65
[도-52] 올라퍼 엘리아슨, <당신의 예측 불가능한 여정>, 2016 ····· 65
[도-53] 올라퍼 엘리아슨, <시각적 조정>, 2017 ····· 66
[도-54] 산티아고 칼라트라바, <리옹 공항>, 1994 ····· 69
[도-55] 산티아고 칼라트라바, <밀워키 미술관>, 2001 ····· 69
[도-56] 산티아고 칼라트라바, <알라미요 다리>, 1985 ····· 69
[도-57] 헨리 무어, <끈으로 연결된 모자상>, 1938 ····· 70
[도-58] 헨리 무어, <현이있는 구상 - LH206>, 1939 ····· 70
[도-59] 헨리 무어, <현이있는 구상 - LH207>, 1939 ····· 70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도-60] 바바라 헵워스, <색상이있는 조각>, 1943 ····· 71
[도-61] 바바라 헵워스, <파도>, 1946 ····· 71
[도-62] 바바라 헵워스, <끈이 있는 채색된 타원형>, 1966 ····· 71
[도-63] 서도호, <낙하산병 2>, 2005 ····· 72
[도-64] 서도호, <낙하산병 5>, 2005 ····· 72
[도-65] 서도호, <낙하산병-세부이미지>, 2005 ····· 72
[도-66] 박선기, <언 어그리게이션-스페이스>, 2016 ····· 73
[도-67] 박선기, <조합체-세부이미지>, 2019 ····· 73
[도-68] 재닌 안토니, <무기력 상태>, 1994 ····· 74
[도-69] 재닌 안토니, <무기력 상태-세부이미지>, 1994 ····· 74
[도-70] 방창현, <크루노우어>, 2009 ····· 77
[도-71] 방창현, <크루노우어>, 2009 ····· 77
[도-72] 한애규, <침묵>, 2005 ····· 78
[도-73] 켈리 오브라이언, <포터의 싱크>, 2014 ····· 79
[도-74] 커스텐 스팅글, <숨 공기> ····· 80
[도-75] 커스텐 스팅글, <터트린 비누 방울> ····· 80
[도-76] 애니쉬 카푸어, <무제>, 1975 ····· 81
[도-77] 애니쉬 카푸어, <보이드의 장>, 1989 ····· 81
[도-78] 애니쉬 카푸어, <회색 인간은 울고...>, 2008-2009 ····· 81
[도-79] 헤링가 / 반 칼스빅, <무제>, 2012 ····· 82
[도-80] 작품 연구 전개 과정 ····· 87
[도-81] Relationship : 간극 #1 작품에 보이는 자아의 변환 과정 ····· 93
[도-82] 막스 빌의 15개 변형의 연작 시리즈에 따른 연구자의 자아 변화 과정 ····· 93
[도-83] Relationship : 간극 #1 작품에 보이는 원의 움직임 ····· 94
[도-84] Relationship : 간극 #1 작품에 보이는 감정의 흐름 ····· 94
[도-85] Relationship : 간극 #1 작품에 보이는 타자와의 영역 구분 ····· 95
[도-86] Relationship : 간극 #2 작품에 보이는 선의 방향성 ····· 97
[도-87] Relationship : 간극 #3 작품에 보이는 선의 긴장감 ····· 99
[도-88] Relationship : 간극 #3 작품의 원형의 배치에 따른 긴장감 ····· 100
[도-89] 자아의 표현방식 : 생성과 소멸의 과정을 담은 구의 인자 ····· 106
[도-90] Relationship : 성장 #1 작품에 나타나는 구의 순환성 및 인자 추출 ····· 106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도-91] Relationship : 성장 #1, 세부 이미지 ····· 107
[도-92] Relationship : 성장 #2-1, 세부 이미지 ····· 109
[도-93] Relationship : 성장 #2 작품 나타나는 교차와 중첩 ····· 110
[도-94] Relationship : 성장 #2-2, 세부 이미지 ····· 111
[도-95] Relationship : 성장 #3, 세부 이미지 ····· 112
[도-96] Relationship : 성장 #3 작품 나타나는 규정화된 틀 ····· 113
[도-97] Relationship : 성장 #4 작품 나타나는 조율 표현 ····· 115
[도-98] Relationship : 성장 #4 작품 나타나는 공간 속의 원형 ····· 116
[도-99] Relationship : 공존, 연출 이미지 ····· 120
[도-100] Relationship : 공존 작품에 나타나는 정체성 표현 ····· 121
[도-101] Relationship : 본질, 연출 이미지 ····· 123
[도-102] Relationship : 본질, 세부 이미지 ····· 123
[도-103] Relationship : 본질, 연출 이미지 ····· 125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작 품 목 차

[작품-01] 김은지, <Relationship : 간극 #1-1>, 70×40×10cm, 2018 ····· 96
[작품-02] 김은지, <Relationship : 간극 #1-2>, 70×40×10cm, 2018 ····· 96
[작품-03] 김은지, <Relationship : 간극 #1-3>, 70×40×10cm, 2018 ····· 96
[작품-04] 김은지, <Relationship : 간극 #1-4>, 70×40×10cm, 2018 ····· 96
[작품-05] 김은지, <Relationship : 간극 #2-1>, 50×50×14cm, 2018 ····· 98
[작품-06] 김은지, <Relationship : 간극 #2-2>, 50×50×14cm, 2018 ····· 98
[작품-07] 김은지, <Relationship : 간극 #2-3>, 50×50×14cm, 2018 ····· 98
[작품-08] 김은지, <Relationship : 간극 #2-4>, 50×50×14cm, 2018 ····· 98
[작품-09] 김은지, <Relationship : 간극 #2-5>, 50×50×14cm, 2018 ····· 98
[작품-10] 김은지, <Relationship : 간극 #3-1>, 50×70×13cm, 2018 ····· 101
[작품-11] 김은지, <Relationship : 간극 #3-2>, 70×50×13cm, 2018 ····· 101
[작품-12] 김은지, <Relationship : 간극 #3-3>, 50×70×13cm, 2018 ····· 101
[작품-13] 김은지, <Relationship : 성장 #1-1>, 80×45×21cm, 2020 ····· 108
[작품-14] 김은지, <Relationship : 성장 #1-2>, 80×45×21cm, 2020 ····· 108
[작품-15] 김은지, <Relationship : 성장 #1-3>, 80×45×21cm, 2020 ····· 108
[작품-16] 김은지, <Relationship : 성장 #1-4>, 80×45×21cm, 2020 ····· 108
[작품-17] 김은지, <Relationship : 성장 #1-5>, 80×45×21cm, 2020 ····· 108
[작품-18] 김은지, <Relationship : 성장 #2-1>, 360x120cm, 2020 ····· 109
[작품-19] 김은지, <Relationship : 성장 #2-2>, 360x120cm, 2020 ····· 111
[작품-20] 김은지, <Relationship : 성장 #3-1>, 30x30x22cm, 2020 ····· 114
[작품-21] 김은지, <Relationship : 성장 #3-2>, 30x30x22cm, 2020 ····· 114
[작품-22] 김은지, <Relationship : 성장 #3-3>, 30x30x22cm, 2020 ····· 114
[작품-23] 김은지, <Relationship : 성장 #3-4>, 30x30x22cm, 2020 ····· 114
[작품-24] 김은지, <Relationship : 성장 #3-5>, 30x30x22cm, 2020 ····· 114
[작품-25] 김은지, <Relationship : 성장 #4-1>, 40×30×22cm, 2019 ····· 117
[작품-26] 김은지, <Relationship : 성장 #4-2>, 40×30×22cm, 2019 ····· 117
[작품-27] 김은지, <Relationship : 공존>, 가변설치, 2020 ····· 122
[작품-28] 김은지, <Relationship : 본질>, 가변설치, 2020 ····· 124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ABSTRACT

Study on the Ceramic Expression Shaping the Inner Relationship

- Focused on the <The Shape of Relationship> by the researcher-

Kim Eun-ji
Advisor : Prof. Park Jae-yeon, Ph.D.
Department of Design
Graduate School of Chosun University

This thesis analyzes the form of conceptual and shape expression of works produced based on the emotions that occur in relation to others by the researcher, and is a study for the suggestion of the methodology of ceramic art expression on the non-visual element of inner relationship. Humans form identity through the relationships with others in a society. Relationships with others are based on interaction for communication and the emotions derived by them consciously and unconsciously accumulate in and affect people's lives. The researcher started from focusing especially on the anxiety in the relationships with others and introspecting the causes of emotion. By expressing the "Shape of Relationship" in a formative manner, this thesis aims to reveal the researcher's self-reliance and form the human inner world, providing the basis for understanding the researcher's existence, and giving spiritual value to ceramic art as a medium of emotional metaphor.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Thus, this thesis examines the relationship and anxiety addressed in psychology and philosophy through literature. Before anything else, it identifies life problems and relationship problems by dividing the influence of an infinitely connected relationship as a related being into the essential and inevitable aspects of human existence, the relationship and the type of relationship, into the stages of the meeting relationship and the brushing past relationship. Melanie Klein's object relations theory was applied for psychological analysis of the human interior for identity regulation, as well as the understanding of the nature of human existence about the relationship between I and Thou relationship, which is ideal human relationship according to Martin Buber's philosophy of relationship. The analysis of anxiety in the existential condition derived from the relationship examined the cause theory of anxiety about Freud's anxiety and defense mechanism, and derived the possibility of self-building through inner reflection through the aspect of anxiety in modern people.

Then the researcher looked at the works of contemporary artists who express relationships. The researcher looked into the works of the artists that express the oppression and self-consciousness in individual relationships and expression of oppression inherent in society as an ideological element, the organicity and essence of ego identity by shape elements, cyclicity and existence in interrelationships, and metaphors and fusion in expression expansion. The researcher focused on how the artists are looking into and expressing their message and the methodology of expressing the innate message of their works and expressing them in a structural way.

Finally, the intention and concept of the work expressing relationships due to the researcher's anxiety was analyzed based on the theoretical perspectives of anxiety. Initially, the preceding works that were the background of the research work was analyzed, and the researcher's view of work and the elements of shape of the relationship was divided into three parts by subject.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First, the psychological distance from others due to anxiety caused by self-incongruence in social relations caused by the gap in relationships was dealt in the work. The form of self that is changed by external factors was shaped and the gap that occur in the relationship was expressed by uniform expression of the lines that are not connected in a ceramic form.

Second, based on attachment anxiety in personal relationships due to the growth of relationships, the cycle of the beginning and end of the relationship was dealt with in the work. Destruction led to introspection, which was described in the work as reaching the process of self-building and idealizing. In relationships with others, the ego sought to contain the message of a lasting relationship in life by metaphorically visualizing the creation and extinction through fragmentation, cutting, creating a whole circle, and variations.

Thirdly, the researcher tried to express own perception of existence through the motivations of the causative aspects of Fromm's human relationship and the relationships with the inner self as the essence of the relationship. Summoning of fragmented past memories appears in the composite form of frame, thread, and researcher's relationships, and everything related to oneself is influenced by each other and completed life of the researcher is expressed in the work. This, in turn, was intended to give meaning to the coexistence of self-reliance and existence values through constant communication with others.

Through the consideration and analysis of the relationship as such, the following conclusions were drawn. The researcher was able to see the metaphysical aspects of organic change in the embodiment of the relationship in shaping it into a work of 'the Shape of the Relationship' through a serious exploration process of emotion derived from the relationship. In addition, the researcher was able to find new values and possibilities in own works and confirm that ceramic holds meaning as a medium of psychological expression. The willingness to understand and overcome negative perceived anxiety as a universal feeling of human being has helped the psychological growth of the researcher.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Through this study, the researcher attempted to expand the concept and value of ceramic art by presenting the morphological expression methodology of relationship, which is an invisible element. Creative activities led to in-depth exploration of one's inner self, gaining mental stability and reflecting on one's identity. Therefore, this thesis emphasizes the meaning of sculpture as a medium that leads to reflective thinking by expressing the relationship of the researcher as a ceramic, and the researcher perceives it as something meaningful as an example of proposing a new concept in the field of expanded ceramic art.

To the researcher, ceramic work is a constant process of inquiry into own life. It is hoped that the study will open up new research direction in the design sector, along with the expression of ceramics linked to human psychology and social phenomena. The researcher thinks that the process of sublimating from reflections on relationships into works provides an opportunity to discover one's own inherent possibilities. Also, the researcher believes that one of the conditions of art works is communication, so the researcher hopes that the audience will experience the time of thought and ventilation through their works and become a medium of communication through reasons. The researcher also sincerely hopes that this will contribute to moving toward a healthier and smoother society in forming relationships with others.

Keyword :
Inner Relationship, Anxiety, Ego, Object Relations Theory, Ceramic Expressio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제 1장

서론

제 1절 연구배경 및 목적
제 2절 연구범위 및 방법
제 3절 연구의 구성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제 1장 서론

제 1절 연구배경 및 목적

인간은 사회 안에서 타자와의 관계를 통해 정체성을 형성한다. 타자와의 관계는 언어적 · 비언어적 상호작용에서 비롯되며, 소통에서 파생된 감정은 인간의 의식 · 무의식에 축적된다. 축적된 감정은 인간의 내면세계를 형성하는 근본적 토대가 되어 인간의 존재 이해의 단초를 제공한다.

본 연구는 타자와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감정 중 특히 '불안'에 집중하고, 감정의 발생 요인을 내관 하는 것에서 시작한다. 삶을 살아감에 있어 필연적으로 느끼는 감정인 불안은 관계의 본질을 성찰할 수 있는 대표적 정서라 사료 되었다.

도자예술 전공자로서 지속적인 작업 전개와 다양한 영역의 예술을 접하면서 연구자의 작품 영역인 도자예술을 인간의 정서 전달이 가능한 매개체로 보았다. 도자예술을 통해 본인 개인의 삶을 탐구하여 추출된 내면의 모습을 드러냄으로써 내적관계에 따른 감정을 표현하고자 한 것이다.

본인의 삶에 대하여 고민하고 관찰한 바를 작품으로 승화하는 그 의도는 예술을 나의 삶에 한 부분으로 여기고 예술 행위를 통해 더 나은 삶을 영위하기 위함에서 출발한다. 따라서 작품을 결과적인 관점에서 보면 의도적으로 형성한 사물이지만, 그 과정에는 삶 속에 존재하는 연구자의 내적관계에서 느끼는 삶에 대한 고찰이 담겨있다.

본 연구는 연구자의 작품 <관계의 형상>에 표현된 관념적 요소와 형상적 요소를 분석하여, 작업에서 지향하는 제작 의도와 조형적 방법론을 논한다. 연구자는 개념적 주제를 작품에 대입하는 것에 관심을 두고, 작업 과정으로 본인에 대한 내면 탐구가 선행된다. 심리학적 접근을 통해 본인의 삶을 되돌아보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내면을 이해하고, 주체적 자아를 형성하는 역할을 한다.

이는 결국 작품의 본질이 된다. 평소 연구자와 타자의 관계에서 존재하는 불안을 인식하고, 그것의 원천은 무엇인지 은유적으로 표현함으로써 도자예술의 정체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성 제시와 함께 도자만의 고유한 예술적 위치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그리고 소통의 매개체로서 작품을 대하는 관객에게 공감을 유도하여 자아 성찰의 시간을 제공하는 것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본다.

본 연구의 목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는 '관계의 형상'이라는 작품의 주제와 작업의 본질에 관해 심리학적 고찰을 통해 밝히는 것이고, 둘째는 심리적 감정을 도자로 형상화함으로써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던, 혹은 회피했던 내적관계를 어떻게 조형적으로 표출하는가이다.

관계의 형상은 연구자 본인의 타자와의 만남과 소통에 있어 불안한 감정에 기인한 작품으로 시각화된다. 작품은 형성배경에 따라 관계의 간극, 관계의 성장, 관계의 본질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하여 전개함으로써 연구를 통해 관계의 관념적 의미를 규명하고 형상적 표현을 분석함으로써 작품의 방법론적 접근법을 도출한다.

이로써 연구자는 관계에 대한 일련의 과정, 즉 관계의 생성과 소멸의 경험으로 삶의 성찰이 더해진 자아의 주체적 형성과정을 작품에 표현한다. 이로써 관계의 본질 도출과 함께 점토를 매개로 한 내적관계를 조형적 형태로 형상화함으로써 도자예술의 내적표현 방법론 연구에 있어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제 2절 연구범위 및 방법

본 논문은 연구자의 작품에 인간 내면에 내재한 심리적 요소를 어떻게 표현하는지에 대한 방법론 연구이다. 우선 본 논문을 주제에 대한 이론적 연구 및 사례작가 연구, 그리고 연구자의 연구 작품 분석으로 나누어 구성하고자 한다. 관계 속 불안의 의미와 가치를 고찰하며 자아 인식과 도자예술의 새로운 방향성 제시를 목적으로 하는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전개된다.

첫째, 불안을 인간의 타자와의 소통에 있어서 보편적인 주제로 보고 관계와 불안에 대한 심리학적 고찰을 진행한다. 주체적 관계 이해를 위해 관계적 존재인 인간의 상호작용 관계 유형과 관계성에서 비롯된 부버의 관계철학, 관계의 내적 대상인 멜라니 클라인의 대상관계이론에 대해 알아볼 것이다. 이어서 현대 사회에서 보이는 불안의 요소와 더불어 불안을 통한 자아 형성의 관계성에 대해 살펴본다. 이는 내적관계, 불안, 자아의 순환적 관계의 의미를 이해하고 작품에 전개함으로써 작품 분석에 있어 주요한 형성 배경이 될 것이다.

둘째, 현대미술에 반영된 표현 요소를 관념적 요소와 형상적 요소로 구분 지어 분석하고자 한다.

관념적 요소는 사회 안에서 내재된 억압 표현의 서도호, 웨민쥔, 에드워드 호퍼, 로버트 롱고, 조지 시걸과 자의식 표출요소로서 타자와의 개인적 관계를 주제로 한 작품을 선행한 안규철, 쿠사마 야요이, 루이스 부르주아, 펠릭스 곤잘레스 토레스, 시오타 치하루를 선행작가로 제시하여 심층 고찰하고자 한다. 선행작가는 사회적, 개인적 측면에서 어떠한 시선을 가지고 자신의 메시지를 전달하는지, 작품에 활용된 이미지와 오브제, 그리고 표현 형식들을 파악하면서 그들의 예술세계를 구축하는 과정과 작품이 담고 있는 개념에 대하여 살펴본다. 선행작품의 사례 분석을 통해 도출된 관념적 요소는 연구자 작품에서 형성 배경의 근간이 될 것이다.

형상적 요소로서 먼저 자아정체성의 표현 매개체로 구를 선정하고 막스 빌, 신한철, 윤솔, 콘스탄틴 브랑쿠시, 이수경, 올라서 엘리아슨 작품에 나타나는 조형요소가 지닌 유기성과 본질성에 대해 분석하고, 상호 관계성의 표현 매개체로 선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을 선정하고 산티아고 칼라트라바, 헨리 무어, 바바라 헵워스, 서도호, 박선기, 재닌 안토니의 작품에 나타나는 순환성과 존재성에 대한 조형예술 표현의 사례를 고찰하여 자아표현과 관계 표현의 개연성에 대해 분석한다. 다음 표현 확장성으로 점토 사용의 은유성 표현의 방창현, 한예규, 켈리 오브라이언의 사례를 알아보고, 커스텐 스팅글, 애니쉬 카푸어, 헤링가, 반 칼스빅의 작품에서 나타나는 타 재료와의 접목을 통한 융합성 표현의 사례를 고찰하여 도자예술의 표현 확장성에 대해 당위성을 도출한다. 선행작품의 사례 분석을 통해 도출된 형상적 요소는 연구자 작품에서 조형을 전개하는데 중심이 될 것이다.

셋째, 연구자의 작품을 대상으로 작품 제작 의도와 더불어 작품의 주제가 형성된 배경과 주요 개념을 설명할 것이다. 연구 대상 작품 범위는 2018년~2020년까지 제작된 '관계의 형상'으로 작품 형성 배경에 따라 관계의 간극, 관계의 성장, 관계의 본질로 구분 지어 연구 작품을 살펴볼 것이다. 본인의 연구 주제인 내적 관계를 형상화한 도자 표현이 작품으로 어떻게 은유하는지를 살펴보고, 내적표현과 조형적 방법론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제 3절 연구의 구성

<table>
<tr><td colspan="5">Ⅰ. 서 론</td></tr>
<tr><td colspan="2">연구배경 및 목적</td><td colspan="2">연구범위 및 방법</td><td>연구의 구성</td></tr>
<tr><td colspan="5">Ⅱ. 이론적 배경</td></tr>
<tr><td colspan="5">철학적 · 심리학적 고찰</td></tr>
<tr><td colspan="2">관계</td><td colspan="2">불안</td><td>자아</td></tr>
<tr><td colspan="5">Ⅲ. 연구 방법 및 절차</td></tr>
<tr><td colspan="5">현대미술에 반영된 표현 요소의 분석</td></tr>
<tr><td colspan="2">관념적 요소</td><td colspan="3">형상적 요소</td></tr>
<tr><td>내재된 억압</td><td>자의식 표출</td><td>자아 정체성</td><td>상호 관계성</td><td>표현 확장성</td></tr>
<tr><td colspan="5">Ⅳ. 연구 결과</td></tr>
<tr><td colspan="5">연구자의 <관계의 형상> 작품 도자 표현</td></tr>
<tr><td colspan="2">관계의 간극</td><td colspan="2">관계의 성장</td><td>관계의 본질</td></tr>
<tr><td colspan="5">Ⅴ. 결론</td></tr>
<tr><td colspan="2">비가시적 요소의 조형화 방법론</td><td colspan="3">도자표현 형식의 확장성 제고</td></tr>
</table>

[도-01] 연구의 구성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제 2장

관계와 불안에 대한 학문적 고찰

제 1절 주체 형성의 관계

1. 관계적 존재

2. 실존적 관계철학

3. 현상학적 대상관계이론

제 2절 주체 관계의 불안

1. 불안한 존재

2. 주체적 자아형성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제 2장 관계와 불안에 대한 학문적 고찰

제 1절 주체 형성의 관계

1. 관계적 존재

주체적 자아 인식을 위해 타자와의 감정에 비롯한 내적 성찰에 대한 작업을 진행하는 연구자에게 작품 형성의 배경이 된 타자와의 '관계(關係)'를 먼저 살펴본다. '인간'이란 단어는 사람과 사람 사이, 즉 이 자체가 관계의 의미를 내포하며[1], 사회적 존재로서 인간은 어떤 대상과 관계를 형성하느냐에 따라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수 있을 만큼 관계에 대한 영향력은 우리 인생에 있어 유의미한 요소라 할 수 있다.[2]

관계는 둘 이상의 대상이 서로 연결된 것을 의미하며, 이것은 단지 본인과 타자와의 관계만이 아닌, 본인과 관련되어 파생된 모든 것의 유기적 연결을 의미한다.[3] 이러한 측면에서 인간 존재는 우주의 모든 관계 속에서 삶을 영위하기에 관계는 삶의 방식에 대한 영향으로 인간의 본질을 규정하는 요소라 인식된다. 인간의 삶은 서로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관계의 연속에 놓여있다. 한 개인의 형성 자체가 남성과 여성의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성장화 · 사회화를 위해 시기별 다양한 집단에 귀속된다는 점에서 인간은 출생에서부터 자립까지 혼자 무한히 연결된 관계적 존재임을 알 수 있다.

인간은 사회적 존재로서 본질적으로 관계의 욕구를 지니고 있다. 타자와의 관계를 통한 사회적 욕구는 사랑의 욕구와 자존의 욕구로 구분 지을 수 있는데, 먼저 사회집단에 소속되어 구성원들과 원활한 관계 유지를 위한 사랑의 욕구와 자신의 사회적 가치를 높이려는, 즉 사회에 쓸모 있는 사람이 되고 그것을 인정받

1) 장현지, 「내면적 소통으로서의 인간관계 표현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5, p.4
2) 김현아, 「현대인의 유기적 인간관계를 표현한 도자조형연구」, 동아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16, p.3
3) 강선보, 「21세기 인성교육의 방향설정을 위한 이론적 기초연구」, 『교육문제연구』, Vol.0 No.30, 2008, p.16.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고자 하는 자존의 욕구이다. 이 때문에 인간은 사회집단을 위해 헌신하려 하고, 그러기 위해서 자신을 계속해서 성장 · 발전시켜나간다.[4] 사람에게는 이와 같은 사회적 욕구로 인해 타자와의 관계를 갈망하고 소외되지 않기 위해 노력한다.

이렇듯 타자와의 관계는 삶을 살아감에 있어 중요한 과제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인간은 타자와 분리된 개인이 아닌 관계에 의한 존재이고, 인간 사이의 관계성은 실존에 있어 본질적 · 필연적 측면이다. 현재 인간관계에 관한 다양한 학문의 연구가 증가하는 추세이며, 이로써 인간관계에 대한 높은 관심도를 증명하고 있다 할 수 있다.

캐롤라인 위트벡 (Caroline Whitbeck, 1940~2016)은 "타자와의 관계는 인간다워지기 위해 절대적으로 기본이며 다른 사람들과 관계없이는 한 인간이 될 수 없다. 한 인간은 역사적인 존재이며 그 사람의 역사는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과의 관계의 역사이다."[5]라고 주장한다. 이렇듯 인간은 본질적으로 관계적 존재이기 때문에 자아 형성에 있어 관계적 여건과 환경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된다. 인간은 홀로 존재할 수 없으며 다른 사람과의 끊임없는 관계 속에서 자신을 구성하고 실현하며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다. 즉 인간은 타자와의 관계를 통해 비로소 세계와 관계를 맺고 세계를 제대로 이해하게 된다.[6] 인격 형성에 있어서 역시 세계 안에서의 다른 실재, 특히 타자와 맺게 되는 관계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할 수 있다.

인간의 자아와 인격 형성에 깊은 관련성이 있는 관계는 건전한 성격 발달을 위해 타자와 원활한 상호작용으로 주체적 자아 정체성을 확립하게 한다.[7] 즉 인간은 타자와 관계를 필요로 하고, 자아의 실현은 오로지 관계와 실천을 통해 달성 가능한 것으로 관계를 통해 인간은 성장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사회의 경험은 인간에게 자신의 욕구와 감정을 발달시키도록 돕는다. 사회에서 타자와의 이해관계는 공동체 안에서 조화를 통해 공존하는 법을 배우고, 본연의 사회성을 길러나갈 수 있게 한다. 또한 긍정적 인간관계를 맺기 위해서 타자의

---

4) 김태형, 『불안증폭사회』, 위즈덤하우스, p.29
5) Caroline Whitbeck,『A different reality: feminist ontology』, Eds. Ann Garry & Marilyn Pearsall. Women, knowledge, and reality. Boston: Unwin Hyman ,1989, pp.23-24
6) 최지민, 「관계성(Relationship)의 도덕교육적 의미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14, p.12
7) 조성대 외, 『정보사회의 인간관계』, 서울 : 박영사, 2003, p.9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특성에 대한 이해가 수반된다. 다른 생각과 가치관을 지닌 타자와의 차이를 인정하고 이해하려는 노력은 바람직한 관계 맺기가 가능하다.

관계의 문제는 결국 삶의 문제로 귀결되기에 그 중요성을 간과해서는 안 되며, 관계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위해 다양한 형태의 관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한다.

우리는 삶을 살아감에 있어 여러 가지 인연으로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 다양한 경험을 하게 된다. 경험에 따른 관계는 분류 방법에 따라 유형을 구분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타인과 상호작용을 하는 상황, 혹은 그 대상에 따라 유형을 달리하지만, 연구자는 관계 유형 중 '만남과 스침의 관계'에 집중했다.

존 포웰 (John Powell, 1882~1963)이 주장한 '만남의 관계'는 참된 인간의 참된 융합을 의미하며, 바람직하고 생산적인 인간관계라 할 수 있다. 이에 반해 시드니 자라드 (Sydney Jourard, 1926~1974)의 '스침의 관계'는 서로 다른 너와 나의 가면이 만나 무심한 듯 무의미한 시간을 보내는 피상적 관계를 의미한다. 이 관계는 본인의 감정을 숨기고 관계하기 때문에 역할의 수행보다는 역할 자체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자기 소외의 문제를 일으킨다.[8] 타인에게 선보이기 위해 외적인 것에 대한 치중은 표면적 만남으로 이어지고, 소통의 단절이 발생하며, 궁극적으로 사회적 인간의 불안을 야기하는 부정의 관계로 도출된다.

만남의 관계와 스침의 관계는 실존적 만남과 역할적 만남으로 표현을 대신하기도 한다. 실존적 만남은 진실한 나와 너의 만남이다. 이 만남은 서로 각 대상끼리 아무런 조건 없이 만남 그 자체를 위한 것으로, 너 자체를 목적으로 만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진실한 만남의 지속은 소통, 성장, 사랑을 가능하게 하는 관계라 할 수 있다.

반면 스침의 만남은 진실치 못한 피상적인 나와 너의 만남이다. 상대를 나의 목적을 달성하는 수단으로 여기며 이러한 관계에서는 상대는 인격체가 아닌 하나의 대상에 불과하기에 진실한 관계를 형성할 수 없다. 또한 있는 그대로의 욕구를 억제하거나 은폐함으로써 가식적인 자기를 형성 발전시킴으로써 참 자기를 잃어버린 자기소외의 모습을 하게 된다.

8) 이지선, 「이상적 인간관계에 대한 형상 표현」,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16, p.11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이것은 현대인들의 인간관계에서도 그 모습이 드러난다. 현대인들은 '사교적인 겉모습'을 하고 있지만, 정서적으로는 타자와 단절된 채 깊은 관계를 맺지 못한다. 상대에 대해 무기력하고 무관심하며 무관한 일에 관여되기를 주저한다. 현대인 대부분의 행동은 사회화를 통해 형식적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자신을 공허한 유기체로 느낄 뿐이다. 또한, 상대를 대하는 방식에 있어 존엄성을 지닌 존재로 대하기보다 교사, 학자 등 단순한 역할로서 관계한다. 이와 같은 역할 대 역할의 관계는 인간과 인간의 진실한 만남의 방해요소로 작용하여 상호 간의 본성 실현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이처럼 관계 형성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은 타자로부터 거부 · 배척당하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타자에게 인정을 받기 위하여 내면 그대로의 느낌이나 생각, 욕구를 억제 또는 은폐하는 양상을 보인다. 심지어 자신의 것이 아닌 것을 본인의 생각인 것처럼 자기 연출을 하고 이를 유지하기 위하여 가식적 만남을 고수한다. 본인의 불일치에서 기인하는 긴장, 불안의 부정적 감정으로의 압도는 생산적이고 유의미한 삶을 사는데 지장을 받을 뿐만 아니라 타자와 깊은 유대 관계의 미형성으로 고독, 소외, 허무와 관련한 결여 의식에 시달리게 된다.[9]

또한, 인간은 다양한 관계유형 속에서 복잡하게 얽혀 삶을 살아간다. 그러므로 삶의 문제는 결국 관계의 문제로 귀결된다. 타자와의 관계 형성으로 삶의 질이 좌우되며, 개인의 행복과 불행의 원천이 되기도 한다. 우리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안정적으로 형성될 때 내적인 만족과 행복을 경험하게 된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사회는 정서적 유대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주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인들은 외로움과 고독, 불안 속에 살아간다.

심리학자인 로버트 메이(Robert M May, 1936~2020)[10]는 현대인들이 산업 문명의 발생으로 거대한 사회구조의 노예가 되었으며, 인간 상실과 자아 상실의 이중적 고통 속에서 고독과 공허감으로 고통받고 있다고 진단하고 있기도 하다.

이처럼 현대인들은 삶 속에서 진정한 인간적인 만남의 기회가 점점 줄어들고 형식적, 경쟁적, 가면적, 피상적 관계의 모습들이 늘어가고 있다. 깊이 있는 신뢰

9) 최지민, 앞의 논문, p.17
10) 권석만, 『May.R.,Mansearchesofhimself』, NewYork:Norton, 1997, p.23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를 바탕으로 한 일체감의 결여는 친밀한 관계를 맺지 못하여 불안이 파생되는 삶의 무의미와 공허감으로 인해 방황한다.

연구자는 관계의 소멸로 인한 실존적 고통에 주목하고 인격적 관계성 회복을 통해 인간다운 삶을 제시하고자 한 인물이 마틴 부버이다. 다음에서는 부버 관계철학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실존적 관계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2. 실존적 관계철학

마르틴 부버 (Martin Buber, 1878~1965)는 19C 초 ~ 20C 말 사회적으로 격동기적 시대를 살았던 인물로 현대인은 개인주의와 집단주의 사이에서 인간으로서의 가치와 존엄성을 상실한 채 무방향성의 딜레마에 빠져있다 지적했다. 그런 그에게 있어 인간성 회복의 통로는 인간성 상실의 '나-그것'에서 '나-너'의 관계의 회복을 통해 인간과 인간 간의 참된 관계인 본디 모습을 되찾고자 하였다.[11]

부버는 관계 철학을 통해 인간의 본질에 대해 논한다. 인간의 본성은 관계를 통해 형성되고, 실존을 위해서는 타자와의 관계가 선행되어야 가능함을 인간존재의 본질이라 말한다.

부버가 제시한 관계는 자연과 더불어 사는 삶, 사람들과 더불어 사는 삶, 정신적 존재들과 더불어 사는 삶, 이렇게 세 가지의 영역을 구분한다. 먼저 자연과 더불어 사는 삶에서의 관계는 비언어적 소통으로 우리가 자연을 향해 '너'라고 말할 수 있으며, 비록 사물이지만 상호성을 바탕으로 한 관계 형성이 가능하다. 다음 사람과 더불어 사는 삶에서의 관계는 언어적 소통이 가능하고, 상대를 '너'라고 부를 수도 있고 불릴 수도 있다. 대상이 하나의 '너'와 '나'가 될 때 그 '너'와 '나'가 상호 교차할 수 있는 동시적 관계라는 뜻이다. '나'는 '나-너'의 관계에서 생명을 느끼고 '너'와 더불어 현실에 참여할 뿐 아니라 '너'와의 접촉을 통해 '나'의 인격이 드러나기 때문에 사회 안에서 진정한 관계가 가능한 것이다.[12] 마지막 정신적 존재들과 더불어 사는 삶에서의 관계이다. 정신적 존재들은 영적 존재, 신적 존재를 의미하며 부버에게는 '영원한 너'가 된다. 이 관계는 구름에 덮여 있으나 스스로 나타내고 상대에게서 응답이 없지만 말을 만들어 내는 관계이다.[13] 부버는 이 세 가지 영역에서 '나-너'의 관계인 참된 관계 속에서 각각의 '너'를 통해 '영원한 너'를 만날 수 있다고 말한다.

이러한 관계가 지니는 의미는 일차적으로 개념적 의미, 더 나아가 기능적 의미,

---

11) 강선보,『만남의교육철학』, 서울원미사, 2003, p.10
12) 김수정,「관계로서의 학습 Buber의 인간관과 그 교육적 시사」, 대구교육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10, p.16
13) 표재명,『나와 너』, 문예출판사, 1977, p.13.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특별한 경우에 체험적 의미로 쓰이게 된다. 개념적 의미에서 체험적 의미로 갈수록 그 관계는 깊어진다.

세 가지 의미의 차원을 다시 두 가지 세계로 나눌 수 있다. 이 세계는 관계에서 비롯된 세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개념적·기능적 의미의 세계와 체험적 의미의 세계로 구분된다. 관계를 전제로 의미가 존재하지만, 반대로 존재의 내포된 의미를 찾아보면 그 존재와의 파생된 관계를 알 수 있다.

이처럼 인간은 외부의 모든 것과 유기적인 관계에 놓여있고, 그 관계는 인간을 둘러싼 삶의 구체적인 상황성 ·맥락성의 만남이다. 이는 타자와의 관계를 떠나서는 어떤 존재도 삶 속에서 존재 의미를 지닐 수 없음을 의미한다.

부버는 인간의 전체성 탐구에 있어 구체적 개별성이 배제된 일반화를 경계한다. 이와 관련하여 현대적인 인간의 두 유형인 개인주의와 집단주의가 인간을 모두 포괄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비판하였다. 즉 개인주의는 인간이 분리된 개체, 집단주의는 인간이 아닌 사회에 집중된 시선이기에 인간의 전체성 파악에는 오류가 있다는 것이다. 개인주의는 인간의 시점이 왜곡되어 있고 집단주의는 인간의 시점이 막혀 있다[14]는 것이다.

따라서 부버는 인간 이해를 위해 개인주의와 집단주의를 넘어 제3의 입장을 제시하였다. 살아있는 인간 의식으로서 그 대상과 함께 있는 인간이 인간 실존의 기본 양상이고, 인간의 전체성을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함께 있는 인간'은 자신의 고유성을 유지한 채 타자와 관계를 맺는 것을 말한다. 즉, 나와 네가 각자의 고유 영역을 넘어 공통의 영역에서 함께 대화하기 위해 서로의 타자성을 인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독립된 인간 개체의 독립성을 의미하는 '원간격'은 타자와 관계 형성을 위한 출발점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간격을 가질 수 있는 존재만이 타자와 관계를 맺을 수 있다. 간격을 가진 타자와의 관계 형성은 인간 자신의 자존으로부터 벗어나게 되며, 이는 개체에서 인격체로 성숙한다는 것을 의미한다[15] 할 수 있다.

---

14) 남정길, 『인간이란무엇인가』, 서울대한기독교서회, 1983, p.141.
15) 최성식, 「마틴 Buber철학에서의 인간화의 길」, 『철학연구』 No.5, 1995, p.11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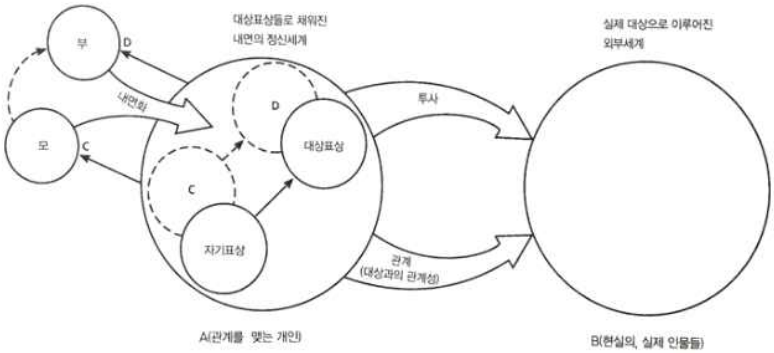
부버에게 있어서 '원간격'과 '관계' 이 두 원칙은 인간존재의 본질로 규정되며, 관계에 들어가더라도 나-너 사이의 원간격은 사라지지 않고 유지된다. 그러므로 타자와의 만남 속에서 낯섦음 지속해서 경험하게 된다. 이는 나와 너 사이에 넘어갈 수 없는 한계가 있음을 인정하고, 이 한계가 보존되어야만 만남이 진정한 만남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원간격을 가진 타자를 이해하고 수용하는 것을 전제로 한 관계 형성을 통해 인간 존재가 실현된다.

연구자는 현대인들에게 일어나는 인간소외, 불안 등 부정적 문제 해결을 위해 '관계'에서 실마리를 찾으려 하는 부버의 사상은 많은 시사점을 제공함을 알 수 있었다. 연구자는 상호성으로 규정되는 '나-너'의 관계인 만남에서의 존재론적 사이와 인간 존재의 본질을 나타내는 원간격을 작품의 형성 배경으로 삼고자 한다. 이를 작품으로 전개하기 위해 인간의 존재에 대해 깊은 내면의 이해가 필요하다. 다음에서는 정신분석학적 관계 고찰 부분으로 대상관계이론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3. 현상학적 대상관계이론

대상관계이론은 대상, 자기 및 대상표상, 대상관계와 전체 및 부분대상을 포함하는 것으로, 학자에 따라서 다르게 규정되기는 하지만[16] 대체로 대상을 유아가 관계를 맺는 타자를 의미한다. 관계라는 맥락에서 감정이나 본능보다 대상 자체에 관점이 있는 것이다. 그러나 대상이란 외부에 실제로 존재해 상호작용하고 있는 인물만이 아닌, 개인의 정신세계에 표상된 내적 대상들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앞서 보았던 관계철학에서의 실제 관계가 아닌, 어떤 의미에서는 이 내적 대상들이 더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표상이란 개인이 대상을 정신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방식을 지칭하는 말이다. 이 내적 정신세계는 실제 사회적 환경 속에서의 관찰 가능한 대상들의 영역인 외적 세계에 대한 개인의 주관적인 정신적 표상임을 의미한다.



[도-02] 대상관계 인식 체계

대상관계란 대인관계가 내면화된 것이라 볼 수 있기 때문에 실제의 대인관계와는 다를 수 있다.[17] 정신분석학에서의 주된 관심은 본인이 세계와 주변 관계를 어떻게 표상하고 이해하는지에 대한 것이다. 이는 심리적 치료 상황에서 관계가 지닌 내적 대상관계에 대한 탐색을 통해서 드러난다.[18]

16) 이해리, 「정신분석학적 대상관계에서 본 종교와 하나님의 표상」,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3. p. 63.
17) URL : blog.naver.com 대상관계이론 개괄
18) URL : blog.naver.com 대상관계론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대상관계이론에서 자기표상은 관계에서 경험하는 자기에 대한 표상으로 내적세계를 의미한다. 유아는 초기에 자기와 대상을 분리하지 못한 채 자신의 일부로 지각한다. 그러다 점차 대상을 자기와의 분리 과정을 겪으며 자기와 자기 아닌 것, 즉 대상표상과 자기표상의 구분이 가능해진다. 그 중 자기표상은 한 개인이 타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결정하는 것으로, 본인 기저에 깔린 내면화된 과거의 무의식이 현재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기에 과거부터 현재까지 이어진 연결고리는 관계 설명에 있어 기초를 제공한다.

대상관계에서의 정신구조는 원초아(id), 자아(ego), 초자아(superego)로 구성되어 있으며, 개념, 정신 과정, 관계 방식까지 포함한 의미를 담고 있다. 이들은 실체가 아닌 정신 과정과 기능에 대한 개념들로 정신분석학에서는 성격 형성 시 내면의 억압된 본능과 감정의 내면화, 동일시를 중요하게 여긴다.[19]

이러한 대상관계이론은 자아의 감각을 발전시키는 핵심요소로써 타자와의 연계를 형성하기 위한 인간의 내적 성향에 근거한다. 대상관계이론에 따르면, 인간은 외부세계와 내부세계를 동시에 살아간다. 이것은 어떤 이들에게는 외부세계와 내부세계는 서로 상호침투적이라면, 다른 이들에게 있어 이 두 세계는 엄격하게 분리된 것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따라서 대상관계는 한 사람이 타자와 형성하는 관계와 내적 대상과의 관계 및 그 내적 대상들이 품고 있는 정신분석학적인 기능을 알아내고자 하는 이론이라 할 수 있다.[20]

대상관계이론에 입각한 인간의 정체성 규정에 있어, 대부분의 준거(準據)가 되는 것은 타자의 존재이다. 인간은 성장은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며, 관계에 있어 자신의 목적에 종속시키려 할 때 타자와 본인의 욕구 사이에 갈등이 있음을 체험함으로써 매 순간 타자의 존재를 경험하게 된다. 즉, 자아의 모습은 현존하는 자아의 초점에서 타자에 대해, 타자를 위해, 그리고 타자와 더불어 현존하는 자아로 이동시킴으로써 구체화 되어 주체적 형성이 가능한 것이다.[21]

---

19) 박은혜, 「건강한 기독교 가정을 세우기 위한 가족치료 연구」, 서울기독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11, p.81
20) 이재훈, 『정신분석적 대상관계이론』 서울: 한국심리치료 연구소, 1999, p.31.
21) 김영필, 문정복, 『탈 근대적 자아를 넘어서』, 울산: 울산대 출판부, 1995, p108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연구자는 관계에서 비롯되는 감정은 단지 피상적인 것뿐만 아니라 기저에 깔린 내면의 심리도 함께 작용하여 애착유형 형성에 따라 타자와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멜라니 클라인 (Melanie Klein, 1882~1960)의 대상관계이론에서 외부 대상과 관련하여 심리적으로 경험되는 심적 표상인 내적 대상에 집중하고자 한다. 연구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외부의 대상 이미지, 생각, 환상, 감정, 기억의 요소를 통해 형성된 심상의 내적 세계에 관심을 두고 연구자 작품 배경에 있어 정신분석학적으로 접근을 시도한다.

연구자에게 있어 관계 서술은 내 의지와 무관하게 타의적으로 생성되는 사회적 환경과 자의적으로 생성하는 개인적 환경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한다. 사회적 관계에서는 생각하는 개인으로 수동적 자아는 의무적인 자기 상에 근거한 에드워드 토리 히긴스 (Edward Tory Higgins, 1946~)의 자기 불일치이론으로 전개한다. 개인적 환경에서는 스스로 선택하는 능동적 자아의 모습을 존 보울비(John Bowlby, 1907~1990)의 애착이론 통해 관계의 순환에 따른 내적관계를 전개하여 연구자 작품의 관념적 형성 배경으로서의 시발점이 된다.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제 2절 주체 관계의 불안

1. 불안한 존재

연구자 스스로 존재에 대한 물음은 불확실성으로 인해 불안감이 야기되고, 그 순간에는 본인 자아의 존재와 마주하게 됨을 경험하게 된다. 연구자가 느끼는 이 불안(不安)이라는 감정은 하루에도 몇 번씩 경험하는,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는 매우 밀접한 개념이다. 따라서 본인만의 특수한 상황이 아니라 누구든 삶 속에서 마주하는 감정이라 느꼈고, 그 불안감에 대해 의문으로 존재와 불안의 연관성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다.

심리학자 에리히 프롬 (Erich Fromm, 1900~1980)은 행동동기의 발생적 측면으로 인간이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태아기의 인간은 어머니의 뱃속에서 일체감의 상태에 있었다. 그런데 분만의 과정을 거쳐 모체로부터 분리 · 격리되면서 종전의 일체감은 파괴되고 분리감을 느끼게 된다.[22] 처음 겪는 분리의 경험은 인간에게 고독감과 불안감을 제공하고, 성장에 따른 삶의 지속은 자신의 인간관계, 그리고 사회 환경 속에서 자립, 죽음, 이별, 역할, 강박의 요소로 인해 때때로 불안을 경험하게 된다.

소설가 알랭 드 보통 (Alain de Botton, 1969~)은 현대인이 느끼는 불안의 원인을 '사랑 결핍', '속물근성'. '기대', '능력주의', '불확실성' 이 다섯 가지로 규정한다. 불안감 조성의 원인은 기대감에서 비롯된 것으로, 현대사회는 기술의 발전으로 윤택한 삶을 살게 되었지만, 역설적이게도 궁핍과 가난에 대한 공포는 오히려 더 증가한다.[23] 이는 자신이 가진 것에 대한 불만족과 질투심에서 파생되어 작은 차이에도 타자와의 비교를 통해 불안을 느끼게 된 것이다. 부유함에서 찾는 불만, 편안함에서 찾는 우울은 현대사회에서 발견할 수 있는 특징적 요인이라 할 수 있다

22) 이지나, 「인간의 관계성을 표현한 도자조형연구」, 국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14, p.5
23) 박종욱, 「경쟁불안에 대한 시각 표현 연구」, 한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19, p.6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복잡한 사회 안에서 발생하는 갈등 속에서 불안을 느끼고 스스로에게 몰입 한다는 것은 자기 내면에 대한 성찰의 과정으로 설명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인간이 불안을 느끼는 이유는 정신적인 존재이기 때문이다. 정신은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새로운 가능성을 향해 나아가려는 속성을 지니고 있기에 불편한 감정에 더욱 집중하게 되는 것이다. 불안한 심리는 개인의 심리적 상흔이나 현대의 사회적 문제로부터 비롯되는데, 현대인들은 이로부터 얻은 심리적 스트레스로 인하여 마음의 병을 얻는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사람을 긴장하게 만들어 일의 능률을 올리게 하는 등 순기능적인 면도 있다.

철학자 르네 데카르트 (René Descartes, 1596~1650)는 "절대적 근원에 대한 갈망으로 인하여 양극을 오고가는 근원을 밝히고자 하는데서 오는 합리성의 추구로 인하여 불안이 발생한다."고 하였고, 신의 죽음을 말한 니체는 "불안은 광기에 이르는 길이다."라고 하였다. 세계 대전을 겪고 난 후 등장한 실존주의[24]자들에도 불안은 주된 연구 대상이었으며, 야스퍼스나 하이데거에 의한 20세기 형이상학의 부활로 인하여 '무(無)로서의 존재'와 '밖에 있는 존재자로서의 본질에 대한 질문'은 불안에 많은 부분을 할애하게 된다.[25]

실존주의 철학자 쇠렌 키에르케고르 (Søren Aabye Kierkegaard, 1813~1855)는 실존의 근원 속 불안을 개념에서부터 죄의 문제, 신앙의 문제로 전개했다. 그는 "자기 자신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불안과 가능성의 무지에서 비롯된 불안이 질적 비약을 일으켜 인간을 타락케 한다."고 간파하였기 때문에 그것의 유의미한 관계성으로 아담의 타락 원인을 불안에서 찾았다.[26] 여성이 남성보다 불안에 취약한 이유를 아담을 유혹했음에 발생하는 원죄의식에 의한 죄책감의 발로라고 연관지어 설명하고, 동시에 타락의 극복 요인도 불안에서 찾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불안은 질적 비약을 일으켜 인간을 죄로 이끌고 동시에 신을 통한 구원을 이끄는 변증법적 양의성을 지니고 있다 할 수 있다.

---

24) 실존주의 : 실존은 자기가 자기 자신의 주체로서 책임을 가지며 창조적 삶을 이끄는 것으로서의 주체이다. 실존주의의 중심개념인 실존(Existence)은 밖에(ex)와 나타나다(sisitere)라는 의미의 라틴어에서 유래한 것이다. 즉 실존은 밖에 나타난 것이며 현실 속에 내어 던져진 존재이다.

25) 김수현, 「초현실주의와 퍼포먼스 예술에 나타난 '불안'의 전이」, 서양미술사학회, 서양미술사학회 논문집, 1999, p.90.

26) 선민아, 「현대미술에 나타난 불안의 표상적 특징과 심리학적 개념에 대한 연구」,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9, p.7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신학자 폴 요하네스 탈리히 (Paul Johannes Tillich, 1886~1965)는 불안을 인간의 정서적인 측면이 아닌 인간 실존에 뿌리를 두고 있는 존재론적 특징이라 설명한다.[27] 즉 인간 실존의 주변 환경에 근거한 감정의 요소가 아닌, 인간 실존의 근거에 대한 존재론적 불안은 인간의 본질적 유한성 구조의 변화가 불가하기에 극복할 수 있는 방법 또한 찾을 수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신분석학자 로버트 하인셀우드 (Robert Hinshelwood, 1938~)는 "정신분석학의 역사란 곧 인간 특성의 하나인 불안을 이해하고자 하는 계속적인 노력이다." 라고 말한다.[28] 이는 이 말을 언급한 로버트 하인셀우드는 물론 정신분석학의 창시자인 지그문트 프로이트를 비롯하여 멜라니 클라인, 윌프레드 비온과 자캉, 줄리아 트리스테바에 이르기까지 '불안'을 조명한 정신분석학자들이 다수였고, 정신분석학 뿐만 아니라 여러 철학자들에게도 '불안'이라는 주제는 주된 관심의 대상이었다는 것을 증명한다.

정신분석이론(Psychoanalsis)[29]은 임상적인 수준에 이르는 보통의 불안 증세 원인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환경으로부터 발생하는 문제를 대처하는 데 있어 자신의 무력함에 대한 지각, 이별에 대한 기대, 환경변화에 의한 정서적인 지지 상실, 위험한 충동, 사랑의 철회위협 등에서부터 불안은 발생할 수 있다.[30] 그 외에도 불안은 생애 초기 양육의 태도에서도 유발될 수 있다. 태아는 돌봄 과정에서 여러 가지 경험에 노출되는데, 자신이 욕구충족을 원활히 제공해 주는 대상을 선한 대상과 동일시하게 되지만, 그 반대의 경우 자신의 공격 대상이 되어 불안감을 느끼게 된다.

정신분석학자 지그문트 프로이트 (Sigmund Freud, 1856~1939)는 이러한 불안은 이드와 자아, 그리고 초자아 사이의 갈등 때문에 나타난다고 보았다. 그리고 그 불안을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했는데, 첫째, 현실적 불안(Realistic Anxiety), 둘째, 신경증적 불안(Neurotic Anxiety), 셋째, 도덕적 불안(Moral Anxiety)이다. 이러한 유형은 세 가지 자아와 관련해서 이해할 수 있다. 현실적 불안은 자아에

27) 임규정, 키에르케고르, 『불안의 개념』, 한길사, 1999, pp.67-68.
28) 김복태, 리키 이매뉴얼, 『불안』, 이제이북스, 2002, p.9.
29) 인간 심리기능과 행동에 대한 연구이며, 특히 무의식적 정신활동에 초점을 맞춘다. 정신분석에는 세 가지 측면이 있는데, 마음을 조사하는 방법, 인간행동에 대한 체계화된 지식, 정서질환을 치료하는 방법이다.
30) 김은정, Irwin Sarason, Barbason,『이상심리학』, 학지사, 2001, p266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의해 생기며 자아가 현실을 인지하고 두려움을 실제적인 것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데 기여한다. 신경증적 불안은 이드로부터 생기며 본능적 욕구가 현실과의 갈등에 생성 원인이 있다. 즉 이드의 충동적 행동으로 인한 처벌에서 느끼는 무의식적인 두려움이다. 마지막으로 도덕적 불안은 초자아에서 생성되며, 우리에게 무엇이 부적절한지 말해주는 양심에서 비롯된다. 결국 본능의 이드와 이성의 초자아 간의 갈등에서 비롯된 불안으로, 도덕적 수치심이나 비양심적인 행동에 죄의식을 느끼게 되어 생성되는 불안이다.

불안은 불유쾌한 감정으로 앞서 프로이트가 구분한 세 가지 자아 사이의 갈등으로 인하여 끊임없이 생성된다. 자아는 불안을 피하고자 갈등을 감소시키려고 노력한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불안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자 가능한 한 빨리 불안에서 벗어나길 원한다. 그래서 우리는 불안이나 불쾌한 감정을 극복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을 발전시킨다. 프로이트는 이런 인간의 방어적 수단을 '방어기제(Defense Mechanism)'라 불렀다.

방어기제는 불안의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 불안을 정신적으로 감당하는 방법이다. 인간이 바이러스에 의해 병에 걸리면 면역체계가 작동하여 병원균과 싸우면서 자신의 몸을 방어하는 것처럼 방어기제는 인간의 정신에서 무의식적으로 작동하는 것이다. 이 무의식에는 어린 시절 겪은 정신적 외상[31]이 남아서 이후 유사한 경험을 할 때 불안을 일으켜 자아가 방어기제를 발동하게 만드는 것이다. 방어기제의 주된 역할은 인간에게 심리적으로 안정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으로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거의 모든 사람의 일상에서 볼 수 있다. 다만 방어기제가 지나치게 사용되는 경우에는 정신병리와 연관될 수 있다고 프로이트는 설명한다.

이러한 프로이드가 말하고 있는 불안의 원인론은 이후 정신분석학적 연구에 변화를 가져왔고, 임상적으로도 그 원인을 추출하여 병리 상황에 따라 다양한 측면으로 나누어 생각하고 분류하는데 기초를 제공하고 있다.

---

31) 프로이트는 어린 시절 정신적 외상이 불안 발생의 원인이라 보고 이것의 근원적 원인을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로 인한 거세불안이라 보았다.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연구자는 예술가로서 관계에서 느낄 수 있는 감정을 예술로 표현하고자 함에 앞서 불안의 개념들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였다. 불안의 본질에 대한 존재론적 해석인 '불안이란 무엇인가'라는 것보다, '불안이 실재적으로 어떻게 작용하는가'에 대한 동태적 현상을 살펴보았다.

연구자는 타자와의 관계에 있어 파생되는 불안의 그 근원을 찾음으로써 본인의 정체성을 인식하려 한다. 따라서 다음에는 주체적 자아형성을 위한 사회적 · 개인적 배경으로부터 발생하는 현대인의 내적 불안의 요소에 대해 논의해보고자 한다.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2. 주체적 자아 형성

불안으로 인한 두려움이나 좌절은 인간의 주체 상실을 가져오고 자신을 소외시켜 고독하게 만들며, 부정적인 감정은 내면화되어 각자의 자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자아는 인간의 사고와 감정 체계를 주관하는 것으로 타자를 통해 자아를 인식하지만, 외부의 요인에만 집중된 채 형성된다면 결국 본인의 모습은 사회가 원하는 것에 불과한 이미지일 뿐 주체적 자아라고 할 수 없다.

우리는 자아를 모방한 무언가를 통해서 자신의 자아를 마주하게 된다. 그것을 바라보며 자신이 스스로 만들어 낸 자아라고 착각한다. 라캉이 말하는 '거울단계'를 통해 설명된다. 거울에 비친 본인의 모습을 실제 자아라고 믿지만, 거울에 비쳐 좌우가 바뀐 이미지에 불과하다는 것을 인지함과 동시에 자아의 혼란과 자기 정체성에 대한 불안을 품게 되는 것이다.[32] 특히 복잡한 사회구조에서의 현대인들은 다양한 매체를 통해 타자가 원하는 각양각색의 자아를 접하게 되고, 이를 위해 매번 변화를 꾀하는 현대인들의 자아는 혼란스럽고 상실감마저 일으킨다.

이러한 현대인은 타자와의 관계를 통해 획득한 자신 본질과는 반대로 소외된 텅 빈 존재로서 자신을 경험하게 된다. 그리고 인간은 본인 자신의 발전을 통해 일체감을 성취할 수 있지만 소외된 인간은 타자와의 유사성을 통해 안정을 느낀다. 주체성을 상실한 대상에게 목표는 타인으로부터 인정이며, 주된 두려움은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내면의 불안이다. 타자와의 차별성에 따른 소수의 자아는 안정감을 위협하며, 이는 타자와 동일시에 대한 갈망으로 이어진다.

이렇듯 보편적으로 사람들은 삶을 살아감에 있어 자신의 총체적 모습을 표현하고 규정하려 하지만 주어진 상황 속에서 선택과 의도대로 삶의 방향이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또 그 미래를 예측하기란 더더욱 어려움이 가중된다. 이러한 사회적 현상으로 인해 우리는 점점 자아를 인식하지 못한 채 살아가게 된다. 자신의 존재 의미를 잃고 타자에 의해 삶과 행동을 결정함으로써 철저히 기능화 · 추상화 · 비인간화되어 버린 것이다.

32) 김자연, 「현대인의 불안한 자아에 관한 상징적 표현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15, p.7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따라서 연구자는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타자와의 관계에 대한 다양한 경험을 토대로 내적관계에 대한 심상을 조형화하고자 한다. 그에 따라 불안 속에서 본인이 속한 타자를 통한 부정적 감정에서 벗어나 자신 존재에 대한 정체성을 찾는다. 타자와의 관계에 있어 불안은 어떻게 연구자가 받아들여야 하는 것일까 늘 자문하곤 했다.

사회와 타자와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불안은 결국 나의 정체성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고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이것을 극복하기 위하여 내면을 고찰하는 기회로 삼아 연구자에게 있어 스스로 본질에 대한 연구를 통해 자아를 인식하고, 인식된 대상으로서의 나를 발견하는 과정을 거치게 한다. 발견된 본인은 누군가에 의해 규정되고 묘사되는 것이 아닌, 자기진실성에 입각한 나의 본연, 곧 진실한 자아정체성이다. 우리는 각자가 추구하는 가치를 반영하고 그 해석과 인식의 대상이 자기 자신이 될 때 스스로 유의미한 방식으로 본연의 모습을 도출해 낼 수 있을 것이다.

이렇듯 연구자는 불안을 본인의 삶에서 건전하고 정신적인 자극으로 사료됐다. 예술 활동을 통해 불안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이해하며 인간의 삶과 정신적인 것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가 선행되었다. 이로써 주체적 자아의 형성과 본질에 대한 내면의 성찰을 더 해 연구자의 작품을 전개하고자 한다.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제 3장

현대미술에 반영된 표현 요소의 분석

제 1절 관념적 요소

1. 내재된 억압 - 타의적 관계
2. 자의식 표출 - 자의적 관계

제 2절 형상적 요소

1. 자아 정체성 - 구
2. 상호 관계성 - 선
3. 표현 확장성 - 재료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제 3장 현대미술에 반영된 표현 요소의 분석

제 1절 관념적 요소

인간은 사회라는 공동체 안의 다양한 관계를 통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 바람직한 관계 형성을 위해 본인과 다른 타자에 대한 이해, 문화에 대한 이해는 세계화 시대의 현시점에서 수반되는 필수적 요소라 할 수 있다.

야스오 쓰지 (Yasuo Tsuji)는 미덕과 연대가 단절된 세계화 시대에서 구성원의 정체성 형성은 소속된 집단의 문화에 대한 관계성에서 비롯된다. 그는 관계의 단절은 개인과 집단의 정체성 형성의 안정성을 위협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33] 타자와의 관계 속에 형성되는 정체성은 자기 결정을 필요로 한다. 관계에 대한 규명에 있어 어떤 관계로 발전시킬지에 대한 스스로의 자기 결정은 자신의 내면에 대한 성찰의 과정이된다. 따라서 자아 정체성이란 타자와의 관계 속에 자신을 정의하는 과정이기에 올바른 관계 형성이 건강한 자아로 도출될 수 있을 것이다.

칼 구스타브 융 (Carl Gustav Jung)은 “창의적 과정은 원형의 무의식적 활기이며, 그러한 활기의 발휘 및 형상화 과정은 완성된 작품에 이르게 된다.”[34]고 한다. 예술가는 창작활동을 통해 본인에게 내재된 부정적 감정을 지각하고 이를 밖으로 드러내는 시각적 표출 과정을 통해 작품으로 승화된다. 작품이 담고있는 의미는 예술 활동 과정에서 직접적 · 은유적 표현 및 형상화하는 과정에서 그 심상을 파악할 수 있다. 작품을 통해 억눌렸던 감정을 분출함으로써 무의식 속의 내면을 상징적 방법으로 시각화한다. 이런 상징적 이미지는 정서를 은유한 것으로, 예술이란 결국 예술가 본인의 내적 심상을 만날 수 있는 것이다. 이는 예술 활동을 통해 본인의 정서를 마주하며 능동적으로 대처하게 되는 것으로, 심리적 억압

33) 김한수, 임영언, 「디아스포라의 초국적 정체성과 다양성에 관한 고찰」, 『한국과 국제사회』, Vol. No2, 2017, p.113
34) 정여주, 『융의 분석심리학에 기초한 미술치료』, 학지사, 2002. p. 42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과 부정적 충동은 예술로 승화하여 부정적 감정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과정은 현대미술 안에서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연구자는 이 절에서 사회적 관계, 즉 외부 자극에서 오는 감정의 내재적 억압 표현과 개인적 관계에서의 자의식 표출을 표현한 작품 사례를 살펴보면서 작가의 삶과 그 이면의 내면세계를 조명해보고 작품표현의 특징에 대해 분석하여 연구자의 작품 형성 배경의 근간으로 삼고자 한다.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1. 내재된 억압 - 타의적 관계

가. 서도호 (Shu Doho)

서도호[35]는 민주화사회, 집단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집단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전함을 바탕으로 하여, 사회의 억압에서 오는 자신의 정체성을 작품을 통해 표현하고 있다. 이런 서도호의 작품을 보면 그때 그 상황의 문화적 기억이 표현된 시대성과 문화에서 느낀 단일화, 공포, 억압, 통제당한 경험을 떠오르게 한다.

[도-03] 서도호, <플로어>, 1997~2000

[도-03]은 수많은 개체가 모여서 하나의 군집을 이루는 작품으로, 균일한 요소들은 반복되어 집단의 힘을 표현하고 있다. 하지만 그의 작품에서 반복되는 전체의 힘은 즉각적으로 가시화되지는 않는다. 이 작품을 보는 관람객들은 작품이 어디 있는지 발견하지 못한 채 우연히 자신의 발밑을 응시하게 되며, 그때 발을 받치고 있는 작은 개체를 확인하게 된다.

이 작품은 6개의 인종으로 구성된, 거대 집단의 권력에 대한 심오한 의미를 담고 있으며, 자신의 발밑에 존재하는 반복적인 군상의 표현은 관람객으로 하여금 집단주의에서의 두려움을 느끼게 한다.

35) 서도호(Suh Doho, 1962~)은 한국의 설치미술가로 정체성, 사람사이의 관계 등을 작업의 주된 주제로 삼고있다. 위키백과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도-04] 서도호, <카르마>, 2003

[도-05] 서도호, <고등학생>, 2003

[도-04]에서는 양복바지에 검은 구두를 신고 걸어가는 남자의 거대한 발이 천장에서 바닥까지 이어져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발밑에 모여 있는 군상들이 거대한 구둣발에 짓밟히기 직전에 도망치는, 발자국 대형을 이탈한 모습을 표현한 것이다. 이 작품은 인간을 억압하는 사회의 거대한 힘과 그것을 피하기 위한 몸부림의 형상으로 나약한 인간을 표현한 것이며, 전체주의 혹은 자본주의 국가들의 힘없는 개인의 정체성을 파괴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도-05]는 불특정 집단의 불확실성을 표현한 것으로, 강압적이고 불안한 느낌을 자아낸다. 공간의 규모에 비해 교복의 점유율은 매우 높다. 이는 한국사회의 집단 정체성의 표현으로, 전체주의만을 강조하는 한국사회에서 개개인의 정체성이 사라졌음을 표현한 것이다.[36]

서도호의 작품에서 표현되는 사회구조는 인간소외 현상과 자아정체성의 혼란을 나타낸다. 전체의 희생을 말하는 한국의 모습에서는 개개인의 특성은 사라진 채 획일화된 일상을 살아감의 표현인 것이다. 그가 느끼는 억압된 사회를 표현한 작품에서 볼 수 있는 불특정다수의 위압적 표현으로 연결되며, 전체적 이미지로서 사회의 부조리함과 더불어 그 안에서 파생되는 감정과 함께 인간 존재에 대한 성찰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다.

이렇듯 서도로의 작품 속 공간은 복수, 다수, 집단과 연결되며, 이는 집단과의 관계 안에서 규정되는 '나'의 정체성을 사회적 표현을 통해 드러내고 있다.

36) 오혜진, 「사회문제 인식 함양을 위한 미술 감사지도 방안 연구」, 상명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18, p.32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나. 웨민쥔 (Yue Minjun)

웨민쥔[37]은 중국의 사회, 체제, 상황, 역사 등 강압적 힘이 내포된 사회적 억압 속에서 성장했다. 작가는 이런 배경에서 형성된 자신의 내면을 작품 안에서 웃는 얼굴 이미지로 대상화하고, 그 표현을 통해 자신의 자아를 캔버스 화면 속으로 소외시킨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작가의 "큰 입 웃음"시리즈는 사교적인 의미와 함축적인 의미가 공존하고 있다.

[도-06] 웨민쥔, <웃지 말고 타오를 만큼 충분하지 않다>, 1992

[도-07] 웨민쥔, <대단결>, 1992

[도-06]에서 보이는 인물의 복사된 이미지는 작가의 독특한 예술적 표현이라 할 수 있다. 전통적인 회화 방법은 자신의 이미지, 과장된 표현, 밝은 색상, 평면 배치기법에 따라 객체를 계속된 복제이다. 웨민쥔 그림의 "냉소적 리얼리즘"은 작가의 개인적 지위의 동일성, 그림에서 웃고 있는 바보 같은 미소, 모든 것에 무관심한 태도의 표현으로 일종의 풍자를 통해 사회의 불만을 표출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그의 작품 속에 나타나는 웃는 얼굴의 반복은 선순환적인 요소가 아닌 오히려 각자 고립된 것처럼 매우 처량하고 공허한 느낌마저 자아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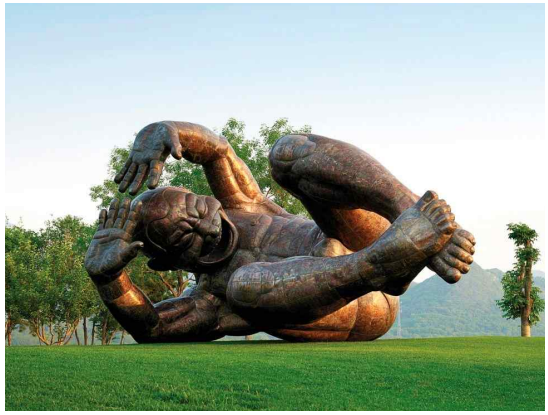
[도-07]에서 작가는 스스로 과격하게 웃는 자신의 얼굴 이미지 표현으로 박장대소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는 모순 가득한 중국 사회 속에서 보잘것없는 존재인 주변인으로서 자신의 소외감을 화폭에 담은 것이다.

중국의 현대사를 겪는 동안 중국인들은 자연스러운 행복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37) 웨민쥔 (岳敏君, YueMinjun, 1962~)은 중화인민공화국의 현대미술작가로 '냉소적 사실주의자(Cynical Realist)'로 대표된다. 위키백과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국가로부터 교육받았다. 그들은 개인의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참다운 웃음보다 교육받은 웃음을 웃었고 심지어 행복하지 않아도 행복한 척 웃어야 했다.[38] 이러한 시대적 상황 속에서 작가는 당시의 어떤 압력으로부터 스스로 피해 가는 방법으로 자신을 소외시키는 격한 웃음의 얼굴 이미지를 사용한 것이다.



[도-08] 웨민쥔, <유연성>, 2009

[도-08]에서 역시 작품 속 인물은 눈을 질끈 감은 채 입을 크게 벌리고 호탕하게 웃고 있다. 하지만 이런 웃음 뒤엔 중국 사회의 급격한 변화에 따른 혼란스러움을 작품에 담은 것이다. 사회에 대한 풍자와 조롱, 집단화에 대한 거부, 분노가 뒤섞여 있고, 그의 작품에서 진지함은 찾아볼 수 없다. 작품 속의 인물은 웃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강요된 듯 부자연스러움과 어색함이 숨어있다. 아무 생각도 없이 누군가에 의해 조종당하며 행복해하는 이 시대의 슬픈 자화상을 표현했다는 작가의 그림은 침묵과 부패의 현실을 은폐하기 위함의 표출인 것이다.

즉 작가 웨민쥔은 중국 공산주의 체제로부터 적응하기 힘든 사람이 느끼는 고립감, 이해되지 않는 상황과 불합리한 사건들로부터 작가는 스스로 웃는 얼굴의 이미지 속에 감추었다. 화면 속으로 철저히 자기를 소외시킴으로써 어떤 현상에 대한 불만족, 위선적인 세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호소하는 측면이 보이며, 이 역시 작가는 본인의 자아를 표현하면서 사회적 억압으로 인해 내재된 감정을 가시화하고 있다.

38) 이보연, 『이슈 중국 현대 미술』, 시공사, 2008, p.344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다. 에드워드 호퍼 (Edward Hopper)

에드워드 호퍼[39]는 인간의 외로움과 소외, 공허를 표현한 작가이다. 미국의 산업화와 세계대전, 대공황을 겪은 호퍼는 작품의 배경으로 미국의 대도시 속에서 느끼는 사람들의 근본적인 심리인 고독과 절망을 표현하고 있다. 특히 그는 리얼리즘 작가답게 미국의 도시 정경을 사실주의 기법을 바탕으로 도시의 내부를 깊고 섬세하게 바라보는 작품에 표현함으로써 작가적 태도와 본인의 내면세계를 함께 더해 시각화하고 있다.

[도-09] 에드워드 호퍼, <작은 도시의 사무실>, 1953

[도-09]에서와 같이 호퍼의 작품 속 건물은 디테일의 제거와 기하학적 변형으로 회색빛 사회의 차가운 침묵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화면 속의 공허함을 심화시킴으로써 인물과 오브제 간의 긴밀성을 약화로 이어져 궁극적으로 구성요소들 간의 소외를 유발하고 있다.[40] 호퍼의 작업은 시대적 배경에 따라 점진적으로 현대인의 복잡하고 고독한 감정을 담아내고 있다. 이 과정에서 작가 특유의 소외감을 담은 작품들이 다수 제작되었는데, 거리의 적막함, 그곳에 자리 잡은 쓸쓸한 건물, 비어있는 상업시설이 그의 작품에 나타나는 주된 요소라 할 수 있다.

[도-10]은 소외의 정서표현을 집약시킨 작품으로, 이 작품에서 볼 수 있는 '창(窓)'은 호퍼의 회화에서 자주 등장하는 표현 요소이다. 창은 외부의 빛을 내부로 통과시키는 열린 틈이자 그림 속 인물이 바라보는 외부의 광경을 관객이 볼 수 없도록 차단 장치의 역할도 하고있다. '열리고 닫힘 바라봄과 보여짐 시선과 응시의 교차' 등이 바로 이 창을 통해 이뤄진다.[41]

39) 에드워드 호퍼(Edward Hopper, 1882~1967)는 사실주의적인 작품을 많이 남긴 미국의 화가다. 위키백과
40) 최계옥, 「에드워드 호퍼의 회화에 나타난 소외와 고독의 이미지 연구」, 한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9, p42
41) J. A. Ward., 『American Silences : TheRealism of James Agee』, Walker Evans, and Edward Hopper, Louisiana State University Press, 1985, p.156.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도-10] 에드워드 호퍼, <밤을 새는 사람들>, 1994

[도-11] 에드워드 호퍼, <밤의 사무실>, 1940

작품에서 창은 빛과도 연결된다. 화면 속에서 공간의 깊이를 표현하며, 빛의 밝기에 따라 공간적 거리를 나타내는 수단이다. 또한 빛은 추상적인 공간 구성에 결정적 요소로 적용되기도 하는데, 그것은 주변 색들을 더 돋보이게 하는 역할과 동시에 그림자, 인물 표정, 뒷모습과 대비되어 강한 인상을 자아낸다. 그는 빛이 그림 속에서 얼마나 강렬한 힘을 발휘하는지 알려주는 듯 빛을 통해 그림을 완성하고 있다.

또한 [도-11]에서 빛의 사용은 두 인물 사이의 긴장감을 나타내고 있다. 빛은 관람자의 시선을 그림에서 진행되는 내용에 더욱 집중시킨다. 호퍼에게 다양한 빛에 관한 실험은 그의 작품세계에 있어 중요한 회화적 요소이다. 또한 그림의 구도 속에서 조명의 역할을 통해 감정 전달이 용이하며 평범한 일상적 풍경이 볼수록 생경한 공간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게 한다.[42]

이처럼 호퍼의 작품은 외로움과 고독이 도시의 만연한 어두운 한 단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는 작품을 통해 인간 부재 또는 단일 인물 등장의 단순한 구성을 보여준다. 현대생활을 냉소적 시선으로 바라봄으로써 시대적 분위기와 맞물린 이미지를 작품에 반영하고 있다. 그가 바라본 일상의 황량함과 쓸쓸함은 사회로부터 소외된 현대인의 억압적 표현을 가시화하고 있다.

42) 유예진, 「소외감과 환영적 공간 표현에 관한 연구」, 한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18, p.47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라. 로버트 롱고 (Robert Longo)

로버트 롱고[43]는 현대인의 무력감을 동시대 사람들의 이미지로 표현한 작가이다. 작가는 전체적 통일성을 구비한 형상화된 인간상이라기보다는 인체를 매개체로 한 자아 분열적, 일탈적인 굴절된 인간상의 주된 표현을 작품을 통해 보여준다.[44] 이러한 인간상은 그의 작품 [도-12]에서 현대인들의 인간관계, 소외, 갈등, 냉소, 무력감 등 구체적인 모습으로 연출된다. 그는 인간 내면의 감정을 표현하고자 드로잉 속 인물들의 처한 상황, 즉 인물들의 몸부림과 고통을 대형 화폭에 담아냄으로 영웅적인 모습처럼 표현하기도 하며 눈에 보이지 않는 힘과 권력에 대한 저항과 슬픔, 고통과 고뇌 등의 감정을 드러내고 있다.[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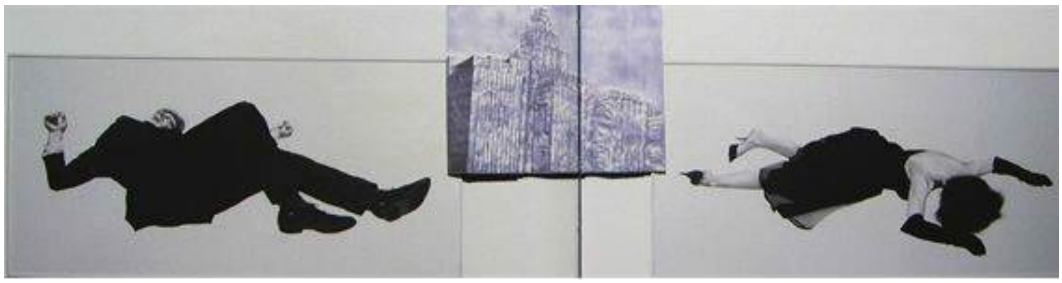
[도-12] 로버트 롱고, <도시 속 사람> 연작, 1981

그의 작업에 나타난 인간상은 현대사회의 총체적 문제 제기이며, 작품에 나타나는 인물들은 현대인들의 자화상임과 동시에 작가의 자화상이라 할 수 있다.

[도-13]에서의 작품은 전반적으로 무겁고 조용한 이미지를 발산하고 있다. 이 작품에서는 차가운 도시이미지의 빌딩 부조를 알루미늄으로 제작하여 작품에 위치시키고, 쓰러진듯한 인물들이 부조의 양옆에 누워있다. 이것은 도시에서 생활하는 현대인의 모습을 작가의 단적인 생각을 담아 인물들의 최후를 보여주는 작품이라고도 할 수 있다.

43) 로버트 롱고(Robert Longo, 1953~)는 1977년 뉴욕미술계에 등장했고, 현재까지 설치,퍼포먼스,비디오 등 다양한 매체를 이용하여 실험적인 작품을 제작하는 작가이다. 위키백과
44) 임유빈, 「내적 상처와 연민에 관한 표현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16, p.9
45) 김자연, 앞의 논문, p.21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도-13] 로버트 롱고, <내셔널 트러스트>, 1981

[도-14] 로버트 롱고, <공동의 전쟁>부분, 1982

[도-14]에서 작가는 현대사회에서 보이지 않는 힘에 조절 당하지만, 그 힘을 느끼지 못한 채 살아가는 익명화된 인간을 표현하였다.[46] 그는 작품을 통해 사회 비판적이고 정치적인 성향을 표출함으로써 당시 문화의 부정적 측면을 표현하고 있다. 따라서 그의 작품은 현대의 대중문화에 대한 탐구를 포함하고 있으며, 사회 안에서 개인의 소외와 불안한 상황에 대한 묘사로 현대인의 저항과 심리적인 고뇌를 담고 있다.

롱고는 현대사회에서 느껴지는 억압의 표현을 위해 현대인들이 일상을 보내는 장소인 도시 이미지는 어둡고 무거운 색채로 나타냄으로써 사회에서 발생하는 권위와 부정적 힘의 적개심을 표현을 통해 사회와 시대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을 제시하고 있다.

46) 임유빈, 앞의 논문, p.10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마. 조지 시걸 (George Segal)

조지 시걸[47]의 주제는 현대인의 일상적인 내용 바탕으로 하여 사회에 적응하는 인간의 다양한 행위의 연출을 통해 환경과 문명 속 인간관계를 자연스럽게 설정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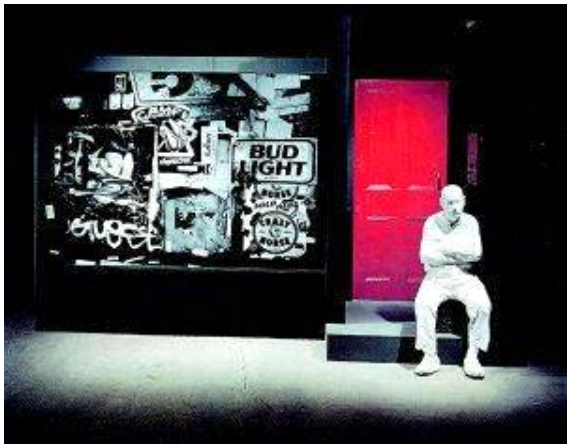
그의 작품은 전반적으로 물질문명에 소외된 현대인의 삶에 관한 것이며 그 소재가 일상적인 것부터 사회적 문제, 정치적 문제 등 현대인과 현대인들이 살아가는 주변 환경을 사실주의적 형태로 형상화하여 표현하였다.[48] 작품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모두 극히 일상적인 환경 속에 놓여있지만 서로 관계하거나 소통하는 모습은 찾아볼 수 없고 얼굴에 나타난 인상 또한 무표정하다. 같은 공간에 존재하지만, 서로를 등지고 관심 없는 듯 상념에 잠겨있는 개인이나, 상대방과 시선을 마주하지 않으며, 서로를 이방인으로 간주하고 스스로 이질적인 존재가 됨으로써 발생하는 느낌을 표현하고 있다. 소외된 인간들의 모습을 보편적인 현대인의 군상을 통해 나타내고 있는데, 그것은 작가 자신의 모습이기도 하다.

[도-15] 조지 시걸, <건너시오, 건너지 마시오>, 1989
[도-16] 조지 시걸, <우연한 만남>, 1989

[도-15]에서 나타난 현대인들은 목적지를 잃고 어디를 가야 할지 모르는 상황을 연출하고 있다. 신호등이라는 현대 기계문명의 지시를 기다리는 모습은 스스로 선택하는 존재가 아닌 선택되는 수동적 존재임을 의미하고 있으며 인간의 주체성 상실에 직면한 현실적 처지를 담은 것이다. [도-16]에서도 이러한 현대인의 모습이 잘 나타나 있는데, 현대문명의 산물로 해석할 수 있는 표지판들을 위로하고 방향성을 잃은 사람들을 현대인의 상황에 비유하여 비애와 고독감을 절실하게 표현하고 있다.

47) 조지 시걸(George Segal, 1924~2000)은 인체에서 직접 석고로 형을 잡은 작품을 제작하는 미국의 조각가 · 화가이다. 위키백과
48) 한호중, 「현대인의 일상을 통해본 고독감 표현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14, p.108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도-17] 조지 시걸, <주류 판매점>, 196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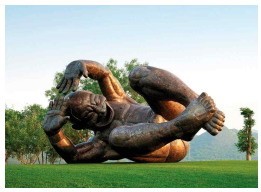
[도-17]은 주류 상점을 그대로 재현하여 설치한 작품으로, 건물의 검은 색이 공간을 무겁게 앉혀 침울함을 감돌게 한다. 벽면에 어지럽게 붙어 있는 술과 담배류의 광고 포스터들은 대중 소비사회의 이미지를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 작품은 무료함, 고독함, 공허함과 같은 현대인들이 일상에서 느끼는 감정을 인물의 자세와 표정을 통해 묘사하고 있다. 작가는 인간의 실존적 삶을 관조적 입장에서 바라보고, 발전된 도시 생활 속 무료한 일상의 모습을 담아내고자 하였다.

작가가 사용한 소재는 관람자의 단편적 기억과 관련하여 새로운 상상을 불러일으키는 역할을 한다. 그는 일상사물들과 석고 조각상의 간결한 배치를 통해 작품의 인물들과 관람자가 동일시되는 연상작용으로 작품 속 오브제와의 상호작용적 경험을 제공한다. 작품의 메타포 적 표현으로 석고 인물상은 사회에서 소외되고 존재성을 잃어가고 있는 고독한 현대인들로, 오브제는 화려한 현대의 물질문명을 보여주는 사물로써 표현된다. 따라서 관람자는 일상의 단면과도 같은 작품을 통해 시간과 공간을 자연스럽게 확장하며 일상에 대한 상황을 은유적 표현하게 된다.

조지 시걸은 작품을 통해 현대인의 삶을 반영하고 인간 삶에 본질적 의미를 질문하고 있다. 따라서 그의 작품은 현대인이 처한 상황을 바로 보고 인간의 내면의 억압된 표현을 작품에 충실히 반영했다는 점에서 독자적인 가치가 충분하다 판단되었다. 자극적이고 표피적인 것들이 가득한 동시대의 미술 경향에 예술만이 가질 수 있는 진정성을 보여주고 있다 할 수 있다.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표-01] 작가 작품 분석 - 내재적 억압

구분	작가	이미지	내용
관념적요소 - 내재적억압	서도호 (Shu Doho)		작가의 억압된 사회적 경험을 표현한 작품에서 불특정다수가 억압을 받고 있음에 대한 표현으로, 사회적 무게감과 부조리함에서 파생되는 감정과 함께 자아 정체성의 혼란을 획일화된 개체로 표현하고 있다.
	웨민쥔 (Yue Minjun)		중국 공산주의 체제로부터 발생하는 고립감, 불합리함을 작가는 스스로 웃는 얼굴의 이미지 속에 감추고, 철저히 자기를 소외시킴으로써 어떤 현상에 대한 불만족, 위선적인 세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회적 억압을 나타낸다.
	에드워드 호퍼 (Edward Hopper)		현대인들이 느끼는 소외를 인간의 부재 혹은 단일 인물의 화면 속 부가적 등장으로 구성하여 도시 속의 군중들로부터 자신을 단절시키고, 외로움, 공허함을 같은 심리적 상황을 보여준다.
	로버트 롱고 (Robert Longo)		현대인들의 소외와 갈등, 냉소, 인간관계 등의 구체적인 모습으로 연출함으로써 복잡한 사회 안에서 심리적인 고뇌에 대한 묘사를 더해 현대사회 안에서의 무력한 자화상의 모습을 보여준다.
	조지 시걸 (George Segal)		사회에서 소외되고 존재성을 잃어가고 있는 고독한 현대인들과 화려한 현대의 물질문명의 이중적 표현으로 문명과 소외의 불편한 속성을 인간 존재의 다양한 연출로 현대인의 삶을 드러낸다.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이상 다섯 명의 작가의 작품에서 반영된 내재된 억압 표현 양상과 연구 작품의 특징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서도호는 민주화 사회, 집단에서의 두려움과 불안전함을 통제의 기억을 통해 표출함으로써 불안 속 자아정체성의 혼란을 획일화된 개체로 보여주고 있다.

둘째. 웨민쥔은 중국 공산주의 사회에서의 불합리함을 작가는 스스로 웃는 얼굴의 이미지 속에 감추어 표출함으로써, 사회적 자기 소외를 강하게 드러내고 있다.

셋째, 에드워드 호퍼는 현대인들이 느끼는 소외를 도시 속의 군중들로부터 자신을 단절시킴으로써 외로움, 공허함을 같은 심리적 상황을 강조하였다.

넷째, 로버트 롱고는 현대인들의 소외와 갈등, 냉소, 인간관계 등의 구체적인 모습으로 연출함으로써 현대사회 안에서의 무력한 자화상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다섯째, 조지 시걸은 문명과 소외의 불편한 속성을 소외된 인간의 존재의 다양한 연출로 현대인의 삶을 드러냈다.

이렇듯 다섯 명의 작가는 서로 다른 문화에서 얻은 경험과 사회적 배경을 반영하여 소외, 외로움, 무력감 등을 독창적으로 작품에 표현하고 있다. 연구자는 그들과 마찬가지로 사회적 시선 안에서의 이중적인 나와 타자의 관계를 빗대어 표현하고자 한다. 본인의 작품 표현에 있어 자아는 사회적 인간으로서 관계에서 파생되는 소외, 불안으로 변주되는 과정을 드러냄으로써 사회에서 기인하는 관념적 요소를 작품에 더한다. 선행작가의 작품에서 볼 수 있는 현대사회 속에서 내재적 억압은 대상관계의 자기불일치이론을 통해 작품에 드러냄으로써 예술가의 역할에 대해 성찰하게 한다는 점은 본인의 작품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2. 자의식 표출 - 자의적 관계

가. 안규철 (An Gyucheol)

안규철[49]은 미술의 의미를 되묻는 작업과 글쓰기로 일관한 작가이다. 그의 작품과 작업관을 살펴보면, 메시지를 통하여 관람자들과의 적극적 소통을 시도하고 있으며, 작업의 의도 또한 자신의 이야기를 충실히 전하고자 한다.

[도-18] 안규철, <아홉 마리의 금붕어>, 2015

[도-18]에서 금붕어들은 9개의 동심원으로 만들어진 수조에서 헤엄을 치고 있다. 계층화된 구조는 하나의 중심을 공유하고 각각의 궤도에 충실한 모습으로 자유로운 섞임을 가로막는다. 작가는 이를 통해 칸막이 쳐진 공간에서의 삶이 비슷하다는 것, 그것은 공동체도 개인도 아닌 어정쩡한 우리의 일상을 은유한 것으로, 그리고 이러한 삶은 지양되어야 함을 표현하고 있다.[50]

[도-19]에서 작가는 이 작품에 '검푸른 벨벳의 방, 바다처럼 깊은 미로'라고 써 놓았다. 영원히 방황하도록 유도하는 미로는 방황을 어떻게 받아들이냐는 관점에 따라 다르게 다가올 것이다. 무엇이든지 빠른 해결을 원하는 현대사회에 미로가 전제하는 우회로는 낭비일 수도, 때로는 죽음에 다다르는 위험일 수도 있음의 표현인 것이다.

---

49) 안규철(An Gyucheol, 1955~)는 미술, 문학, 철학 같은 문화 장르 안팎의 경계를 넘나들면서 다양한 조형적 시도를 하는 대학교수이자 조각가이다. 네이버 지식백과

50) URL : http://artmu.mmca.go.kr/ 살것인가, 쓸것인가.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도-20]은 [도-19]와는 정반대의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다. 백토와 석회로 마감을 한 둥근 형태의 방에 들어가면 환하고 뻥 뚫려있다. 하지만, 이 방은 어떤 이들에게는 어쩌면 어두운 미로보다 더 두렵게 다가올 수도 있다. 모든 소리를 삼켜버릴 것 같은 푸른 미로와 달리, 이 둥근 하얀 방은 작은 목소리에도 크게 반응하고 있기 때문이다.

[도-19] 안규철, <64개의 방>, 2015

[도-20] 안규철, <침묵의 방>, 2015

[도-19]가 강압적인 침묵을 만든다면, 이곳에서의 침묵은 경이와 관련된 것이다. 방안은 너무 고요해서 침묵하게 되며, 침묵은 부정적인 행위를 넘어서 무언가 말하는 또 다른 방식이다. 전시 동선의 맨 마지막에 배치된 이 작품은 작가의 메시지가 종합된다 할 수 있다.

이렇듯 작가는 일상적인 사물을 소재로 하여 사유와 성찰의 과정을 통해 미술의 경계와 관점에 대해 문제를 제기해 왔다. 기념비적 조형물을 주로 다루는 한국 조각 계에 대한 반발로 실체가 없는 것, 세상에서 외면해온 이미지를 작품으로 선보였다. 이러한 그의 작업은 장르의 구분을 거부하며 끊임없는 사유와 성찰을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51]

이같이 안규철 작가의 작품은 고독과 격리 상태에서 벗어나 타인과 사물, 반복적 수행, 번민과 탐색, 휴식, 나아가 우주와의 교감으로 고요한 사색, 타자와의 소통 등을 의미한다. 자신의 삶을 바라봄에 있어 찰나의 순간에 더욱 집중 할 수 있는, 작가 자신의 사유하는 인생의 모습으로 자의식 표출을 담고 있다.

51) 월간미술, 『안규철 작가론 바깥의 '흔적'을 담는 메타미술』, 윤난지, 1999.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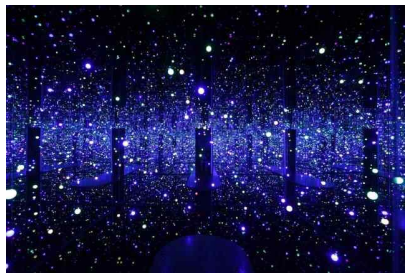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나. 쿠사마 야요이 (Kusama Yayoi)

쿠사마 야요이[52]는 자신의 강박증과 환각, 그리고 불안의 증상을 예술 행위로 풀어내고 있다. 쿠사마는 구속되고 억압된 가혹한 훈육으로 환각 증상을 보였는데, 그 병적인 징후가 발견된 것은 10살 때 그린 어머니의 초상화 [도-21]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림 속 단아한 모습의 어머니는 얼굴, 머리카락, 옷, 그리고 배경에까지 작은 물방울무늬로 뒤덮어 버렸다. 쿠사마는 "어머니를 마치 물거품처럼 사라지게 하고 싶었던 원망의 표현이었다."[53]라고 하였다.

[도-21] 쿠사마 야요이, <무제>, 1939

[도-22] 쿠사마 야요이, <점의 강박>, 1998



[도-23] 쿠사마 야요이, <무한한 거울방-정신이 발산하는 빛들>, 2008

작가는 빨간 점이 자신의 몸을 덮는 환영을 통해 이를 스케치북에 옮겼다고 한다. 이후 쿠사마는 [도-22]에서와 같이 반복되는 연결망과 점의 요소를 통해 단순한 환각이 아닌 '강박증'과 '환영'의 이미지의 일관된 관심을 지향하고 있으며, 다양한 매체들로 자신만의 세계를 구현해내고 있다. 물방울무늬의 반복과 증식의 표현 출발점은 그녀의 정신질환에서 비롯되며, 심리적 불안과 고통으로부터 치유하기 위한 본인만의 심리적 치료 수단이기도 하다.[54]

그녀의 유년 시절의 상처로 인한 강박신경증에 고통받으며 환영을 보게 되고 그것을 작품으로 승화시킨다. 이러한 환영은 [도-23]에서와 같이 자신의 환영을 그림을 통해 자신의 욕구와 억압을 발산시킨 것으로 작품 <무한망(Infinity Net)> 시리즈로 다양하게 표현되고 있다.

---

52) 쿠사마 야요이(Kusama Yayoi, 1929~)는 일본의 조각가 겸 설치미술가로 자신의 병적 상태를 작품으로 표현하는 작가이다. 위키백과

53) EBS특별기획다큐멘터리, 『오리엔탈의 빛, 재패니즈 바비걸-야요이 쿠사마』, 교육방송, 2004.12.28

54) 전정미, 「현대회화에서 상징형식의 스펙타클화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16, p.9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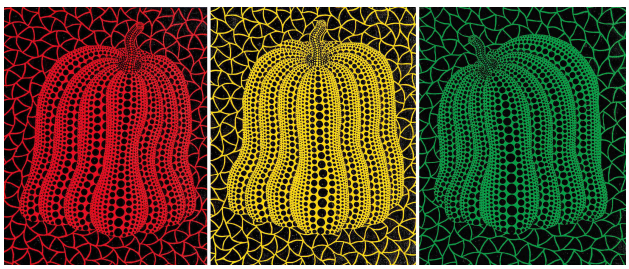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이처럼 쿠사마는 반복적인 신체적 행동으로 점과 망을 무한으로 캔버스나 신체, 사물에 무한으로 증식 시켜 그 대상을 소멸시키는 것을 의도하였다. 반복적인 패턴으로 거대한 캔버스를 채우는데 필요한 육체적 노동을 통해 극도의 불안과 싸우며, 결국 고통받는 자신을 잊고 평안함을 열망하는 것이 '자기 소멸'이며 쿠사마가 예술을 하는 의미이다.[55] 이런 소멸을 긍정적 시각으로 보면 만물을 동화시켜 서로 조화를 이루고자 하는 쿠사마의 희망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그녀의 작품에 점과 망은 여전히 무한반복을 통해 강박적으로 표현되는데, 예전 작품을 기반으로 한 형식의 변형과 소재의 추가로 창작을 이어나가고 있다.

[도-24], [도-25] 처럼 노랑, 파랑, 초록, 분홍 등 다양한 색채와 버섯, 호박 등 일상적 사물과 같은 소재를 작업에 사용함으로써 작품에 변화를 주었다. 밝고 화려하게 표현된 작품들은 전과는 다른 부드러움을 느낄 수 있다. 이점은 쿠사마에게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으며 마음의 혼란과 병이 감소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56]

[도-24] 쿠사마 야요이, <버섯>, 1995



[도-25] 쿠사마 야요이, <호박>, 2003

쿠사마 야요이의 창작활동은 그녀의 분노와 불안에 대항하는 유일한 탈출구이다. 자신의 병적 증상을 작품에 투사한 독특한 작품세계의 전개는 스스로를 치유하는 과정이었다. 그녀에게 있어 예술은 자의식을 표출하는 과정으로 내면의 불안과 공포를 마주하고 창작활동 통해 재현하여 소멸시킴으로써 자아를 치료하는 해결책으로서의 도구라 할 수 있다.

55) EBS HD 다큐멘터리, 위와 같은 다큐멘터리
56) 정용현, 「불안으로 본 도자 표현 연구」, 국민대학교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20, p.49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다. 루이스 부르주아 (Louise Bourgeois)

루이스 부르주아[57]에게 있어 작품의 주된 소재는 과거의 기억들에 관한 것이다. 부르주아는 자신의 감정을 마주하고 인생에서의 고통을 환기시키기 위해 예술작품을 창작했고, 자연스럽게 자신의 이야기가 작품에 연결되고 있었다.[58]

> "나는 내 작품을 남에게 보일 필요가 없다. 그것은 필요성이 아니다. 어떤 경우에든 예술은 돈이나 인기를 위해 만들어질 수는 없다. 그것은 자기 확신과 온전한 정신을 위해 그리고 무엇보다도 생존을 위해 만들어진다."[59]

[도-26] 루이스 부르주아, <아버지의 파괴>, 1974

[도-27] 루이스 부르주아, <엄마>, 1999

그녀는 예술의 목적이 생존을 위한 것이라 생각한 것처럼 작품에는 그녀의 지난 감정이 고스란히 드러난다. 누구나 외상의 영향력은 존재자의 일생에 걸쳐 지속적으로 연결된다. [도-26]에서는 그녀의 아버지에 대한 적개심이 드러나 있다. 아버지의 외도로 인해 그녀의 내면 깊이 자리하게된 트라우마는 이 작품에서 아버지를 먹는 행위에 대한 표현으로 나타나고 있다. 부르주아의 환상은 오랄사디즘으로 대치되어 먹는 행위가 말에 대한 위치를 차지한다. 말하고 싶은 소녀의 욕망과 침묵에서 오는 소녀의 좌절은 자르고 말을 억누르는 사람을 파괴하는 또 다른 욕망으로의 표현이다.

---

57) 루이즈 부르주아(Louise Bourgeois, 1911~2010)는 프랑스계 미국인 예술가, 조각가로, 그녀의 작품은 전체적으로 자서전적인 성격을 가진다. 위키백과
58) 장혜정, 「감정표현에 관한 도자조형연구」, 상명대학교 예술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14, p.17
59) 임현숙, 「루이스 부르주아의 작품세계 연구」,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2, p.16.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부르주아의 어머니는 합리적이고 이성적이었다고 한다. 그녀는 [도-27]에서 "이 작품은 나의 어머니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아버지에 대한 불신과 두려움, 어머니에 대한 연대감 등 유년의 기억을 불러와 자기 알을 보호하려는 모성과 경외감, 두려움을 거대한 크기로 표현하였고 상대적으로 가늘고 약한 다리는 상처받기 쉬운 내면을 표현하였다."고 했는데, 자신과 어머니에게 상처를 준 아버지에 대한 미움을 어머니의 모성애와 대비시키며 비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도-28] 루이스 부르주아,
<출구 없음>, 1989

"나의 조각은 두려움을 다시 경험하게 하면서 그것에 실체성을 주어 내가 그것을 난도질 할 수 있게 해 준다. 두려움은 다룰 수 있는 실재가 된다. 조각은 과거를 다시 경험하게 함으로써 과거를 객관적이고 실제적으로 다시 볼 수 있게 한다."[60]

그녀는 [도-28]을 통해 연결되지 않은 계단과 높지 않은 벽을 설치함으로써 스스로 오를 수 있는 계단이지만, 자발적 격리를 통해 불안해하는 복합적 감정을 표현하였다. 이렇듯 작가에게 있어서 작품 활동은 아픔을 직접적으로 표현하고 승화함으로써 자신의 트라우마를 치유하는 데 있어 적절한 방법이 될 수 있다. 이 작품의 주된 목적은 두려움으로부터의 탈출이고, 탈출의 모험은 두려움에 대한 하나의 치료학이다. 부르주아는 억누르고 있던 과거를 드러냄으로써 그 기억 조각은 과거를 객관적으로 다시 경험하게 한다. 작가는 내면의 성찰을 통해 본인의 상처에 대한 이해가 수반되었을 것이다.

60) 임현숙, 앞의 논문, p.29.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라. 펠릭스 곤잘레스 토레스 (Felix Gonzalez Torres)

펠릭스 곤잘레스 토레스[61]는 이성 간의 사랑이 아닌 동성 간의 사랑을 지향하였던 동성애자로서 관계 상실에서 오는 애도를 주제로 한 작품을 다수 제작했다. 작가는 개인적 배경에서 오는 사회적 소외감을 그의 작품에 감성적 표현으로 표출되는데, 바로 이것이 펠릭스 곤잘레스-토레스의 주체성이라 할 수 있다.

[도-29] 펠릭스 곤잘레스 토레스,
<무제-LA로의 초상>, 199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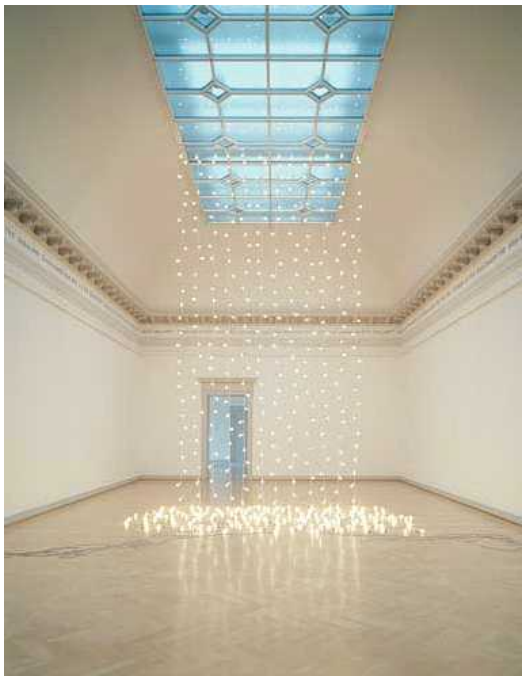
[도-30] 펠릭스 곤잘레스 토레스,
<무제-남자애인>, 1991

그는 예술을 통한 관객과의 교감을 위해 사탕 시리즈 연작을 발표했다. [도-29]는 전시장 바닥에 사탕을 쌓아 전시하며 사탕 더미를 통해 덧없이 사라지는 것들에 대한 일종의 기념비적 표현을 하고 있다. 특히 이 사탕 더미는 작가에게 있어 사적인 감정과 관련된 기념물로 누군가를 은유적으로 표현한 초상화라 할 수 있다.

[도-30]에서는 이 사탕들을 전시하는데 관람객들이 기념품같이 가져갈 수 있게 했다. 그리고 작가는 사라진 양만큼 사탕을 전시장에 다시 채워 놓았다. 관람객에 의해 형태는 소멸하지만 곧 다시 채워지는 이 작품으로 사랑하는 대상의 상실과 재생의 과정을 표현하고 있다. 쌓인 사탕은 사라진 대상을 시각화하고, 관객 참여로 인해 대상의 부재를 강조하며, 이는 관계의 재생이라는 새로운 의미를 생성하며 작품은 끊임없이 확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61) 펠릭스 곤잘레스 토레스(Felix Gonzalez Torres, 1957~) 쿠바 출신의 미국 시각 예술가로 공개적인 성적 취향을 작품에 영향력있게 담아낸다. 위키백과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도-31] 펠릭스 곤잘레스 토레스,
<무제-스톡홀름에서>, 1992

[도-31]는 삶과 죽음을 소재로 다룬 보다 근원적인 접근의 전구 작업이다. 차가운 느낌의 텅 빈 전시장 한가운데에 전구를 설치했다. 밝은 불빛과 따뜻한 온기를 지닌 전구로 인해 전시장의 탈바꿈을 시도한다. 이 작업은 진행은 전구의 수명이 다할 때까지이며, 시간의 경과에 따른 희미해지는 전구의 불빛은 점점 소멸해 가는 작가의 생명력을 나타내고 있다.[62] 흔들리는 불빛은 인간이 느끼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생명력이 강한 전구는 시간의 흐름으로 인해 따뜻한 온도가 점점 차가워져 가는 동안 작품이 구성된다. 이는 인간의 생과 사에 따라 달라지는 체온을 의미하고 있으며, 전구에 빗대어 은유적으로 표현한 인간의 생명은 삶과 죽음을 담고 있다. 실제로 작가가 처한 상황과 작품의 내용이 동일시됨으로써 작품의 효과는 관람자들에게 더욱 직접적으로 전달되고 있다.

작가의 작품은 표면상으로는 작가의 삶의 반영이지만, 인간의 삶과 죽음의 은유적 표현으로, 결국 작품을 통해 남는 것은 누구나 경험하게 되는 삶의 성찰일 뿐이다. 이처럼 작가는 사적인 이야기를 작품에 공개함으로써 이를 통해 언제나 대중들과 하나 되길 원했으며, 많은 이들과 함께 공유하길 원했다. 그의 그런 마음은 자신만의 주체성으로 타인과 맺고 있는 관계의 사유 기회를 제공하며 자의식을 표출한다 할 수 있다.

62) 김나현, 「개념미술에 있어 주체성에 관한 연구」, 대구카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12, p.27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마. 시오타 치하루 (Shiota Chiharu)

시오타 치하루[63]는 자신의 지난 기억을 주제로 삼고, 그녀의 작품 세계는 기억의 감정들이 재구성되어 주제성 강한 퍼포먼스, 설치 예술로 표출되고 있다.

작가의 파편화된 기억은 유년 시절 이웃집 화재를 목격한 것에서부터 비롯된다. 불에 타서 소리를 낼 수 없는, 재가 된 피아노를 보며 그을음의 냄새, 더 이상 나지 않는 소리에 대한 감정은 9살 어린아이였던 그녀의 무의식에 내재하였다. 그녀는 자신이 좋아한 아름다운 소리를 내던 악기는 이제 존재하지 않고, 그을음의 냄새만이 느껴질 때 자신의 목소리를 잃어버릴 것 같은 침묵을 느꼈다고 한다.

[도-32] 시오타 치하루, <침묵 퍼포먼스>, 2003, 2008

[도-33] 시오타 치하루, <침묵>, 2008

이러한 작가의 어린시절 기억에 대한 재현은 [도-32]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때 당시에 느꼈던 강렬함과 그녀의 어린 시절의 기억을 재출현시키며 기이한 현상을 만들며 지난 기억을 소환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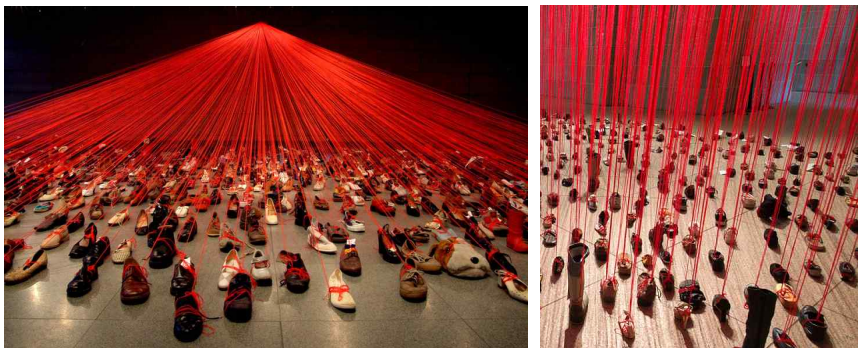
또한 [도-33]에서처럼 작가는 자신과 관련된 오브제를 실과 연결시킨다. 실은 그녀의 감정과 감정을 연결시키는 매개체로, 존재하지만 실체가 없는 무의식을 상징한다. 눈에 보이지 않는 침묵을 유연한 실의 중첩과 반복을 통해 잠재된 세계를 의식세계와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며, 이러한 관계성은 시오타에게 중요한 논점이 된다.[64]

63) 시오타 치하루(Shiota Chiharu, 1972~) 는 일본의 설치 미술가로 실로 인간관계의 다양성을 표현함으로써 거미여인이라 불린다. 위키백과

64) 이보라, 「현대미술에 나타난 시공간 표현과 현존성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18, p.73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도-34] 시오타 치하루, <꿈의 이후>, 2011



[도-35] 시오타 치하루, <대륙을 넘어서>, 2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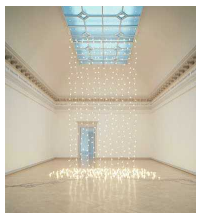
이렇듯 작가는 부재 속에 현존하는 무의식의 세계를 작품을 통해 연상시켜 준다. [도-34]에서 보이는 드레스는 그녀가 직접 제작 한 것으로, 검은 실로 뒤엉켜 있다. 이러한 하얀 드레스는 보는이로 하여금 답답한 느낌을 주는데 이는 여성이 받는 억압에 대한 그녀만의 표현인 것이다.

[도-35]에서의 신발은 신발 본래의 기능성을 상실하였지만 작품으로써 다시 존재하게 된다. 그녀는 이러한 물건들에서 부재한 것에 대한 존재를 느낀다. 그녀가 이렇게 지난 과거의 기억에 비중을 두는 이유는 현재 존재하는 것에서 과거의 흔적을 지우기 어렵다는 생각 때문이다.

과거의 기억은 세월의 흐름에 따라 소멸되는것 같지만, 우리의 무의식에 잠재되어 있다가 불현듯 다시 살아나곤 한다. 치하루의 작업은 무의식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드는 힘이 있다. 그녀의 기억과 경험을 나타낸 작업은 인간 감정의 기저에 깔린 무의식의 세계를 표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표-02] 작가 작품 분석 - 자의식 표출

구분	작가	이미지	내용
관념적요소 - 자의식표출	안규철 (An Gyucheol)		일상적인 사물들을 소재로 사유와 성찰을 통해 미술의 경계와 이를 바라보는 관점에 대해 문제 인식을 제기하며, 고요한 사색, 반복적 수행, 번민과 탐색, 휴식, 타자와의 소통을 유도한다.
	쿠사마 야요이 (Kusama Yayoi)		반복되는 연결망(net)과 점(dot)을 통해자신의 강박신경증을 작품에 투사하여 내면의 불안 요소를 성찰하고 재현하는 과정이 스스로를 치유하는 방법임을 강하게 드러내고 있다.
	루이스 부르주아 (Louise Bourgeois)		억눌려진 외상 사건의 영향력을 작품에 표현함으로써 불안하고 복합적인 심리적 상황을 나타내고, 그 과거를 객관적으로 다시 경험 할 수 있는 매개체로 표현했다.
	펠릭스 곤잘레스 토레스 (Felix Gonzalez Torres)		사회적 소외감에서 파생되는 개인적인 상실과 애도의 구체적 정황을 다양한 연출로 표현함으로써 ,타인과 맺고 있는 관계를 사유할 기회를 제공하며 대상의 상실과 재생의 과정을 보여준다.
	시오타 치하루 (Shiota Chiharu)		감정과 감정을 연결시키는 매개체로 과거의 기억을 재구성하여 주제성 강한 퍼포먼스와 설치예술로 표출함으로써 무의식 속에서 이어지는 관계성에 대한 삶의 모습을 드러냈다.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이상 다섯 명의 작가의 작품에서 자의식 표출 표현을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어 낼 수 있었다.

첫째. 안규철은 장르의 구분을 거부하고 일상적인 사물들을 소재로 고요한 사색, 반복적 수행, 번민과 탐색, 휴식, 타자와의 소통을 유도함으로써 사유와 성찰의 시간을 제공하고 있다..

둘째. 쿠사마 야요이는 자신의 강박신경증을 작품에 투사하여 내면의 불안 요소를 성찰하고 재현하는 과정이 자신을 치유하는 방법임을 강하게 드러내고 있다.

셋째, 루이스 부르주아는 억눌려진 외상 사건의 영향력을 작품에 표현함으로써 불안하고 복합적인 심리적 상황을 나타내고, 그 과거를 객관적으로 다시 경험 할 수 있는 매개체로 표현했다.

넷째, 펠릭스 곤잘레스 토레스는 개인적인 상실과 애도의 구체적 정황을 다양한 연출로 표현함으로써 감성적인 자신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었다.

다섯째, 시오타 치하루는 과거의 기억을 재구성하여 주제성 강한 퍼포먼스와 설치 예술로 표출함으로써 무의식 속에서 이어지는 관계성에 대한 삶의 모습을 드러냈다.

이렇듯 다섯 명의 작가는 서로 달리 경험한 개인적 배경을 반영하여 강박신경증, 트라우마, 소외감, 무의식의 관계 등의 자의식을 작품에 표출하고 있다. 연구자는 위 작가들과 마찬가지로 개인적 관계 안에서의 상실감, 두려움 등을 나와 타자의 관계를 통해 표현하고자 한다. 본인의 작품 표현에 있어 자아는 애착불안에서 파생되는 관계의 불안, 소멸과 재생, 주체성 등 개인적 관계에서 기인하는 관념적 요소를 작품에 더한다. 선행작가의 작품은 보는 이로 하여금 작가 내면의 모습을 깊이 있게 탐구하고 스스로 성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본인의 작품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제 2절 형상적 요소

연구자의 자아는 타자를 통해 구성되며 타자로부터 구분된 한 개인의 내면세계로 이루어진다. 우선 본인이 집중한 자아의 층위는 내면적 자아로 이는 외면적 자아가 발현되기 이전에 내면을 고찰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이러한 자아의 개념 획득은 총체적인 인식 세계로부터 벗어나 나타나게 되는 타인과의 차별화와 더불어,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해 더욱 명확히 정의하게 된다.

연구자는 자아정체성 표현 방법에 있어 "구"라는 매개체를 활용하고자 한다. 예로부터 진리의 세계를 상징하는 형태는 모두 원형을 취하고 있다. 원은 마음 전체를 모든 측면에서 표현한 것으로 거기에는 인간관계, 우리의 삶에 대한 전체성을 함축하고 있기에, 원의 입방체인 구는 연구자의 삶 속의 자아를 표현하는데 상징적인 요소라 판단되었다.

타자와의 상호관계성 표현에 있어 연구자는 선을 차용하고자한다. 선의 표현미는 추상적인 형태로서 객관적인 대상으로 나타나지 않지만, 그 모습에서 감성적이고 다양한 표현적 요소를 발견할 수 있다. 선은 방향에 따라 운동성을 수반하며 선의 감각과 공간의 특성이 관계된 상호적 작용이 발현될 수 있다. 이와 같은 선은 연구자의 작품에 반복적 구성으로 나와 타자 사이의 관계와 경계를 표현하는 요소이다. 작품을 진행 과정에 있어 선에 내적인 의미를 담아 관계에 의한 파장을 시각적으로 구체화할 수 있는 조형 요소라 사료되었다.

마지막 표현 확장성에 있어 연구자 작품의 주된 재료인 점토의 은유적 표현과 재료의 융합을 더 해 도자예술 영역의 확장에 기여하고자 한다. 점토는 도예작업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연구자의 의식과 생각을 이미지화하는 물질로써 표현하려는 작품에 생명을 불어넣는 유기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현대 도예는 작품으로서 장르의 경계는 허물어지고 있다. 작품의 형태에서 사유(思惟) 체계가 드러나기를 원하며 예술행위가 재료에 반영되기를 희망한다.[65]는 것을 도예가들의

65) 안재영, 「한국현대도예의 예술적 특징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11, p.29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전시를 통해 증명되고 있는 시점이다.

연구자의 창작 과정은 작가가 어떤 대상을 인식하면서부터 시작되는데, 인지된 대상은 인지 기호로서 기능을 부여받는다. 인지된 기호는 인지처리과정에서 작가로부터 색과 형을 부여받으며 조형 언어화 되어간다. 여기에 연구자의 내면이 반영되는 예술은 정서나 사상을 은유적으로 드러낸다. 현대 도예에서 현실 또는 작가의 내면세계를 작품 안에 축소하여 재현할 때, 은유적 표현은 풍부한 함축적 의미를 가진다. 즉, 은유적 표현이란 작품으로 표현된 이미지를 사고의 체계를 이용해 의미를 구체화 시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절에서는 형상적 요소로서 자아 정체성 표현을 위한 구의 변환에서의 본질성, 유기성 획득과 상호 관계성 요소로 선의 다각화에 따른 순환성, 존재성 인식, 마지막으로 작품의 재료인 점토의 은유적 표현과 더불어 점토와 타 재료와의 융합으로 표현 확장성의 표현 요소를 현대미술 작품 사례를 통해 살펴본다. 형상적 요소에 대한 현대 작가의 표현 방법과 의도를 조명해보고 작품에서 보이는 조형적 특징에 대해 추가 분석한다. 이로써 연구자 작품에서의 자아표현, 관계표현을 통한 표현 확장성에 대한 개연성을 확립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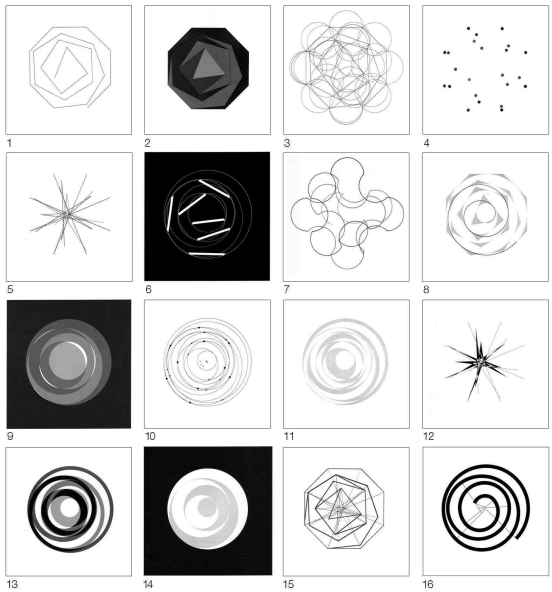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1. 자아 정체성 - 구

가. 유기성

(1) 막스 빌 (Max Bill)

막스 빌[66]은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질서 속 아름다움을 창시하는 새로운 시각언어를 추구함으로써 디자인의 관습을 규정했다. 그는 <구체 미술> 프로젝트에서 나선운동을 통한 같은 길이의 선들이 3각형에서 8각형까지 되고 역순으로 다시 돌아오는 <3각형에서 8각형까지>의 실험을 기반으로 연작시리즈인 <한 가지 주제에 대한 15개의 변형>을 발표했다. 이것은 칸딘스키의 점, 선, 면의 연관 관계에 대한 조형실험이자 되스부르흐의 구체미술 작업인 한 가지 주제로 여러 개의 변형을 만들었던 <콤퍼지션 시리즈>에서 영감을 얻은 비주얼 시스템의 본보기라 할 수 있다.[67]



[도-36] 막스 빌 <15개 변형의 연작 시리즈> 1938

66) 막스 빌(Max Bill, 1908~1994)은 칸딘스키와 몬드리안에게서 많은 영향을 받은 스위스의 건축가, 예술가, 화가, 디자이너이다. 위키백과

67) 박효신, 「요셉 뮐러 브로크만의 구성주의 디자인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07, p.45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막스 빌은 [도-36] <한 가지 주제에 대한 15개의 변형>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수학적인 혹은 기하학적인 놀이라고 여겨질지도 모른다. 작품을 만들 때 어느 정도의 기하학이 작품의 원료가 되었고 이는 당연히 공간이나 평면상에 형상을 정착시키는 과정에서 피할 수 없는 부분이기도 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형상들을 만들어낸 것은 수학적인 의도나 기하학적인 의도가 아니다. 이것은 순수하게 색과 형태만을 가지고 한 ‘놀이’로서 색과 형태 외에 다른 의미를 부여하려는 외적인 압력으로부터 벗어나 ‘존재’ 자체만으로 기쁨을 주기 위한 목적만을 가졌다.”[68]

[도-37] 막스 빌, 반구 Nr. 1,2,3,4,5, 1965 - 1966

막스 빌은 [도-37]과 같이 구체적인 미술의 변형 가능성을 강조한다. 제약적 조건 안에서도 얼마든지 새로운 이미지로 변환 가능하다는 사실은 구체 미술의 무한한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논리적 혹은 미학적 방법으로 생겨난 그의 연작시리즈는 구체 미술의 다양한 방법론을 제시한다. 하나의 주제, 하나의 기본 아이디어에서 비롯된 원형은 서로 다른 이미지로 이어짐으로써 구체 미술의 무한한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음을 증명한다. 위와 같이 그는 구를 원형으로하여 형상을 다양하게 제시하고 있으며, 파생된 서로 다른 이미지는 결국 그 원형이 같음을 알 수 있다. 존재 자체의 순환에 따라 다양하게 변주되는 형상은 연구자 작품에서의 자아의 유기성을 표현하기에 적합하다 사료된다.

68) Max Bill, 『di grafischen reihen ,verlag gerd hatje』, 1995, p.19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2) 신한철 (Shin Hanchul)

신한철[69]의 작품은 구(球)를 기조로 하여 증식 · 분열 · 확산하는 형태를 지속해서 보여주고 있다. 절대주의자 말레비치가 생각했던 평면회화에서 가장 추상적인 형태가 흰색 사각형이라면 그의 작품 요소에서 완전하고 순수한 기하학적 입체로 간주하는 형태는 바로 구다.

구는 모든 이미지가 제거되어 더 환원 불가한 미니멀리스트의 오브제처럼 정화된 형(形)의 궁극적 종착지와 생명의 시원이자 형(形)의 출발점이 동시에 공존한다. 신한철 작업에 있어 구의 형상은 작품을 통해 정지된 것이 아니라 일순간 행동의 이미지를 잠시 유보하고 있는 진행형임을 암시하고 있다.[70]

[도-38] 신한철, <구>, 2011

그의 작업의 주제는 '생명의 에너지'이다. '이것을 어떻게 작품에 구현할 것인가'에 대한 몰입은 구로 이르게 되었다. 그는 구를, 음 · 양 합일된 생명체인 동양의 정신성의 관점에서 바라보자 작업이 풀렸다고 한다. 그때부터 흙으로 원형을 끊임없이 만들었고, 결국 구는 그에게 있어 작업의 모티브가 된 것이다.

그는 이념, 경제 갈등 등 사회의 부조화를 느꼈으며 조화를 이루려면 계층 간, 가족 간, 세대 간의 이해와 양보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러한 것이 하나라도 없

69) 신한철 (Shin Hanchul, 1958~)은 '구'라는 형체와 반사되어 자신을 바라보게하는 스테인리스의 특별한 물성을 통한 작업을 하는 조각가이다. 위키백과

70) URL : http://www.snsculpture.com/ 성남조각협회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을 때 균형이 깨진다는 것이다. 그의 작품에서 형태는 모두 다르지만 완벽하게 서 있는 작품들은 그 자체로 균형과 조화를 보여준다. 그는 이를 통해서 다름과 다양이 존재하는 우리 사회에서 양보와 배려가 필요하다는 것을 조각가로서 표현하고자 했다.[71]

[도-39] 신한철, <꿈무리>, 2019

신한철은 [도-39]에서 볼 수 있듯이 원형은 그 이미지를 유지한 채 각양각색의 크기로 증식되고 있다. 작가의 작품에서 찾을 수 있는 이중적 아름다움은 미적인 것과 비 미적인 것, 환원과 확산, 본질적 실재와 현상학적 실재, 대척점에 있는 것 등을 작가의 자기분석을 통해 역설적으로 결합했다는 점이다. 그는 자신이 선택한 구가 환원적이며, 어떠한 동요 없이 안정적인 매개체로 보일 수 있음과 생성을 통한 확산이 가능하다는 점도 동의하고 있다.

하지만 작가의 작품 속 매개체로서의 구는 이러한 이중적인 개념들이 충돌하는 것이 아닌 조화롭게 융화되어있음을 알 수 있다. 즉 기하학적 형태를 근본으로 하고 있지만, 원형의 계속되는 생성으로 인하여 유기적인 형태로 시각화되는 구의 순환성을 담고 있다. 따라서 신한철의 작품에서 볼 수 있는 구의 다양한 해석은 상반된 의미를 동시에 품으며 변환하는 유기성에서 비롯된다 할 수 있다.

71) 김은수, 「풍선의 조형적 형태 변화를 바탕으로 한 풍선의 욕망적 개념으로의 형상 연구」, 인천카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20, p.7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3) 윤솔 (Yoon Sol)

도예가 윤솔[72]은 구(球)로 생명 이미지를 표현하는 작가이다. 작품에 나타나는 유기적 곡선의 순백 오브제는 탄생·소멸의 무수한 반복을 통해 빚은 변화된 유기체의 형상을 하고 있다. “조형 오브제든 식기류든 작업의 모든 시작과 끝은 구와 연결된다”는 작가의 말처럼, 도자 표현의 다양한 시리즈 연계는 ‘원’의 형태 안에서 확장되고 그 맥을 잇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도-40] 윤솔, <스피어 시리즈>, 2011

[도-41] 윤솔, <스피어 시리즈>, 2019

그의 작업에서 기본형은 구 · 타원의 형태이다. 이 원형을 해체 · 조각 후 결합의 과정을 통해 작품은 분열되거나 증식된 세포와 같은 이미지를 갖는다. 작가는 단위체들의 반복적 결합을 시도함으로써 반복성이 강조된 표면으로 증식의 이미지를 구체화하고 있다. [도-40], [도-41]은 캐스팅된 단위체를 자르거나 조각하고, 이 조각들을 결합하여 형태 변형을 시도한 것이다. 이들은 각도와 방향을 어떻게 설정하고 자르냐에 따라 전혀 다른 형태로 도출되기 때문에 이 방식은 동일한 단위체의 서로 다른 개별성 나타내기에 적합하다 할 수 있다.[73]

그의 작업은 초기의 프랙탈(fractal)[74]적인 패턴의 설정에서부터 껍질이라는 단

72) 윤솔 (Yoon Sol)은 원을 도예 작업에 옮겨와 다양한 '구'를 빚는 작업으로 다양한 형태의 생명에 관한 메시지를 일관되게 선보이는 작가이다. 위키백과

73) URL : https://blog.naver.com/artmining

74) 프랙탈(fractal)은 만델브로트가 IBM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던중 1975년 자신이 연구하던 것들을 책으로 출간하기 위해 책의 제목을 생각하다가 라틴어의 Fractus(부서진)라는 낱말을 발견하여 ‘FRACTAL’이라는 용어를 만들었다는 설이 유력하다. 만델브로트는 자연에서 발견되는 복잡한 대상을 표현하는데 있어서 유클리트 기하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새로운 기하학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프랙탈 기하학을 창시하였다.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계적 의미변화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한 조형적인 시도를 작품에 담아낸다. 동일한 개체를 복제하는 슬립 캐스팅 기법의 사용으로 반복성과 연속성이 더해져 유기적 형태를 취하고 있다.

[도-42] 윤솔, <변주 2007-01>, 2007

[도-43] 윤솔, <변주 2007-12>, 2007

[도-42], [도-43]에서 역시 같은 원형을 절단하여 결합함으로써 증식의 이미지 구현과 더불어 크기가 다른 원형의 결합은 생성의 이미지로 재탄생된다. 생명을 은유하는 달걀모양의 타원형에서 이어지는 자연스러운 곡선은 아늑하고 편안한 작품으로 재창출되는 것이다. 작가는 이렇듯 생명의 은유로서 둥근 것, 구는 본인에게 극복의 대상이자 동경의 대상이라고 하였다. “가장 간결한 것이 곧 가장 많은 것”이라는 명제로부터 출발한 이 디자인은 해체와 확장을 통해 다양한 변주를 이루고 있다.

작가의 작품은 ‘안’과 ‘밖’의 경계가 분명한 일반적인 형태의 도자기와는 달리 ‘안팎’ 모두 조형적, 회화적 요소가 작품에 드러남으로써 혹자는 건축적 오브제로 평가하기도 한다. 이는 생명의 본질임과 동시에 보호막이고 생명의 집이자 생명의 원형인 순환을 담은 자아의 유기적 구조를 나타내기에 적합하다 할 수 있다.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나. 본질성

(1) 콘스탄틴 브랑쿠시 (Constantin Brancusi)

수학자 플라톤(Plato)이 “참다운 아름다움이란 자와 컴퍼스에서 태어난다.”[75]라고 말하였듯이, 기하학적 형태는 예술 분야에서 미적 표현의 양식으로 사용된다. 이는 은유적인 의미를 전달하는 추상적 소재이며, 특히 기하학적 형태 중 원은 현대미술 속에서 인간이 느끼는 감정이나 내면을 상징한다.

조각가 콘스탄틴 브랑쿠시[76]의 초기 작업은 구체적인 형태를 조각하는 사실적인 표현에 집중했다. 그는 부쿠레슈티(Bucharest) 미술학교에서 해부학과 인체의 내부 속성에 관심을 보이게 되면서 대상의 본질을 탐구하고 단순화시키는 추상조각 표현으로 전환점을 맞이했다. 이는 형태의 단순화, 추상화를 통해 대상의 고유한 본질성을 살려 브랑쿠시만의 특유한 작품 경향을 만들게 된 것이다.

[도-44] 콘스탄틴 브랑쿠시, <잠이든 뮤즈>, 1910

[도-44]는 현대조각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킨 작품으로, 이 작품의 특징은 어깨와 목 부분을 제거하여 표현한 두상조각이며, 외형선을 강조하여 표면에 몰입되게 만드는 형태에 있다. 작품은 단순히 누워있는 사람의 신체 일부를 제작한 것이 아니라, 얼굴이 대지(大地) 위에 닿고 있음을 표현한 것이다. 이것은 인간과 대지의 합일을 의미하며, 완전한 둥근 형태 모양은 무한한 영원성의 표현이다. 또한 표면의 매끄러운 처리는로 외부의 접촉이 없는 절대성의 평온함을 표현하고 있다.[77] 이는 마치 선사시대 암각화에서 찾을 수 있는 종교적 영원성을 상징하기도 하며, 게슈탈트 이론처럼 어린아이가 사람의 얼굴을 하나의 동그라미로 표현하듯 인간의 본질적 특성을 원형으로 지각하여 한 덩어리로 응집해 놓은 것으로 보인다.

---

75) 한석우, 『입체조형 이론과 실제』, 미진사, 1991, p.92
76) 콘스탄틴 브랑쿠시(Constantin Brancusi, 1876~1957)는 현대 조각의 거장으로 초기작품은 사실 표현에서 점차 추상조각으로 변모하였다. 위키백과
77) 곽유나, 「콘스탄틴 브랑쿠시 작품 연구」, 한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8, p.25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도-45] 콘스탄틴 브랑쿠시, <프로메테우스>, 1911 [도-46] 콘스탄틴 브랑쿠시, <탄생>, 1911

이후 작업에서의 그의 주된 표현방식은 대상의 설명적인 부분의 제거에 대해 이어갔다. [도-45]와 같이 실질적인 얼굴의 모습은 거의 사라졌으며 두상의 대각선으로 놓인 원형과 잘린 목, 중앙의 코 형태로 인해 사람의 얼굴이라는 것을 추측할 수 있게 한다. 오은유, 「브랑쿠시의 kiss의 조형성 연구」, 동아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3, p.33

[도-46]에서는 대상이 무엇인지 파악하기 어려울 정도의 단순한 형태로 변화하였다. 이런 브랑쿠시의 작업은 형태의 단순성과 응집성에 중점을 두어 대상을 간결하게 표현하면서 존재성을 찾아가는 것이다. 위의 논문, p.33

작품은 시각적 표현에 집중했다기보다는 감각에 의존한 채 표현한 것으로 살펴볼 수 있으며 그 형태는 대상의 본질에 가까워질수록 더욱 간결해짐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생략법은 대상의 본질을 더욱 확고히 하는 것으로 내면의 모습을 작가의 방식으로 표현한 것이다. 따라서 콘스탄틴 브랑쿠시의 원 형상이 입체화된 '구' 형태의 두상은 설명적인 대상이 아니라 인간 내면의 본질성을 기학학적 형태로 표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렇게 구조적으로 단순화된 형태는 원 사물이 갖는 원초적인 것을 나타내는 데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2) 이수경 (Yee Sookyung)

이수경[78]은 도자기를 이용한 설치, 영상, 퍼포먼스, 페인팅, 드로잉 등 다양한 작업 세계를 보여주는 작가이다. 작가의 도자기 시리즈는 깨진 도자기 파편을 완전한 형상으로 완성하는 작업으로 아상블라주 형식으로 접착제를 이용해 깨진 도자기의 조각을 하나씩 이어붙인다. 깨진 조각을 이어 붙이는 경계선은 금박을 입혀 그 절단면을 새롭게 구성한 작품인 것이다. 도자 장인들의 완벽함 추구는 작은 흠집도 허용하지 않고 도자기를 모두 폐기하는데, 작가는 그런 도자기를 모아서 상처받은 존재를 치유하듯 작품을 통해 생명을 재생시킨다.[79]

[도-47] 이수경, <번역된 도자기>, 2010

[도-48] 이수경, <번역된 도자기-세부이미지>, 2010

"파편들이란 무엇인가. 한때는 흙이었다가 완벽한 자기로 변하기 위해 여러 과정을 거쳤지만, 결국 실패작으로 확인되어 그만 깨어져 버려졌던 것. 그건 애초에 어떤 도예가가 만든 '자신을 닮은 타자' 이었던 것. 사용자를 배려한 공예이기에 애초부터 타자에 더 가까운 예술품이었던 것. 깨어져 파편이 되었을 때는 도예가 자신의 의지마저도 전혀 닮지 않은 완벽한 타자가 되어버린 셈."[80]

78) 이수경(Yee Sookyung, 1963~)은 서울대학교 서양화 학사 및 석사. 국내에서는 금호미술관, 쌈지스페이스, 대안공간 풀 등에서 총 12회의 개인전을 열었으며, 미국, 브라질 일본, 독일 등 해외 미술관과 갤러리에서도 개인전을 통해 작품을 선보였다. 또한 광주비엔날레와 부산비엔날레를 비롯하여 캐나다 벤쿠버비엔날레, 이탈리아의 알비솔라 세라믹 비엔날레, 일본의 에치고추마리트리엔날레, 영국 리버풀비엔날레 등 다수의 비엔날레에 참가했다. 위키백과

79) 송미령, 「공동체 구성원의 이기적 관계로 인한 불편함에 관한 연구」, 국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19, p.38

80) URL : http://www.spacec.co.kr/ 이수경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이렇듯 이수경 작가의 작품은 사물이 자리를 달리할 때 원래 지녔던 의미와 형태가 어떻게 변화하는가를 되새겨 보는 데에서 출발한다. 도자기는 제작자가 혼신을 다해 빚어낸 실재하는 사물이지만 동시에 조선시대 공예의 정수를 일컫는다. 그리고 그것이 '깨졌다'는 사실에 주안점을 두었을 때는 사물에 깃든 시간이 무너지는 잃음의 상황을 의미하기도 한다. 도자 파편은 하나의 도자기를 빚고 굽는 시간을 포함하여 도자기의 존재 이후 쌓인 시간과 유전자 전체를 무너뜨린다. 이수경은 이 무너진 구도에서 도자기의 다른 생을 엮음으로써 새로운 가치를 생성한다.

[도-49] 이수경, <번역된 도자기>, 2008

[도-50] 이수경, <번역된 도자기-달>, 20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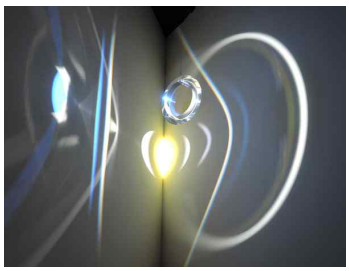
[도-49], [도-50]에서 역시 도자 파편은 하나의 온전한 형태로 조합되고 있다. 이는 쓰고 남은 재료의 잔여물이 아닌 재사용됨을 보여주며, 깨진 형태에서 다시 도자기로 살아나는 의미를 표현한 작가의 의도는 윤회를 담고 있기도 하다. 각각의 파편은 매번 다른 각도와 자세로 자기의 출구를 다른 파편들에 연결되어 결국 스스로 아픔을 치유하고 다시금 회복하는 형상이다.

이렇듯 작가의 작품은 깨지기 쉬운 도자기의 특성을 현대사회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서로 다른 사람들과의 경험과 기억, 그리고 그것에서 파생된 상처, 상처의 치유는 관객들에게 인간의 삶에서보다 근원적인 물음을 제시한다. 우리의 삶과 파편화된 삶을 다시 회복 시켜 주고 있음을 삶의 본질에의 접근을 그녀의 작품을 통해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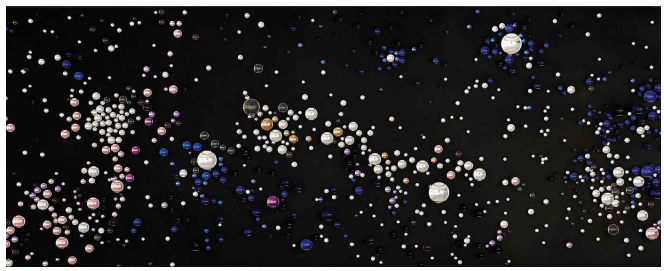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3) 올라퍼 엘리아슨 (Olafur Eliasson)

올라퍼 엘리아슨[81]의 작품은 다양한 방식으로 관객에게 제시한다. 관객이 작품을 그대로 수용하는 것이 아닌 각자의 방식으로 이해하고 생각하는 과정에서 작품의 의미와 그에 대한 다양한 생각의 파편을 창조해낸다. 생각의 과정을 통해 우리는 매 순간 어떤 대상과 소통하며 셀 수 없는 다양한 느낌이 들게 된다. 이러한 작가의 작품은 어떤 것들은 피상적이고 또 어떤 것들은 구체적이거나 논리적이어서 견고하게 느껴져 근원에 대한 물음을 던지게 한다.[82]



[도-51] 올라퍼 엘리아슨, <당신의 미술관 경험을 위한 준비>, 2014



[도-52] 올라퍼 엘리아슨, <당신의 예측 불가능한 여정>, 2016

[도-51]에서는 원과 활 모양의 빛을 벽에 반사한 형상을 볼 수 있다. 개기일식을 보는 것 같은 우주 이미지를 통해 바로 생성과 소멸의 원리도 깨닫게 해준다. 또한 우리에게 유동적이고 가변적인 찰나적 순간을 연출한다. 사진을 찍을 때마다 관객의 시점에 따라 오색찬란한 빛과 그 음영은 매 순간 달리함을 알 수 있다. [도-52]의 검은 배경 위 여러 크기의 유리구슬은 우주의 행성과 별의 모습을 반영하는 듯하다. 관객은 이 작품을 통해 자신의 모습을 수많은 구슬 속에서 발견할 수 있다. 특히 구슬에 비춰진 모습은 상·하 반전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반대되는 것들이라고 믿는 것이 실제로는 동일한 원리에서 함께 움직이며 공존하는 것일지 모른다는 생각을 불러일으키게 한다. 이는 작품과 관객, 더 나아가 인간과 환경 간의 상호작용을 의미하며, 우리의 여정이 예측 불가한 필연성과 그 속에 공존하는 수많은 가능성을 제시하는 본질적 표현이라 할 수 있다.

81) 올라퍼 엘리아슨 (Olafur Eliasson, 1967~) 은 시각미술에 기반하여 다양한 실험적 시도들을 거듭하면서 자연, 철학, 과학, 건축 등으로 관심의 영역을 확장하고 있는 작가이다. 위키백과
82) URL : https://brunch.co.kr/ 올라퍼 엘리아슨 세상의 모든 가능성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도-53] 올라퍼 엘리아슨, <시각적 조정>, 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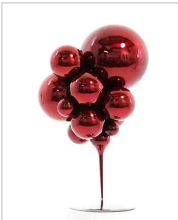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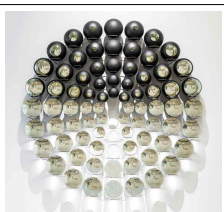
[도-53]은 유리구슬이 집적되어 커다란 원을 이루며, 유리구슬의 안쪽 거울 면이 작품을 감상하는 이들과 그 주변의 이미지가 셀 수 없이 증식되어 빛과 이미지의 반사를 보여주는 벽면 설치 작품이다. 작가는 입체도형을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증식시킴으로써 다양한 각도 변화를 통해, 관람객들에게 거리와 위치에 따라서 시각적으로 다르게 보이는 요소를 반영하여 표현하고자 했다.[83]

이러한 올라퍼 작품은 관람객으로 하여금 작품의 중심으로 작품에 기여함과 동시에 스스로의 변화를 유도하게 한다. 관람객의 감상을 통한 일련의 과정, 즉 과거 경험과 현재 경험, 주체와 타자, 작품과 관람객, 상호 의존적 관계, 이를 통해 생성되는 느낌, 그 자체가 작품이다. 주체 자신의 주변 환경에 대한 영향력, 이와 반대로 주체에게 끼치는 환경의 영향 속에서 주체 스스로 시공간에서 자신의 위치를 지각하게 한다. 이러한 모든 과정이 작품에 포함되어 우리 삶의 본질에 대해 성찰에 대한 계기를 마련해주고 있다.

83) URL : www.artcelsi.com Olafur Eliasson : Models for coexistence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표-03] 작가 작품 분석 - 자아 정체성

구분		작가	이미지	내용
형상적요소 - 자아정체성	유기성	막스 빌 (Max Bill)		제약이 있는 조건 속에서도 얼마든지 서로 다른 이미지로 바꿀 수 있는 구체 미술이 지닌 무한한 가능성과 변주되는 형상의 유기성을 나타내고 있다.
		신한철 (Shin hanchul)		완벽한 도형인 구의 순수 기하학적 형태를 근본으로하여 계속되는 생성에 비롯한 환원과 확산, 본질적 실재와 현상학적 실재의 역설적 결합으로 상반된 의미를 동시에 품는 내포적 유기성을 담고 있다.
		윤솔 (Yoon Sol)		반복되는 단위체들의 결합으로 증식의 이미지를 표현하고, 해체된 원형의 조각들의 접합으로 형태의 다양한 변형을 시도함으로써 생명의 원형인 순환을 담은 유기적 구조를 나타내고 있다.
	본질성	콘스탄틴 브랑쿠시 (Constantin Brancusi)		형태의 단순성과 응집성에 중점을 두어 대상의 본질에 가까워질수록 표현방식은 더욱 간결해짐에 따라 원 사물이 갖는 원초적인 것을 나타내 인간이 느끼는 감정이나 내면을 상징하고 있다.
		이수경 (Yee Sookyung)		깨어진 도자 파편을 완전한 하나의 형상으로 완성하는 작업으로, 상처받은 존재들을 치유하듯이 재생시키며 작품을 만듦으로써 우리 삶의 근원에 대해 보여주고 있다.
		올라퍼 엘리아슨 (Olafur Eliasson)		구슬 속에서 발견하는 본인의 반전된 모습은 동시적 상호작용을 의미하는 것으로, 우리의 여정이 예측 불가능해지는 필연성과 그 속에 공존하는 수많은 가능성으로서의 본질적 표현을 담고 있다.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이상 여섯 명의 작가의 작품에서 자아 정체성 표현을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여 연구자의 조형 전개 방향을 제시한다.

첫째. 막스빌은 구체미술이 지닌 무한히 변주되는 형상을 작품에 투사하여 유기적 다양성을 추구한다. 연구자는 사회적 요인, 즉 타의적 관계에 의해 변화하는 자아의 형상을 유기적으로 표현 하는데 있어 근간으로 삼을 것이다.

둘째. 신한철은 완벽한 도형인 구의 기하학적 형태를 본질적 실재와 현상학적 실재의 상반된 의미를 담고 작업을 전개했다. 연구자는 관계 형성의 일련 과정을 담아 구의 내포적 유기성에 집중하고자 한다.

셋째, 윤솔은 해체된 원형의 조각들 접합으로 다양한 변형을 시도하고, 이에 유기적 순환 구조를 담고자 했다. 연구자는 자아의 유기적 변환을 조형적 요소로 활용하여 주체적 관계 맺기를 통해 진정성 있는 소통의 의미를 표현하고자 한다.

넷째, 콘스탄틴 브랑쿠시는 원 사물이 갖는 원초적인 것을 나타내 인간이 느끼는 감정이나 내면을 상징하는 본질성을 작품에 표현하고 있다. 연구자는 주체적 자아 표현에 있어 표면적인 것들로부터 탈피하는 원초적 형상 가시화로 자아의 본질성을 전개하고자 한다.

다섯째, 이수경은 상처받은 존재 치유의 의미를 담아 하나의 개체로 형상화하는 작업은 도자 파편의 재생 본질을 표현하고 있다. 연구자는 타자와의 관계 프로세스, 즉 관계의 시작, 소멸, 회복의 단계인 순환구조의 조형 표현에 있어 적용하고자 한다.

여섯째, 올라퍼 엘리아슨은 본인의 모습을 발견함으로써 삶 속에 공존한 수 많은 가능성으로서의 본질적 표현을 한다. 연구자는 완벽한 자아의 유기적 공존의 가시화를 통해 본인의 존재적 인식의 성찰과정을 제시하고자 한다.

선행작가의 자아정체성 표현 요소 분석을 통해 연구자는 유기성과 본질성, 이 두 가지로 자아정체성의 키워드를 도출할 수 있었다. 도출된 조형의 상징적 의미를 담아 연구자의 작품 전개에 있어 각각의 표현 요소로 적용하고자 한다.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2. 상호 관계성 - 선

가. 순환성

(1) 산티아고 칼라트라바 (Santiago Calatrava)

산티아고 칼라트라바[84]의 디자인은 단순한 구조에서 시작되어 구조 형식이 집합된 다양성의 표현과 선은 엄격하고 규칙적인 직선의 반복적 구성으로 구조미를 표현함으로써 조형적 예술성을 구축하고 있다.

[도-54] 산티아고 칼라트라바, <리옹 공항>, 1994

[도-55] 산티아고 칼라트라바, <밀워키 미술관>, 2001

[도-56] 산티아고 칼라트라바, <알라미요 다리>, 1985

[도-54], [도-55]에서 새의 날개 표현을 위해 직선의 반복적 사용은 긴장감과 힘의 균형감을 동시에 느낄 수 있다. 그가 사용한 건축적 선의 요소는 구조적 설계로 미적, 은유적, 상징적 표현이 나타난다.[85] [도-56] 역시 직선적 조형미가 강조된 작품이다. 비대칭으로 이어진 선은 극적인 긴장감·안정감을 동시에 제공하며 교각의 선은 힘의 당김이 느껴지는 역동적 조형미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그의 건축에서의 가시화된 선의 조형성은 반복성, 연속성, 긴장성 등을 포괄하는 선의 순환성을 담고 있다 할 수 있다. 그의 작품은 연구자의 작업과 형태적 · 물리적 관점에서 많은 공통점을 갖는다. 작품을 바라볼 때 느껴지는 특유의 긴장미는 기하학 요소들의 변화감을 내재적으로 실현시키고 있으며, 형태를 구현해내는 발상적 측면에서도 연구자의 작업과 연관성이 있다.

---

84) 산티아고 칼라트라바(Santiago Calatrava, 1951~)는 스페인의 건축가로 일련의 기술적, 과학적, 예술적 경험의 수련 과정을 통해 전례없는 건축 예술작품을 만든다. 위키백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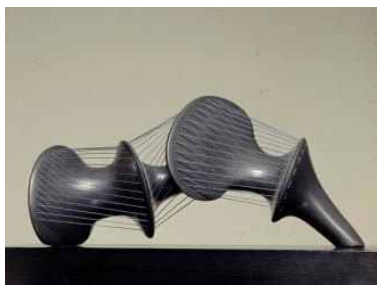
85) 김소현, 「산티아고 칼라트라바 건축의 구조적 조형미를 응용한 패션디자인 연구」,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18, p.24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2) 헨리 무어 (Henry Moore)

헨리 무어[86]의 작품은 형태를 구성하는 데 있어 인체의 유기적이며 자연적인 형태를 추상화 · 상징화 시켜 나간다. 그의 작품에 표현되는 여인의 형태는 사실주의자처럼 현실에 보이는 여인을 만든 것이 아니고 여인의 내면을 원초적이면서 본질적인 것, 즉, 순수한 원형의 상태이다.

[도-57] 헨리 무어,
<끈으로 연결된 모자상>,
1938



[도-58] 헨리 무어,
<현이있는 구상 - LH206>, 1939

[도-59] 헨리 무어,
<현이있는 구상 - LH207>, 1939

[도-57]은 어머니의 품에 안긴 아기를 형상화한 것이다. 아기의 입과 어머니의 유방을 실로 연결함으로써 수유를 표현했고, 어머니의 눈과 아기의 눈 역시 실로 연결되어 있는데, 이것은 눈 맞춤을 의미한다. 즉, 작품에서는 모자간의 밀접한 관계를 표현하기 위해 실을 이용했다. 모자의 형상은 한 덩어리에서 시작되어 상체만 구분 지어진 형상을 하고 있는데, 이는 끈끈한 관계를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도-58], [도-59]에서는 실험적인 현악기를 형상화하고 있다. 그녀는 기계미술을 접하면서 그 특성에 매료되어 형태에 구멍을 뚫고, 그 뚫린 구멍들을 통해 실을 꿰는 작업 세계를 이어나갔다. 그녀의 작품 소재는 생활에서 직접적으로 연결된 대상에 집중했는데, 그녀는 예술이 사람들의 일상생활의 일부가 되기를 원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다. 작품을 통해 사람과 예술의 관계에 대한 휴머니즘 사고를 보여주며, 그들 사이의 관계성에 따른 순환의 이미지를 표현하고 있다.

86) 헨리 무어 (Henry Moore, 1898~1986)는 뼈, 돌, 바위 등의 깊은 관찰에서 생기는 형태와 대지에서 뻗어나는 생명력이 넘치는 이미지를 표현하는 조각가이다. 위키백과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3) 바바라 헵워스 (Barbara Hepworth)

바바라 헵워스[87]는 추상 조각에 선의 요소들을 등장시키며 작품을 통해 선과 덩어리의 극적인 대비, 선의 질서에 의한 규칙성과 불규칙성을 보여주고 있다. 그녀의 작품은 그녀의 삶의 표현이다. 영적인 내면의 삶을 뜻하는 그녀의 작품에서는 고요함이 담겨있다. 또한 선적인 재료를 조형 요소에 도입시켜 선과 덩어리의 평형상태에서 대립하는 힘과 활기가 느껴지기도 한다.

[도-60] 바바라 헵워스, <색상이있는 조각>, 1943

[도-61] 바바라 헵워스, <파도>, 1946

[도-62] 바바라 헵워스, <끈이 있는 채색된 타원형>, 1966

[도-60]에서는 작가의 작품에서 빈번한 모티브가 되는 대표적 표현방식을 보여준다. 유기적으로 변환된 덩어리의 중심을 관통하는 구멍을 통해 음극 공간을 혁신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작품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도-61]은 속이 빈 나무는 물결이나 조개껍질을 표현한 것이고, 선은 예술작품에 음악의 요소를 더한 현을 의미한다. 헵워스는 학창시절 내내 음악에 매료되어 악기를 주로 다뤘다고 한다. 따라서 그녀의 작품에서 선이 반복되는 모티브가 된 것은 우연이 아니다. 그녀는 작품을 설명함에 있어 "현은 나와 바다, 바람이나 언덕 사이에서 느끼는 긴장감이었다."라고 했으며, [도-62]는 그런 그녀의 성숙기 작품 중 하나로, 이 역시 같은 맥락으로 표현되었다. 결국 그녀 작품의 큰 모티프는 관계의 모습으로 인간의 양태, 컬러, 질감, 사람과 사람, 사람과 사회 등 그녀를 둘러싼 모든 관계의 표현이다.

87) 바바라 헵워스 (Barbara Hepworth, 1903~1975)는 헨리 무어의 영향을 많이 받아 허의 형식으로써 소재의 양감을 해체하는 방향으로 나아갔으나 점차 기하학적 형태와 구성을 작품에 표현한 조각가이다. 위키백과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나. 존재성

(1) 서도호 (Shu Doho)

서도호은 작품을 통해 자신의 존재성을 드러내고 있다. 선을 이용한 작품 표현으로 시간적, 공간적으로 진화하는 그의 작품은 정체성에서 비롯된 것이다. 한국을 떠나 미국이라는 낯선 환경과 마주하게 된 그가 그리워하는 한국에서의 생활, 사람들과 문화에 대한 단상을 작가 자신의 투쟁 표현 요소로 삼고 있다. 그의 정체성은 외부적인 요소로부터 영향을 받았고, 그의 작품은 자신의 자화상을 나타내는 것처럼 보인다.

[도-63] 서도호,
<낙하산병 2>, 2005

[도-64] 서도호, <낙하산병 5>, 2005

[도-65] 서도호,
<낙하산병-세부이미지>, 2005

[도-63]에서 표현된 낙하산의 형태는 255개의 폴리오간자로 만들어진 투명한 블라우스로 형성된 채 미술관 천장에 걸려있고, 이 낙하산에는 고독한 사람형상이 매달려 있다. 이 작품에서 느껴지는 그의 자세는 상처받기 쉬운 나약한 인간상이 미세한 바람에도 영향을 받아 쉽게 움직이고, 낙하산에 의존하고 있는 실의 연결은 수동적인 존재의 표현처럼 느껴진다.[8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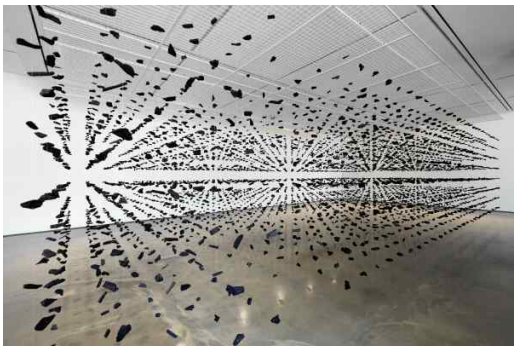
[도-64], [도-65]에서의 낙하산병은 5,500가닥의 실과 연결된 낙하산을 잡고 있다. 낙하산에 새겨진 서명에서 시작된 각각의 실은 낙하산병에 의해 당겨지고 있다. 벽에 부착된 낙하산에는 작가와 가까운 사람의 순으로 서명이 들어가 있다. 그는 이 작품을 통해 개인의 운명과 정체성에 관해 표현하고 있다. 결국 사람은 혼자 존재할 수 없으며, 개인의 정체성은 인연에 의해 만들어짐의 표현을 실을 통해 구체화한 것이다.

88) 오아나 바보이, 「서도호의 작품에 투영된 한국인의 정체성」,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8, p.36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2) 박선기 (Bahk Seonghi)

박선기[89]는 공간에 숯을 매달아 장소에 특정한 의미를 부여하고, 존재와 무, 과거와 현재, 실재와 환영, 동양과 서양 등의 경계를 뛰어넘는 작품을 하고 있다. 그는 인간의 시각은 항상 사물의 일부분만을 보게 된다는 사실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 사물의 뒷면을 생각 혹은 상상, 추론으로 머릿속에서 인식 된다는 생각은 그에게 있어 작품의 출발점이 된 것이다.[90]



[도-66] 박선기, <언 어그리게이션-스페이스>, 2016

[도-67] 박선기,
<조합체-세부이미지>, 2019

[도-66]은 숯으로 거대한 숲을 만든 설치 작품으로 바닥부터 천장까지 빼곡히 달아놓은 숯 사이로 관객이 지나가면서 작품 속에 융화되어 작품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유도했다. '숯 길'을 걸으며 관객은 마치 숲길을 산책하듯 작품과의 적극적 체험이 가능하다. 이 작품을 통해 작가는 형태와 이미지에 내재한 존재 본질에 대해 표현하고 있다. 식별 불가한 나일론 줄을 이용한 숯의 나열로 형성된 기본 형태에서 강하게 제시된 건축 구조는 공간 내에서 성찰의 기회를 제공한다. 그의 작업방식은 나일론 줄에 숯을 매달아가며 형태를 구성한다. 이때 나일론 실은 하나일 때 투명하지만 작품에서는 무수한 개체 사용으로 환영의 시각적 효과와 함께 공간을 활성화하고 있다. 작가는 존재 표현을 위해 본연의 이미지를 드러내고, 구조적 형태를 더욱 강화하고 있음을 작품을 통해 알 수 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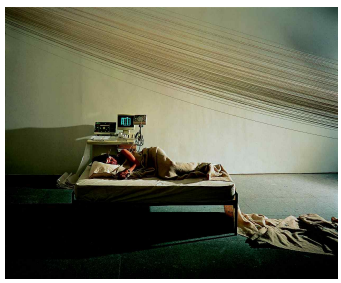
89) 박선기 (Bahk Seonghi, 1966~)는 숯을 이용해 생성과 소멸의 양면성을 작품으로 표현하는 조각가이다. 위키백과
90) URL : https://www.gallerybk.co.kr/ 박선기 개인전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3) 재닌 안토니 (Janine Antoni)

재닌 안토니[91]의 작업에서 나타나는 특징 중 하나는 신체의 시간성일 것이다. 신체를 순응적 재료 혹은 공간들과 만나게 하는 상황들을 연출한다.[92] 그녀의 퍼포먼스의 특징 중 시간성은 그녀의 작품을 마주하는 관객들의 중요한 해석 요인이 된다. 또한 그녀는 작업에서 행위의 지속성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바로 그녀의 신체이다. 그녀는 퍼포먼스와 조각의 경계를 모호하게 넘나들며 의식과 무의식의 관계, 그리고 그것의 결합에 대한 관심은 작품으로 표현하기에 이르렀다.

[도-68] 재닌 안토니, <무기력 상태>, 199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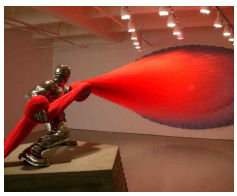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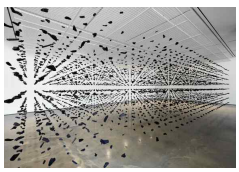
[도-69] 재닌 안토니, <무기력 상태-세부이미지>, 1994

[도-68], [도-69]에서 그녀는 전시장 안에 침대를 가져다 놓고 28일 동안 잠을 자기 시작했다. 침대 맡에 설치된 기계는 뇌파의 움직임 수치를 기록하는 것으로, 그녀가 꿈을 꾸는 동안 급격히 변화되고 있다. 작가는 이러한 파동의 패턴을 베틀로 짜서 끝없이 이어지는 담요의 형상을 제작하게 된다. 수면상태에서 활발한 무의식의 흔적이 나타내는 작가의 REM 상태의 파동의 모양을 의식적인 상태에서 직접 담요를 짜는 퍼포먼스로 이어짐으로써 작가는 의식과 무의식이 결합을 직접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93] 작가는 시작과 끝의 모호성과 순환적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작품에 담음으로써 지나간 시간의 흔적은 실로 형상화되어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고 있음을 표현하고 있다.

91) 재닌 안토니 (Janine Antoni, 1964~)는 프로세스와 제작 및 완제품 간의 전환에 중점을 둔 공연예술, 조각 및 사진 분야의 현대 작품을 제작한다. 위키백과
92) BOMB Magazine, 『interview with Stuart Horodner』, Winter 1999, 66호
93) URL : blog .daum.net, 미술연재 칼럼, 삶은 균형을 찾아가는 과정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표-04] 작가 작품 분석 - 상호 관계성

구분		작가	이미지	내용
형상적요소-상호관계성	순환성	산티아고 칼라트라바 (Santiago Calatrava)		엄격하고 규칙적인 직선적 구성요소의 반복과 결합으로 이루어진 작품은 직선을 비대칭으로 이어주어 극적인 긴장감과 안정감을 주며 힘의 당김을 활용한 역동적 조형미를 보여준다.
		헨리 무어 (Henry Moore)		밀접한 관계를 표현하기 위해 끈의 연결을 이용하여 융합된 모습과 기계미술로서의 형태의 구멍을 통한 연결로 사람과 예술의 관계, 휴머니즘 사고를 나타낸다.
		바바라 헵워스 (Barbara Hepworth)		추상 조각에 선의 요소들을 등장시키며 작품을 통해 선과 덩어리의 극적인 대비, 선의 질서에 의한 규칙성과 불규칙성으로 인간관계에 의한 다양한 양태의 표현이다.
	존재성	서도호 (Shu Doho)		작가와 가까운 사람의 서명이 들어간 낙하산 당기고 있는 낙하산병의 표현을 통해 개인의 정체성은 인연에 의해 만들어진다는 존재 표현으로 5,500개의 실을 통해 구체화하였다.
		박선기 (Bahk Seonghi)		숯을 공간에 매달아 그 장소에 특정한 의미를 부여하고, 과거와 현재, 존재와 무, 실재와 환영 표현으로 형태와 이미지에 내재한 존재의 본질을 구조적으로 나타낸다.
		재닌 안토니 (Janine Antoni)		수면상태의 무의식과 의식적인 상태의 담요짜는 퍼포먼스로 작가의 의식과 무의식이 결합하는 과정을 보여줌으로써 지나간 시간의 흔적이 실로 형상화되어 자신의 존재성을 드러낸다.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이상 여섯 명의 작가의 작품에서 상호 관계성 표현을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여 연구자의 조형 전개 방향을 제시한다.

첫째, 산티아고 칼라트라바는 직선적 구성요소의 반복으로 극적인 긴장감과 안정감, 역동적 조형미를 작품에 투사한다. 연구자는 긴장감과 역동적 조형미의 구성요소를 타자와의 소통에 있어 느끼는 심리적 틈인 관계의 거리를 시각화하는 조형 요소로 활용할 것이다.

둘째. 헨리 무어는 밀접한 관계를 표현하기 위해 끈을 연결하여 타자와의 융합된 모습과 기계미술로서의 형태의 구멍을 통한 연결로 순환성을 담고 있다. 연구자는 관계 형성 일련의 과정을 담아 선의 관계적 순환성에 집중하고자 한다.

셋째, 바바라 헵워스는 추상조각에 선의 요소들을 등장시키며 작품을 통해 인간관계에 의한 다양한 양태를 표현하고 있다. 연구자는 순환성으로 요소로 활용하여 주체적 관계 맺기를 통해 진정성 있는 소통의 의미를 표현하고자 한다.

넷째, 서도호는 개인의 정체성은 인연에 의해 만들어진다는 존재 표현으로 실을 통해 형상화한다. 연구자는 지나간 기억의 과거 인연들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그 모습은 하나하나 실로 연결하여 과거의 나를 소환하는 순환성을 작품에 담아 관계의 본질 표현을 작품에 전개하고자 한다.

다섯 째, 박선기는 숯을 이용한 장소의 특정적 의미와 더불어 형태와 이미지에 내재한 선의 조형적 요소로 존재의 본질을 구조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연구자는 타자와의 관계를 통해 존재의 본질을 찾을 수 있음을 인식하고, 연구자가 맺는 모든 관계의 유기적 조직화를 통한 공존을 작품으로 표현하고자 한다.

여섯째, 재닌 안토니는 의식과 무의식의 결합으로 지나간 시간의 흔적이 실로 형상화되어 자신의 존재성을 드러내고 있다. 연구자 역시 타자와의 부단한 소통을 통해 존재 가치를 정립할 수 있음을 실의 직접적인 형상 표현으로 작품을 전개하고자 한다.

선행작가의 상호관계성 표현 요소 분석을 통해 연구자는 순환성과 존재성의 키워드를 도출할 수 있었다. 도출된 조형적 의미를 담아 연구자의 작품 전개에 있어 각각의 표현 요소로 적용하고자 한다.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3. 표현 확장성 - 재료

가. 은유성

(1) 방창현 (Bang Changhyun)

방창현[94]의 작업은 “돼지”를 주인공으로 등장시켜 인간들의 일상에서 일어나는 다 반사적인 감정을 동물의 시선으로 예리하게 포착하여 작품에 은유하고 있다.

[도-70] 방창현, <크루노우어>, 2009

[도-71] 방창현, <크루노우어>, 2009

[도-70]에서 건축물은 삶의 무대이고, 그 위의 돼지는 주인공이 되어 상황이 표현된다. 작가의 작품에서 건축물과 돼지의 기표적 표현은 상호관계를 통해서 규범, 관습, 권력의 메커니즘을 드러내는 매개체로의 표현이다.[95] [도-71]의 돼지는 점점 물속에 잠기고 있다. 작가는 심리적인 상황을 표현의 소재로 물을 차용하여, 무의식에 침잠(沈潛) 된 현대인의 우울과 불안을 은유적 표현을 위해 상징적 요소로 사용하고 있다. 이처럼 작가는 현대인들의 일상에서 오는 부정적이고 두려운 감정을 타자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과거의 트라우마로부터 궁극적으로 자기 자신을 반추함으로써 관객의 소통을 유도한다. 이는 작가 본인의 기억과 지각 인식으로 인한 감각의 은유적 상징 표현이라 할 수 있다.

---

94) 방창현(Bang Changhyunr, 1973~)은 인간의 감정을 의인화 시킨 “돼지”라는 동물 캐릭터를 등장시킴으로써 관객들에게 감정 이입을 유도하여 과거의 반추를 통한 내면의 자기 응시의 기법을 작품에 표현하는 한국 도예가이다. 위키백과

95) 김양지, 「현대도예의 기호와 상징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14, P.58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2) 한애규 (Hahn Aikyu)

한애규[96]는 자신이 경험한 내적 고통을 작품으로 승화함으로써 자아와 현실에 대한 깊이 있는 성찰을 유도한다. 작가는 현실에서의 두려움과 불안의 고통으로 인한 도피처로 작업[97]을 선택하였으며, 내면에서 발생한 감정을 형상화한다.

[도-72] 한애규, <침묵>, 2005

[도-72]를 통해 작가는 "여행길에서 들른 폐허, 거대한 돌덩이, 작은 돌멩이 하나까지 세월과 함께 축적된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 그들은 침묵할 뿐이다.[98]"라고 했다. 작가가 경험한 수많은 이야기를 침묵이라는 단어로 규정하고 있다. 말의 세계는 침묵의 세계 위에 세워졌고 마음 놓고 문장들과 사상 속에서 멀리까지 움직여갈 수 있는 것은 오직 침묵이 선행되었을 때라고 말한다.[99]

침묵은 말의 바탕이 되고 말에는 침묵이 깃들어 있다. 어떠한 말보다 자기의 생각을 훨씬 많은 언어로 담을 수 있도록 작용한다. 그래서 침묵 속에서 많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으며, 현실의 소음 속에서 잠시 쉬어갈 수 있도록 자신을 바라보게 하는 힘이 있다.

연구자도 작품에 본인의 내면을 표현하고 있다. 그것이 환상성을 띄고 있을 뿐 본질은 삶의 주체가 되기 위한 내면의 탐색에 있다. 그러므로 현실 속에서 존재를 찾아가는 한애규 작품의 모습과 유사하다.

---

96) 한애규 (Hahn Aikyu, 1953~)는 내면을 성찰하고 실존적 체험을 도자 매체로 환원한 조각작품으로 독자적인 세계를 구축하고 있는 작가이다. 위키백과
97) 한애규, 『여행이란 이름의 사색의 시간』, 일빛, 2015, p.7
98) 한애규, 위의 책 p. 73.
99) 최승자, 막스 피카르트, 『침묵의 세계』, 까치, 2011, p.41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3) 켈리 오브라이언 (Kelly O'Briant)

켈리 오브라이언[100]은 일상사물을 소재로 독특한 작품 세계를 구축하고 있다. 작품은 백색의 자기질 점토로 제작되며, 결과물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바로 작품을 빚어내는 과정이다. 이 과정은 그녀의 사유에 부피와 질량이라는 실체를 제공하고 그 표면에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기록을 남기고 있다.[101] 개인의 기억을 암호화해서 저장하고 표면의 세계로 불러내는 과정을 가장 단순하게 행한다는 점이 그녀가 흙을 창조적 실천의 필수적인 요소로 이용하는 까닭이다.

[도-73] 켈리 오브라이언, <포터의 싱크>, 2014

[도-73]에서 작가는 사물과 사용자 간의 사적인 순간을 포착하여 작품에 설치한다. 우리가 매일 반복하는 일상과 그곳에 침투해 있는 사물, 그리고 그사이의 기억에 대한 표현이다. 인간의 기억은 불확실하고 모호한 사항으로 가득 차 있다. 반면 그녀 작품에 표현된 사물은 불확실한 기억의 지속을 위한 견고한 언어로 저장하고 있다.[102] 작가에게 기록의 의미는 기억과 죽음, 존재와 관계에 대한 탐구 시간이라 할 수 있다. 자아, 시간, 서사와 같이 명확한 언어로 설명 불가한 주제의 성찰은 손의 언어로 암호화된 채 끊임없이 기록된다. 연구자는 그녀의 작품을 조명함으로써 도자 정물의 은유적 표현에 대해 탐구하는 기회가 되었다.

---

100) 켈리 오브라이언 (Kelly O'Briant)은 일상사물을 소재로 인문학적 주제를 탐구하는 도예가이다. 위키백과
101) URL : http://www.kellyobriant.com
102) 문혜주, 「일상의 반복을 기록한 도자조형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18, P.25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나. 융합성

(1) 커스텐 스팅글 (Kirsten Stingle)

커스텐 스팅글[103]의 작품은 인간의 경험에서 비롯된 공통적 서사를 통해 이 시대에서 각 개체 간 고립의 타파를 시도하는 데 있다. 작가와 결부되는 관계에 대한 사적인 이야기를 담은 그녀의 작품은 연결에 대한 내면세계의 표현에 있어 적극적으로 표현되고 있다.

[도-74] 커스텐 스팅글, <숨 공기>

[도-75] 커스텐 스팅글, <터트린 비누 방울>

[도-74]는 모자 관계의 표현으로 산소 파이프를 이용한 호흡은 모자의 '탯줄의 연결'을 상징하고 있다. 어머니 머리의 원형장식은 성모처럼 거룩한 후광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 어머니로부터 시작된 아이에게 전달하는 과정은 저항할 수 없는 모자 사이의 운명 감이 표현되었다. [도-75]에서는 도자와 혼합재료의 융합적 표현을 확인할 수 있다. 오래된 것과의 결합으로 무의식에 내재된 과거의 기억을 소환하며, 머리 위 유리구슬들과 무작위로 박은 못의 표현은 궁금증을 자아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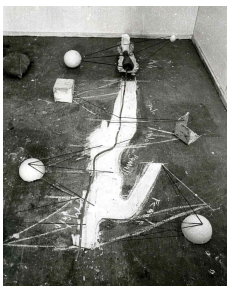
작가는 작품을 정서적 충격, 정신적 외상 등 콤플렉스에서 비롯된 자신의 내면세계 표현을 한다. 무의식적으로 여성에게 내재한 정서를 이용하여 관객들이 쉽게 공감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103) 커스텐 스팅글 (Kirsten Stingle)은 새로운 시각으로 사람과 세상을 관찰하여 다양한 매체를 이용하여 조형 도자를 표현하는 미국의 현대도예 작가이다. 위키백과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2) 애니쉬 카푸어 (Anish Kapoor)

애니쉬 카푸어[104]는 미학적 개념에 관점의 접근법으로, 서로 다른 특성을 갖는 요소들의 공존 및 그들 사이의 유기적 관계를 작품으로 표현한다. 이는 양극단의 가치들을 아우르는 통합의 지점으로 관람자 간의 경계를 해체하려는 시도이다.



[도-76] 애니쉬 카푸어, <무제>, 1975

[도-77] 애니쉬 카푸어, <보이드의 장>, 1989

[도-78] 애니쉬 카푸어, <회색 인간은 울고, 샤먼은 죽고, 연기가 피어오르니, 아름다움이 떠올랐다>, 2008-2009

[도-76]은 반인상의 양성체 형상에 남성과 여성이라는 단어가 쓰여있고, 구, 반구, 직사각형의 오브제들은 쇠막대에 의해 연결되어 양성체를 중심으로 집결된다. 통합체로서 남녀의 합을 원초적인 상태의 전체성 및 재료의 융합성을 담고 있다.

[도-77]은 사암에 구멍을 내어 어두운 안료를 내부에 칠한 돌덩어리 오브제이다. 실재와 부재, 물질과 비물질, 조각의 외부와 내부 공간의 대립적인 요소의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표현하고 있다.

[도-78]은 호스에서 배출된 콘크리트를 겹겹이 쌓아 올린 작품으로, 콘크리트 더미는 작가의 언급처럼 "배설물, 창자, 살과 같은 신체의 부분"[105]으로 스스로 노폐물을 배출하는 생명체이자 현대사회 안에서의 자생하는 오브제 표현이다.

작가는 작품을 통해 모든 생명체, 나아가 주변의 모든 사물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음을 드러내고자 한 것이다. 이는 상반되는 재료적 원리들을 포괄하면서 통합적인 관점에서 삶의 실체에 접근하고자 한다. 이는 그의 세계관이 작품에 조형적으로 구현된 것이라 할 수 있다.

---

104) 아니쉬 카푸어(Anish Kapoor, 1954~)는 안료와 유리섬유, 돌, 스테인리스 스틸, PVC, 왁스, 시멘트, 실리콘 등 다양한 매체를 사용하여 장르를 넘나드는 폭넓은 작업 세계를 보여준다. 위키백과

105) Anish Kapoor, 『"Greyman Cries, Shaman Dies, Billowing Smoke, Beauty Evoked"』, Anish Kapoor et. al., Unconformity and Entropy (Madrid: Turner), 2009, p.39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3) 헤링가 / 반 칼스빅(Heringa / Van Kalsbeek)

헤링가 / 반 칼스빅의 작품은 서로 무관한 소재들의 해체된 조각이 작가에 의해 새롭게 재구성된다. 본래 이들이 속해있던 물체와 대상들의 의미와는 동떨어진 새로운 의미의 문맥 속에 놓이곤 한다. 작가에게 있어 파편들은 자연, 성장과 쇠퇴, 문명과 역사 등의 주제를 내포하는 대상들이며, 다양한 재료와 형태를 통해 단순한 파편들의 집적이 아닌 새로운 의미 구성의 요소들로 재창조된다.[106]

[도-79] 헤링가 / 반 칼스빅, <무제>, 2012

[도-79]는 도자기, 레진, 스틸, 천 등의 다양한 재료를 혼합하여 제작된 작품이다. 표면적인 혼돈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핵이나 중심을 둘러싼 자유분방한 형태들이 이해 가능한 구조를 지니고, 이는 혼합된 재료가 소성을 통해 녹아내려 본래의 재료가 가진 색상과 형태가 융합되어 전혀 새로운 이미지를 창출하고 있다. 작가의 작품은 보는 이의 눈을 움직이도록 유도하는데, 이는 시각적 과잉의 원칙들을 조각의 장으로 전이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 소재의 과잉은 작품의 한계 내에 머물며 관찰자들로 하여금 능동적 접근을 가능케 하고 그에 연구와 분석을 통한 타 재료와의 구조와 결집은 오직 근접한 관찰을 통해서만 명확해진다.[107]

---

106) 강재영, 「현대도예의 장르 해체 경향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7, p.78
107) 아리에하르톡 전시평문, 『ABSORB』, IdeaBooks, Amsterdam, 2001, p.7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표-05] 작가 작품 분석 - 표현 확장성

구분		작가	이미지	내용
형상적요소 | 표현확장성	은유성	방창현 (Bang Changhyun)		돼지를 매개체로 한 현대인의 우울과 불안의 은유적 표현은 타자의 관점에서 부정적 감정을 마주해 보며 자기 자신을 반추한다.
		한애규 (Hahn Aikyu)		세월에 의해 축적된 사물을 통해 작가 내면의 고통을 침묵에 입각하여 드러냄으로써 자아와 현실에 대한 내면의 성찰을 유도한다.
		켈리 오브라이언 (Kelly O'Briant)		일상에 침투해 있는 개인의 기억을 영원히 지속하는 견고한 언어로 은유하여 작품에 조명함으로써 개인과 관계에 대한 내용을 조형화한다.
	융합성	커스텐 스팅글 (Kirsten Stingle)		관계에 대한 내면 표현에 있어 파이프, 금속, 구슬 등을 연결의 요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시각화함으로써 정서의 공감을 유도한다.
		애니쉬 카푸어 (Anish Kapoor)		서로 다른 특성을 지닌 이질적 요소들의 공존과 그들 사이의 유기적 관계를 작품으로 표현함으로써 관람자 간의 경계 해체를 시도한다.
		헤링가 / 반 칼스빅 (Heringa / Van Kalsbeek)		서로 무관한 해체된 조각들을 소재로 하여 융합시킴으로써 시각적 과잉을 통해 관찰자들로 하여금 능동적 관찰을 유도한다.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이상 여섯 명의 작가의 작품에서 보이는 표현 확장성을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여 연구자의 조형 전개 방향을 제시한다.

첫째, 방창현은 현대인의 우울과 불안을 은유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돼지를 매개체로 다양한 관점을 제시하고 있다. 연구자는 관계의 다양한 형상에 따른 자아의 은유적 표현을 위해 구를 선정하여 작품을 전개하고자 한다.

둘째. 한애규는 작가 자신의 내면의 고통을 과거로부터 축적된 사물을 통해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연구자는 타자와의 관계 표현에 있어 다양한 조형의 은유적 표현을 위해 선을 매개체로 작품에 적용하고자 한다.

셋째, 오 브라이언은 일상에 내재된 개인의 기억을 일상 사물을 통해 개인과 관계에 대해 은유하고 있다. 연구자는 타자와의 상황설정 및 일상표현을 위해 나무 패널의 프레임으로 공간을 은유화 함으로써 작품으로 구체화 시키고자 한다.

넷째, 커스턴 스팅글은 관계의 내면 표현을 적극적으로 시각화하고자 파이프, 금속, 구슬 등 다양한 재료를 이용하고 있다. 연구자는 타자와의 관계를 조형화하는 데 있어 점토, 실, 천, 나무 패널, 못 등 재료를 융합하여 작품에 적극적으로 표현하고자 한다.

다섯째, 에니쉬 카푸어는 이질적 요소들의 유기적 결합에 따른 공존을 작품에 표현함으로써 관람자 간의 경계 해체를 유도한다. 연구자는 주체적 자아를 형성하는 데 있어 사회적 시선의 탈피를 위해 점토표현의 물성과는 이질감 있는 재료인 시멘트를 이용해서 자아와 사회의 대비적 표현으로 전개하고자 한다.

여섯째, 헤링가 반 칼스믹은 서로 무관한 해체된 조각들을 소재로 하여 융합시킴으로써 시각적 과잉을 통해 관람자의 능동적 관찰을 유도한다. 연구자는 관계의 상실과 회복의 순환에 따른 타자와의 수없이 연결된 집단적 네트워크를 표현하고자 해체된 천의 연결로 관계의 선을 가시화하여 작품에 적용하고자 한다.

선행작가의 표현 확장성의 요소 분석은 연구자에게 있어 은유성과 융합성의 키워드를 도출할 수 있었다. 도출된 조형적 의미를 담아 연구자의 작품 전개에 있어 각각의 표현 요소로 적용하고자 한다.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제 4장

연구자의 <관계의 형상> 도자 작품 표현

제 1절 관계의 형상 작품 배경

제 2절 관계의 형상 작품 과정

제 3절 관계의 형상 작품 분석

1. 관계의 간극
2. 관계의 성장
3. 관계의 본질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제 4장 연구자의 <관계의 형상> 도자 작품 표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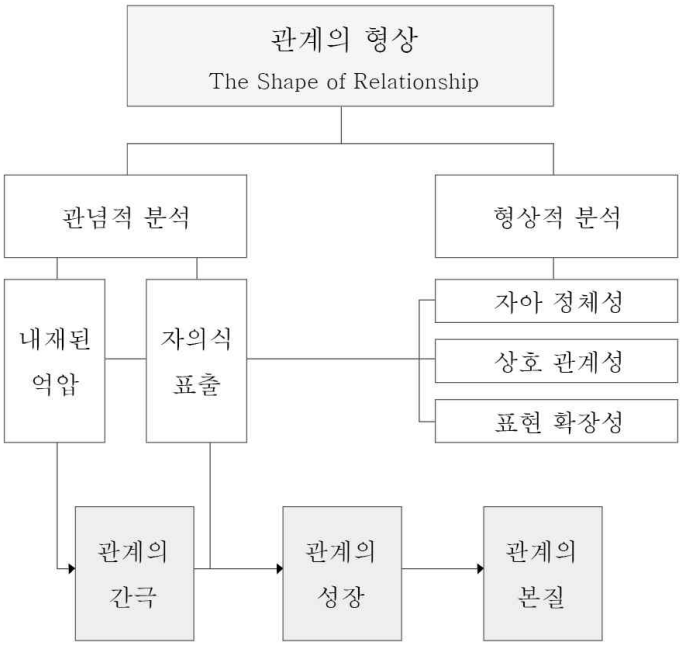
제 1절 관계의 형상 작품 배경

연구자의 관계 안에서 파생되는 감정에 관한 생각은 단순한 문제의식에서 시작되었다. 작품을 창작하는 연구자가 본인에 대한 존재 이해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과연 타인들에게 유의미한 작품을 만들 수 있냐는 의문이었다. 연구자는 누구이며 왜 살고 있는지에 대한 문제의식은 자연스럽게 인간과의 관계 안에서 본인의 존재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었다. 인간 존재에 발생하는 타자와의 관계에 대해 근본적으로 고민하면서 연구자 내면의 감정과 연결하게 되었고, 관계에서 오는 불안감으로 연구자는 인식의 주체로서 정체성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다. 이로써 연구자는 타자에게 어떤 사람인지, 사람 사이의 관계가 나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에 관한 생각은 타자와의 관계에 대한 분석으로 이어졌다. 그 결과 연구자는 자신의 약함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 많은 타의적 · 자의적으로 감정을 억압한 채 지내왔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다.

연구자가 2018~2020년 동안 제작한 작품 <관계의 형상>은 타자와의 관계를 조망함으로써 본인을 탐구하는 과정으로 이어졌고, 그 방법으로 사회적, 개인적 불안 요소에 대해 깊이 고찰하게 되었다. 작품은 관계에서 비롯된 자아 정체성에 관한 표현을 목적에 두고 무엇보다도 자신의 존재를 확인시키는 자신을 돌아보는 방법이자 과정의 도구로 사용되었기에 본인의 자아를 찾는 과정을 바탕으로 조형화하였다.

이 과정은 3가지 맥락으로 구분된다. 첫째, 관계의 간극은 사회 안에 다수의 자아가 내재한 자신의 모습을, 둘째, 관계의 성장은 개인적 관계에서 나타난 자아의 모습으로 관계의 순환 경험에 의해 진정한 자아를 찾으려는 의지 표현, 셋째, 관계의 본질은 주체적 자아와 세계가 조화를 이룬 모습으로 자기 존재의 가치를 확립하며 진정한 나와 조우하게 된다. 자아 정립 과정의 조형적 표현을 통해 감상자들이 본인의 자아정체성과 존재가치에 관해 성찰의 계기를 제공하자고 한다.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도-80] 작품 연구 전개 과정

내재적 억압 : 사회 안 타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소극적인 소통법으로 개인 안에 내재한 다수의 자아표현이다. 이는 연구자의 작품 <관계의 간극>에서 현대인의 보편적 양태를 묘사한다.

자의식 표출 : 개인적 타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적극적인 소통법으로 관계의 생성, 소멸, 변화에 따라 달리하는 경험적 자아표현이다. 이는 연구자의 작품 <관계의 성장>에서 주체적 자아로의 성장 의지를 전개한다.

자아 정체성 : 연구자의 자아의 본질을 원형에서 찾고, 환경에 의해 변환되는 자아의 형상을 구의 유기적 표현으로 나타낸다.

상호 관계성 : 연구자의 타자와 관계의 순환성에서 찾을 수 있는 나의 존재성을 실을 차용하여 그 모습을 드러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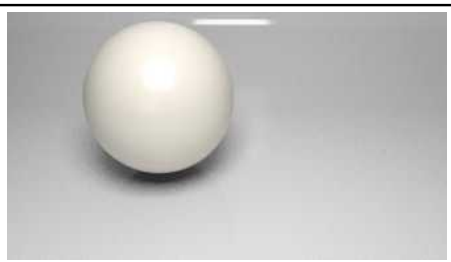
표현 확장성 : 연구자의 작품에서 볼 수 있는 다양한 재료의 융합을 통해 도자예술의 표현 확장성을 제고한다.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제 2절 관계의 형상 작품 과정

모든 형태는 그 입체의 고유 형태에서 어떤 부분을 분할하는 것만으로도 다양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원형의 다양한 형태 변환을 위해 연구자가 택한 작품 진행 방법은 3D 프로그램인 Maya를 통해 사전 드로잉의 단계를 거치는 것이다. 작품의 원형을 해체하고 분리하여 유기적으로 재건하고, 이들의 연결을 위해 공간을 재배치하는 과정은 단순한 스케치만으로는 완성도 있는 결과물을 도출함에 있어 역부족이었다. 따라서 3D 프로그램으로 형태를 완벽하게 맞춘 후 철저한 프로세스에 의해 작업을 전개했다.

[표-06] 3D 프로그램을 이용한 작품 사전 제작 과정

	
1. 구 원형	2. 원형 분할
3. 원형 재조립	4. 타공
5. 프레임에 기물 배치 및 못 박기	6. 실 걸기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작품 제작은 다음과 같은 6단계의 과정을 거친다.

첫째, 자아를 표현하기 위해 원형을 선정 후 석고 틀을 이용한 슬립 캐스팅 방법으로 기물을 도출한다.

둘째, 다양한 자아의 표현을 위해 반 건조된 기물을 해체한다. 이때 유의할 점은 한 몸체에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야 하기에 원형을 자르는 과정에 있어 각도를 균일하게 맞춘 후 진행해야 재조립 과정에서 틈이 생기지 않는다.

셋째, 분할된 원형의 다양한 각도의 재조립 과정으로 타자에 의해 변화하는 자아의 모습을 다양하게 연출하여 형상화한다.

넷째, 차후 실을 연결할 것을 고려해 원형에 타공한다. 원형은 완전 건조 후 가마 소성과 무유 시유로 인한 표면의 부드러운 처리를 위한 샌딩 과정을 필요로 한다.

다섯째, 원형을 나무 패널 프레임에 배치 후 접착제로 고정하고, 못을 박는다. 이때 주의할 점은 실의 균일한 밀도 유지를 위해 일정한 간격을 고려해야 하고, 못은 크기가 작은 실 못으로 각도를 수직으로 정확히 위치해야 실을 고정하는 데 어려움이 없다.

여섯째, 실로 연결하여 마무리한다. 실을 거는 작업은 인내를 요구한다. 연구자는 작품 제작 과정을 통해 인간의 관계에서 파생되는 감정에 대한 고찰이 지속되었다. 이는 작업의 모든 과정이 인내심과 이해를 바탕으로 타자를 받아들이는 것과 매우 흡사했다.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제 3절 관계의 형상 작품 분석

1. 관계의 간극

가. 작품의 관념 분석

현대사회에서 우리는 편리함과 물질적 풍요로움을 향유하며 살아가지만, 그 이면의 인간은 심리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안고 불안해한다. 현대인들의 불안은 현실에 대한 불만족에서 비롯하지만, 이는 현대에 국한된 문제가 아닌 과거부터 지속된 문제이며, 이미 정신분석학자들에 의해 수차례 논의되었던 연구이다. 이렇게 불안이 발생하게 되는 문제의 핵심은 행복의 의미를 타자에게서 찾는다는 점에 있다. 불확실한 가치관으로 주체적 생각이 결여된 채 타자의 시선에 의지하여 세상의 흐름을 좇는 주체는 본인 스스로 고독하고 무력한 존재로 만든다.

인간은 외부 자극 때문에 쉽게 상처를 받고 불안을 느낀다. 문득 사회 안에서 타자로부터 느끼는 소외감, 함께 공유했던 존재의 낯섦 등은 비주체적 양태로 삶이 전개된다. 게다가 본인을 포함한 많은 현대인은 부모의 욕망과 기대 속에서 원하지 않는 것을 선택하기도 했을 것이다. 우리는 이렇게 자신의 욕구를 저버린 채 주체적인 삶을 영위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그것은 일정 시간이 지난 뒤 자신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정신적으로 각인되어 불안이나 억압의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

본인의 경우 유년 시절부터 부모의 기대에 따라 의존적으로 결정하고,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 채 수동적인 삶에 안주했다. 이러한 삶의 지속은 본인 스스로 주변 환경과 인간관계에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하기 이르렀고, 그에 따라 자연스레 타자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했다. 이것은 타자에게 나의 모습을 완전히 드러내지 못하는, 그래서 외부적 요인에만 의해 판별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다. 다시 말하면, 자신에 대한 자기 확신이 없음에 본인 스스로 비주체적인 태도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는 곧 소외와 분리되지 못한 주체로서 본인의 자아 형성에 큰 영향을 주었다. 훗날 본인은 작품을 만드는 작업 과정에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서 본인의 불안이 조금씩 드러내게 됨에 따라 스스로 그것을 인지할 수 있었다.

자기에 대한 이해는 심리학, 철학과 같은 학문영역에서 오랫동안 논의되어온 주제로 다수의 학자가 자기개념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관심이 이어져 오고 있다. 본인의 타자와의 관계에 대한 심리학적 양태는 대상 관계이론에서 파생된 자기 불일치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다. 내가 생각하는 나와 타인이 생각하는 내가 다를 때, 나의 내면에서의 이상적 자기와 실제적 자기 간 차이가 날 때, 자신의 희망을 이루지 못하고 자신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결과를 경험하게 될 때, 우울, 좌절 등과 같은 정서에 빠지는 것을 의미한다.

본인은 타자의 평가에 대한 두려움에 기인하여 사회가 원하는 모습으로 나를 드러내는 방법을 택하게 되었다. 주체로서의 자신의 모습이 어떤 것이 진실인지 확신할 수 없었고, 이에 본인은 출처가 명확하지 않은 불안정한 감정을 느꼈다. 이러한 감정이 수반되어 고민이 시작됐고, 이는 본인 작업의 시발점이 되었다. 타자의 시선은 종종 우리의 내면에 존재하는 눈이 되어 자신을 바라보기도 하고 타인을 평가하기도 한다. 타자의 시선은 외부에서 존재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면화되어 자기 자신을 규율하기도 했고, 이러한 타자의 시선은 스스로 각인되어 본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연구자는 이것을 사회적 관계로 타자와 본인은 같은 공간에 점유되어 있지만 자기 불일치에서 파생된 심리적 거리감이라 생각이 들었다. 겉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는 연구자 본인의 내면 표현을 위해 선행작품으로 사회 안 내재된 억압을 드러내는 작가의 사례를 살펴보았다.

[표-07]을 통해 3장에서 선행된 내재된 억압표현의 작가 작품분석을 정리하였고, 이 작품 분석은 타자와 본인의 심리적 거리인 <관계의 간극> 표현에 있어 연구자의 작업 형성의 방향성을 도출하게 되었다.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표-07] 작가 작품 분석 - 내재적 억압 : 관념 도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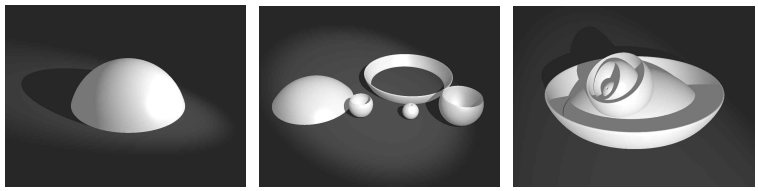
작품 / 작가	주제	소재	형태
서도호 (Shu Doho)	사회안 억압, 두려움, 정체성	개체의 반복을 통한 전체의 희생, 획일화된 일상	설치
웨민쥔 (Yue Minjun)	사회적 자기 소외	중국 공산주의 사회, 과장된 웃는 얼굴 이미지	회화
에드워드 호퍼 (Edward Hopper)	현대사회 안 외로움, 공허함	미국의 도시전경, 인간부재, 그림자	회화
로버트 롱고 (Robert Longo)	현대인의 무력감	현대사회문제, 분열된 자아, 굴절된 인간	회화, 벽면 설치
조지 시걸 (George Segal)	소외된 현대인의 삶	인간의 존재성, 인물의 자세와 표정 연출	회화, 조각, 바닥 설치
연구자	사회적 관계에서의 자기불일치, 스침의 관계	사회 안 내재된 불안, 자아 형상, 외부 자극 그림자	도자조형, 벽면설치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나. 작품의 조형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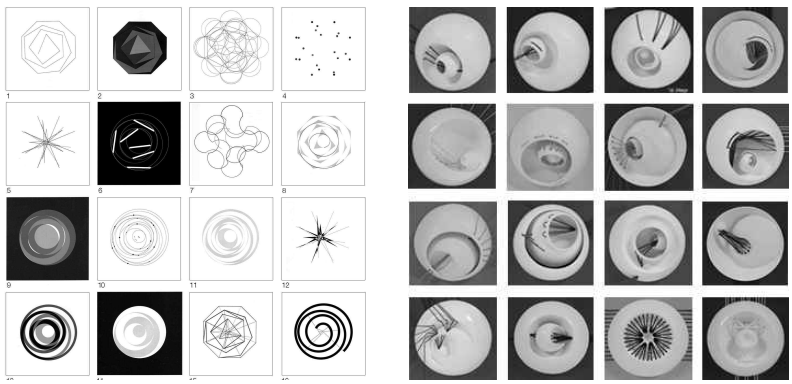
관계의 간극에 대한 작품은 <Relationship : 간극 #1, 2, 3>의 3가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타자와의 소통 유형에 따라 공유적 관계, 획일적 관계로 구분한다.

집단 속에서 관계하는 본인과 타자 사이에는 반드시 거리가 존재한다. 연구자는 관계의 간극을 표현하기 위해 서로의 거리를 유지하며 공간을 공유하는 개인적 · 사회적 거리개념을 빌려왔다. 정서적 공간으로 파생되는 관계에 대한 거리감과 함께 타자로 인해 변화되는 자아의 변환을 표현하고자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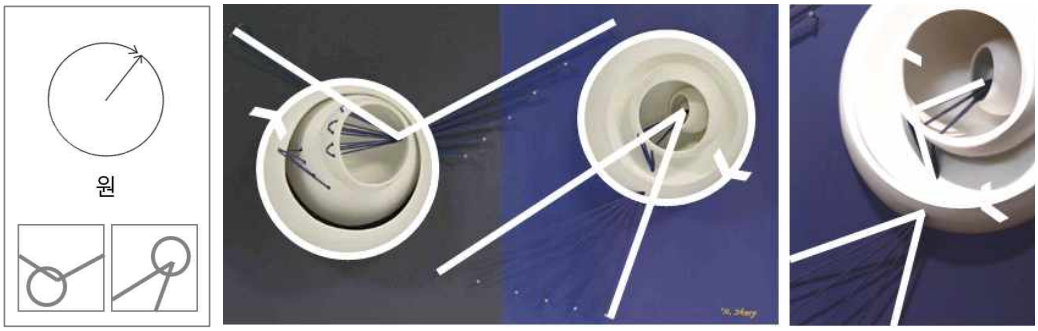
[도-81] Relationship : 간극 #1 작품에 보이는 자아의 변환 과정

작업의 시작점은 원형을 해체하고 재조립의 과정을 거치는 것이다. 이는 이성과 감정 사이의 거리, 내면적 대립에 관한 심리적 갈등, 즉 외부 요인에 의한 자아의 변환과정을 보여준다. 또한 하나의 주제에서 여러 개의 변형을 만든 되스부르흐의 구체 미술 작업 <콤퍼지션 시리즈>에서 영감을 얻은 막스 빌의 연작시리즈는 연구자의 작업에 있어 하나의 원형에서 다양한 변화를 거듭하는 자아를 형상화하는데 적용되었다.



[도-82] 막스 빌의 15개 변형의 연작 시리즈에 따른 연구자의 자아 변화 과정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도-83] Relationship : 간극 #1 작품에 보이는 원의 움직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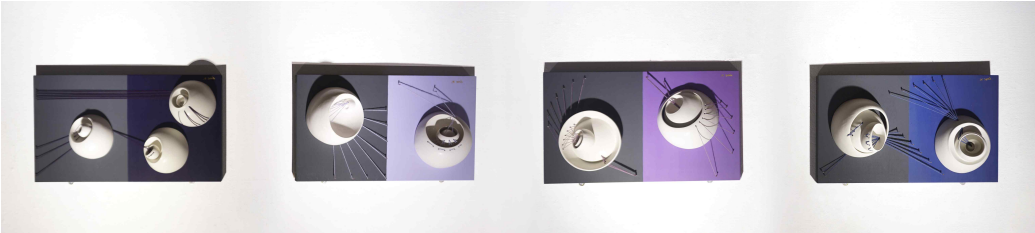
원은 긴장된 상태로 원심력이 유지되는 균형적 형태이다. 움직임의 순환과 회전성을 가진 동적 형태로 방향성은 갖지 않는 도형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다른 선이나 형상과 함께 사용되면 원은 확실한 움직임을 가질 수 있다. 선은 점의 크기와 이동으로 길이가 정해지고, 점이 가진 정지성의 파괴는 정적인 것에서 동적인 것으로 변화한다.

연구자의 작품은 원형에 선이 집적되어 방향성을 이루며, 이것은 자아 변환의 순환적 구조를 내포한다 할 수 있다.

[도-84] Relationship : 간극 #1 작품에 보이는 감정의 흐름

또한, 감정이라는 것은 순간적으로 감지되며, 그 자체로 유동적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감정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모습을 작품으로 표현하고자 했다. [도-84]에서 빛의 움직임에 따라 서로에게 다른 그림자를 주어 작품에 생기는 그림자의 모양과 명도 차이를 달리하여 표현함으로써, 타자에 의해 변화하는 자아의 모습을 나타내고자 하였다.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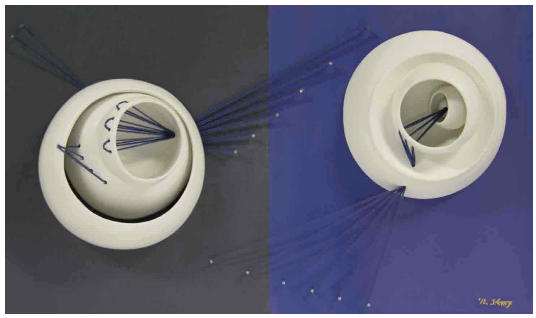
[도-85] Relationship : 간극 #1 작품에 보이는 타자와의 영역 구분

본인의 작업에 있어 프레임을 통한 화면의 재현은 외부의 기제에 대한 억압의 표출이다. [도-85]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작품의 표현 요소인 프레임은 정확히 5:5의 비율로 나누어 타자와 나의 영역이 구분되어있다. 인간관계에서의 공간은 사람의 내면세계에 존재한다. 이것은 존재의 실존에 끊임없이 작용하여 연결감과 소속감을 원하는 타인들과 형성하는 다양한 심리적 거리 속에서 이루어진다 할 수 있다.

각 영역에 있는 나와 타자의 모습은 관계 속에서 서로 교감하거나 반응하며 시간과 관계를 쌓아가듯 그 모습이 닮아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그 이면에 모체에서 생성되는 선의 연결 방법은 관계의 간극으로 인해 타자에게 결코 다다를 수 없음을 표현한 것이다. 또한 프레임의 색상에 있어 타자는 회색, 본인은 파스텔 톤으로 구분되어있다. 이는 본인의 삶에 영향을 주는 사회와 타자로 인해 본인이 겪게 된 불안한 감정의 표현이다. 혹여 내가 타인보다 가치있는 삶이 아닌가 하는 염려와 중압감을 역설적으로 표현인 것이다. 이는 스스로 타자에 의해 규정되어지는 내 모습을 바라보는 타자에게 있어 내 삶이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반박의 의미를 담고 있기도 하다.

연구자는 [작품-01], [작품-02], [작품-03], [작품-04] <Relationship : 간극 #1>을 통해 사회적 구성원로서 동일한 문화와 공간을 함께하는 타자와의 관계에 대한 추상적 느낌을 표현하였다. 연구자는 사회의 요구 실행을 위해 욕망은 억제되며, 어느새 삶의 모습은 타자가 기준점이 되었다. 타자와 분리된 공간에서 원활한 소통을 위해 타자와 유사하게 변환되는 자아와 표현과 더불어 더욱 연결되기 위해 소통을 시도하지만, 막연하게 느껴지는 관계의 거리감을 작품으로 전개하였다.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작품-01] 김은지, <Relationship : 간극 #1-1>, 70×40×10cm, 2018
[작품-02] 김은지, <Relationship : 간극 #1-2>, 70×40×10cm, 2018
[작품-03] 김은지, <Relationship : 간극 #1-3>, 70×40×10cm, 2018
[작품-04] 김은지, <Relationship : 간극 #1-4>, 70×40×10cm, 2018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선은 사물과 사물의 경계를 나타내고, 사물의 존재나 외곽을 표시하며 위치와 방향을 갖는다. 선의 기능은 선만으로 감정이나 추상적 이미지를 표현할 수 있는데 이때 사용되는 선은 본래의 기능은 없어지고 형을 표현하기 위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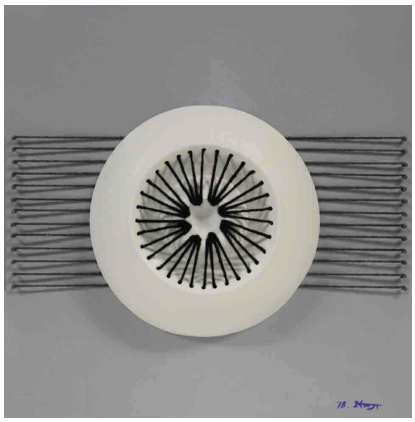
연구자의 작품에서 사용된 선은 본인과 타자 혹은 사회의 연결을 위한 매개체로 사용되었다. 서로의 소통을 넘어서 사회를 구성하는 요소의 표현이다.

[도-86] Relationship : 간극 #2 작품에 보이는 선의 방향성

연구자는 삶은 많은 시간을 관찰자의 처지에 있었다. 자신의 삶이지만 타자와의 관계에서는 이방인과 같은 느낌을 지니고 있었고, 이런 관계에 대한 고민에 사로잡혀 밤을 지새우기도 했다. 연구자가 느끼는 타자에 대한 이러한 상황을 프레임의 색상을 통해 드러냈다. 점점 밤이 깊어질수록 자아의 색상은 대비되어 더욱 간절해지는 소통의 욕망을 강조하고 있다.

연구자는 [작품-05], [작품-06], [작품-07], [작품-08], [작품-09] <Relationship : 간극 #2>를 통해 획일적 관계에 따른 삶의 태도에 관한 이야기를 전개하였다. 본인의 획일적 관계에 대한 고민은 결국 사회에서 타자로부터 선행되길 바라는 인정의 욕구 표현이다. 갈등하는 동안 관계에서 오는 불안은 선으로 시각화하여 다방면의 영향에 따른 저항감의 지속성을 표현하였다. 선은 상하좌우의 방향성을 갖고 일률적이고 팽팽하게 지속되지만 결국 타인과의 불완전한 소통으로 이어지고 있다. 연구자는 이 작품을 통해 획일적 관계의 소통은 의미 없는 순환임을 표현하고자 했다.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작품-05] 김은지, <Relationship : 간극 #2-1>, 50×50×14cm, 2018
[작품-06] 김은지, <Relationship : 간극 #2-2>, 50×50×14cm, 2018
[작품-07] 김은지, <Relationship : 간극 #2-3>, 50×50×14cm, 2018
[작품-08] 김은지, <Relationship : 간극 #2-4>, 50×50×14cm, 2018
[작품-09] 김은지, <Relationship : 간극 #2-5>, 50×50×14cm, 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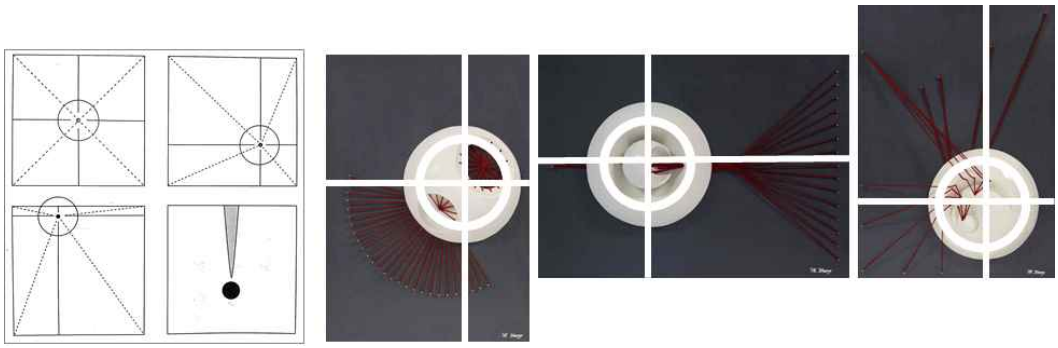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연구자는 평소 건축과 환경디자인에 대해 관심이 많다. 실제 작업에 들어가기에 앞서 학교 근처 광주천을 지나는데 교량의 디자인을 보고 지면과 다리를 어어주는 것이 무언가와 관계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그래서 연구자는 교량의 철근을 보고 작업물에 적용해야겠다는 생각에 실을 재료로 차용한 것이다. 교량에서 볼 수 있는 선의 일률적인 형태는 극적인 긴장감과 힘의 당김을 활용한 역동적인 조형미를 나타내기에 충분했다.

[도-87] Relationship : 간극 #3 작품에 보이는 선의 긴장감

[도-87]의 칼라트라바의 교량은 작품 속 기하학 형태를 긴장감 있게 배치하고 있다. 구조적으로 선의 표현에 있어 공간감을 부여하고, 이에 파생되는 특유의 긴장 미는 형태를 구현해내는 발상 적 측면에서도 연구자의 작업과 연관성이 있다. 그의 작품은 연구자의 작업과 형태적 · 물리적 관점에서 많은 공통점을 갖는데, 접합부의 나사는 선적 구조물에서는 점이 되며, 이는 평면 위가 아니라 공간 속에 선과 점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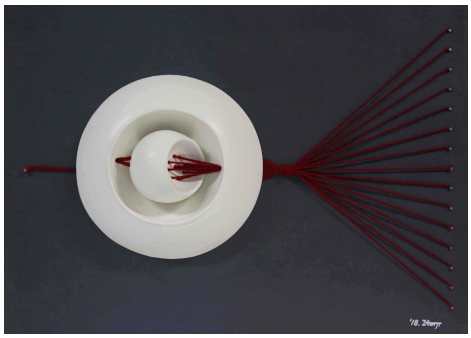


[도-88] Relationship : 간극 #3 작품의 원형의 배치에 따른 긴장감

점이 두 개 이상 배치되면 그들은 서로 긴장성을 가지고 관련을 하게 된다. 프레임의 중심에 배치한 두 개의 작품을 연속해서 배열하고 한 개는 면의 하단부에 위치 시켜 구심 쪽으로 긴장감이 이동하여 전체로서는 활동 감을 느낄 수 있다. 따라서 관계의 간극에서 벗어나려는 긴장감 있는 표현은 이를 통해 더욱 극대화 된다.

연구자는 [작품-10], [작품-11], [작품-12] <Relationship : 간극 #3>를 통해 타자와의 심리적 거리감 탈피를 위한 변화의 과정을 전개했다. 작품에서 보이는 원형은 가시적 욕망을 의미하며, 선의 방향성은 가중되는 상대적 불안을 표출해내고 있다. 욕망에서 비롯된 상대적 불안감은 내적자아와 외적자아의 경계를 더욱 강화하게 한다. 따라서 자신에 대한 억압은 더욱 강해졌지만, 결국 타자에게 다다르지 못한다. 이것은 개개인의 소통 · 사회 안의 소통에 있어서 불안정한 공간을 확대하고, 불안함에서 벗어나고자 내면의 변화를 꾀했지만, 그마저도 규정된 프레임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으로 연구자의 주체성 상실을 표현하였다.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작품-10] 김은지, <Relationship : 간극 #3-1>, 50×70×13cm, 2018
[작품-11] 김은지, <Relationship : 간극 #3-2>, 70×50×13cm, 2018
[작품-12] 김은지, <Relationship : 간극 #3-3>, 50×70×13cm, 2018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작품의 관념 분석을 바탕으로 제작된 <Relationship : 간극 #1, 2, 3>의 조형적 의미는 [표-08]을 통해 정리하였다.

[표-08] 연구자의 작품 <Relationship : 간극 #1 ,2 ,3> 조형적 의미 분석

작품명	프레임	자아	관계	의미	전시방법
간극 #1	공유적 관계	타자와의 형태적, 물리적인 동일시	소통상의 심리적 거리	타자와 나의 색상 대비로 불안 반박	눈높이에 따라 변화하는 자아의 모습과 스스로의 관계를 관조할 수 있도록 벽면 설치
간극 #2	획일적 관계	타자와의 소통 욕망	소통의 일률적인 의미없는 순환	소통에 대한 끝없는 고민	
간극 #3	획일적 관계	타자와의 간극 탈피 위한 강박	불안의 확장	불완전한 소통으로 인한 간극의 극대화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2. 관계의 성장

가. 작품의 관념 분석

현대의 인간은 진정한 자아의식을 통해 자신의 기준에 부합하는 삶의 추구보다는 '타자가 나를 어떻게 보느냐'에 기준점을 두어 끊임없이 타자로부터 호감, 칭찬, 경탄을 받고자 하고, 이와 반대로 미움, 혐오, 멸시를 받지 않고자 부단한 노력을 하며 살아간다. 그리고 일의 진행 과정보다는 결과를 자존감의 지표로 삼아 자신에 대한 이해는 배제된 채 타자에 의한 삶에 더욱 집중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인간은 내면의 창조적 반응보다는 외부의 반응에 민감해졌으며, 이로 인해 강박적 자아를 형성하게 되기 이르렀다. 진정한 자신의 모습은 숨긴 채 세상의 가치에 따라 자신을 맞추어 가는 압박 관계가 형성된 것이다. 그래서 인간은 더 많은 것을 알고, 소유하려 하므로 분주해진다. 이런 일련의 과정은 자신을 살피지 못하는 악순환이 계속되어 내면의 강박은 표출되지 못한 채 더욱 강화된다.

연구자는 어릴 적부터 꽤 순종적이었다. 연구자에게 있어 순종적이라 함은 본인의 의지보다는 타자의 의견에 더 따르는 성향을 의미한다. 말 잘 듣는 어린이가 착한 어린이라 생각했고, 본인은 늘 착한 어린이가 되어 부모님에게 인정을 받고 싶었다. 그래서 본인의 의사를 밝히기보다는 타자의 말을 잘 듣는 수동적인 어린이였다. 늘 남의 말에 잘 귀 기울이는 것이 올바르다 인식했고, 점차 의견을 제시하는 것 보다 듣는 것이 편해졌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본인의 의사를 확실히 내세우면 질타를 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이 생겼다. 남의 말을 잘 들어 주고 응해주는 사람이 착한 사람이며, 그것이 나에겐 선이 되었고, 의견에 대해 반박하는 것은 문제를 일으키는 불편한 관계가 된다는 생각에 수동적 사고가 자리하게 된 것이다.

이로써 연구자는 심리학에서 말하는 '착한 아이 콤플렉스'와 같은 양상을 나타내게 되었다. 이러한 특징들 속에는 착한 것 = 말 잘 듣는 것= 좋은 것, 착하지 않은 것 = 말 안 듣는 것 = 나쁜 것'으로 규정하는데, 이는 타자의 판단을 절대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적으로 내면화한 것이다. "착하지 않으면 사랑받을 수 없다"는 강하고도 두려운 믿음의 바탕에서 생성된 이 이론은 성장 과정에서 형성되며 어른이 되어도 이에 얽매이게 된다. 따라서 타자의 눈치를 보고 타자에게 집중하여 갈등 상황을 피하려 하며, 요구에 순종적으로 행동한다. 이후에도 자신의 행동이 착한지, 또 타자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확실한지 계속 눈치를 보며 확인한다.[108] 반면 이러한 상황은 본인의 느낌이나 욕구는 억눌러 무시하게 되는 전형적인 애착 불안의 양상을 취한다 할 수 있다.

연구자는 이렇게 변모한 자아 덕분에 타자와의 관계에서는 늘 피상적이었으며, 진실한 소통에 어려움을 느꼈다. 내가 솔직해지면 이 소중한 관계가 깨지지는 않을지 늘 불안했다. 불안을 느끼는 것은 외부적인 요소에 의해서라고만 생각했었지만, 나는 지난 시절의 내면을 들여다보며 이 불안의 근본적인 원인은 나에게 있었음을 인지하게 되었다.

연구자는 이러한 본인의 내적관계에 대한 자의식을 작품에 전개하고자 한다. 이전의 본인에게 강요된 사회 통념적 자아가 아닌, 자아에 관한 내면의 질문 속에서 본인은 나를 바라보는 것에 집중한다. 그에 따라 주체성이 상실된 관계는 더 이상의 관계 발전을 가져올 수 없음을 인식할 수 있었다. 자아와 타자를 동일한 시선을 통해 바라보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인지함에 따라 위선을 탈피하고자 한다. 이로써 연구자는 본인의 온전한 모습을 드러냄으로써 혼란은 해결되고 내면의 진정한 모색을 통해 타자와의 주체적 관계 형성이 가능한 관계의 성장을 작품에 표현하고자 한다.

[표-09]를 통해 3장에서 선행된 자의식 표출 표현의 작가 작품분석을 정리하였고, 이 작품 분석은 개인적관계 즉, 만남의 관계인 <관계의 성장> 표현에 있어 연구자의 작업 형성의 방향성을 도출하게 되었다.

108) URL : www.freehug atopy.com, /착한 아이 콤플렉스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표-09] 작가 작품 분석 - 자의식 표출 : 관념 도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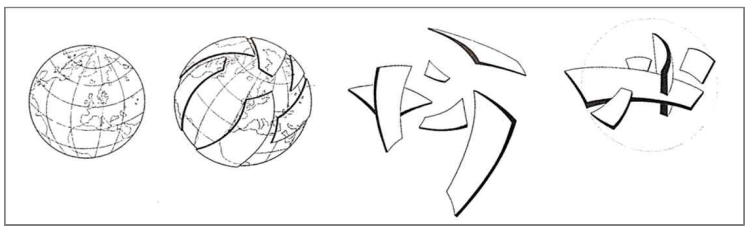
작품 / 작가	주제	소재	형태
안규철 (An Gyucheol)	사유와 성찰, 소통	일상 은유, 버려진것의 쓰임새 부여	설치
쿠사마 야요이 (Kusama Yayoi)	강박신경증, 치유	환영, 무한증식, 자기소멸,	회화, 공간 설치
루이스 부르주아 (Louise Bourgeois)	트라우마, 과거 기억의 객관화	내면의 복합적 감정의 형상화	공간 설치
펠릭스 곤잘레스 토레스 (Felix Gonzalez Torres)	소외감, 상실과 애도	삶과 죽음, 사라진 대상의 시각화	공간 설치
시오타 치하루 (Shiota Chiharu)	과거의 파편화된 기억, 관계성	무의식의 세계 연결, 부재한 것에 대한 존재성 부여	회화, 조각, 바닥 설치
연구자	개인적 관계에서의 애착불안, 만남의 관계	관계의 생성과 소멸, 주체성, 자아 인식	도자조형, 단상 위 설치, 공간 설치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나. 작품의 조형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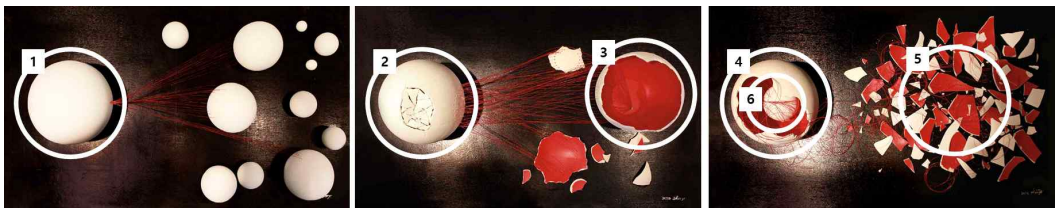
관계의 성장에 대한 작품은 <Relationship : 성장 #1, 2, 3, 4>의 4가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타자와의 소통 유형에 따라 다시 경험적 관계, 주체적 관계로 구분한다.

한 개인의 탄생 이전부터 타자는 존재하고 있다. 아이는 보호자와 동일시하고, 만남과 스침의 다양한 관계에서도 타자는 늘 함께한다. 이처럼 존재 이전부터 생성될 수밖에 없는 인간관계에서 더 주체적인 관계를 위해서는 어떤 것이 선행되어야 할지에 대한 의문에서 이 작업은 시작되었다.



[도-89] 자아의 표현방식 : 생성과 소멸의 과정을 담은 구의 인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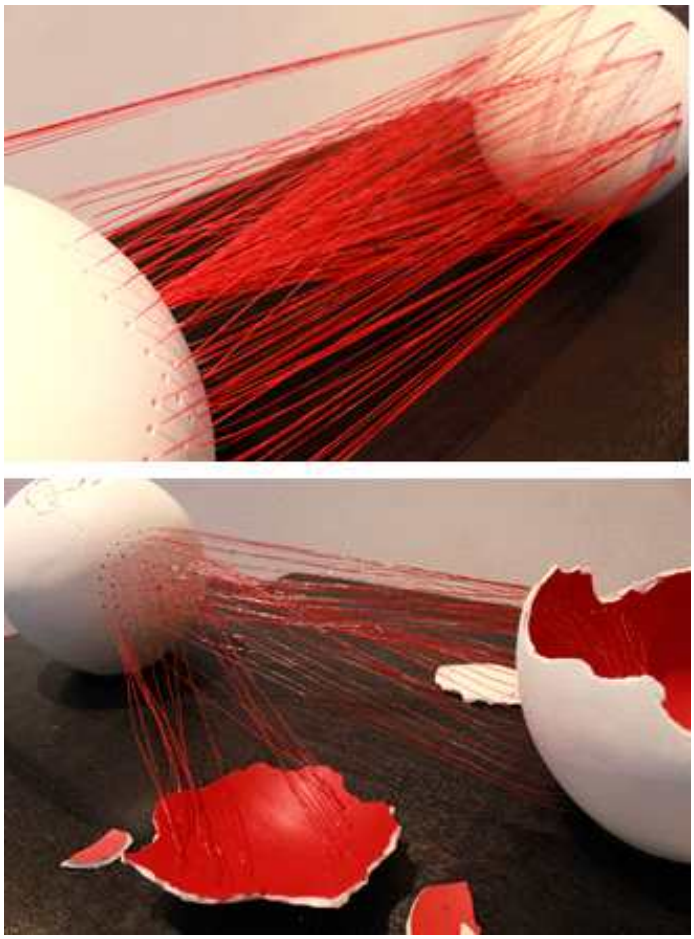
사회적 관계의 자아표현 매개체는 반구였다. 개인적 관계의 매개체는 구를 차용하여 보다 적극적인 소통 표현으로 관념적 대상구조를 함축적으로 담고 있다.



[도-90] Relationship : 성장 #1 작품에 나타나는 구의 순환성 및 인자 추출

[도-90]은 타자와의 관계 때문에 영향을 받은 자아의 순환 과정을 표현하고 있다. 구의 원형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1부터 5까지 파편화된 구의 인자를 확인할 수 있다. 인자는 다시 새로운 관계를 위해 생성되고 있음을 6을 통해 드러내고 있다.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도-91] Relationship : 성장 #1, 세부 이미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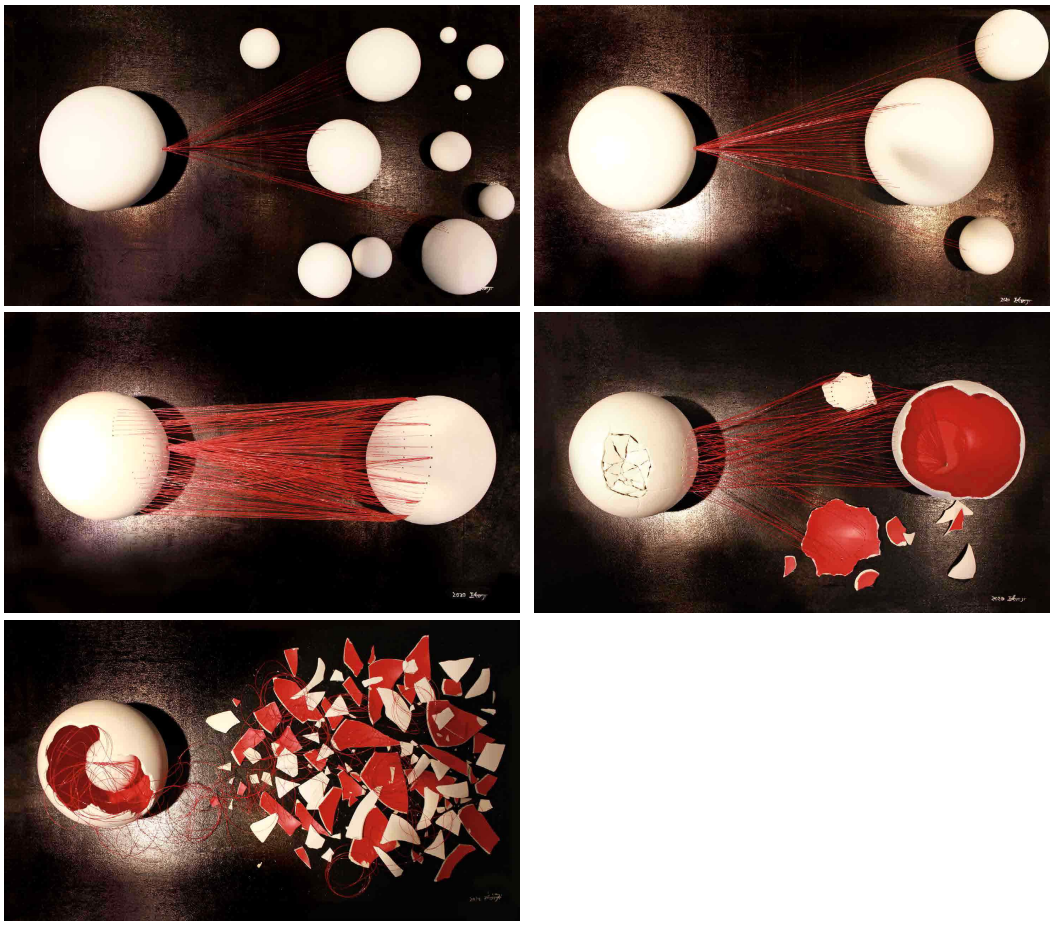
"중국의 당나라 전설에 의하면 인간은 태어날 때 단 한명의 진정한 소울메이트와 연결되어 그들이 어느 날 서로를 발견할 때까지 실이 그들을 연결해준다"고 한다. 진정한 사랑을 찾는 이 이야기는 하나의 긴 실가닥으로 연결된 개체들의 상호작용에 의해 얽히고설켜 그 모습이 드러난다.

만남과 이별에서 반복되는 관계의 공허함... 내가 이러한 관계맺음의 속성을 이해하게 된 배경에는 개인적 인간관계의 상실에 대한 경험일 것이다. 관계가 끝나면 또 다른 관계가 생성되리라는 것을 이미 체감했기에...

- 연구자의 작업노트 발췌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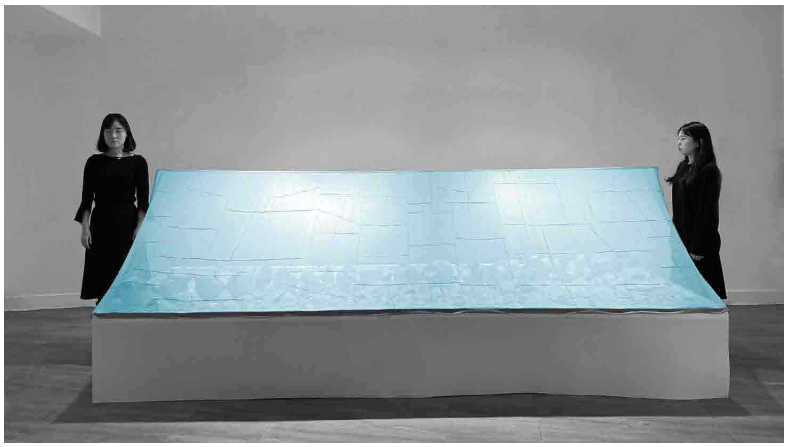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연구자는 [작품-13], [작품-14], [작품-15], [작품-16], [작품-17] <Relationship : 성장 #1>에 만남에서 헤어짐의 과정을 전개하였다. 타자보다 소극적으로 비춰지는 연구자의 모습은 관계 상실이 염려되어 타자를 향하지만 결국 그 관계는 불완전한 소통으로 끝이 맞이한다.



[작품-13] 김은지, <Relationship : 성장 #1-1>, 80×45×21cm, 2020
[작품-14] 김은지, <Relationship : 성장 #1-2>, 80×45×21cm, 2020
[작품-15] 김은지, <Relationship : 성장 #1-3>, 80×45×21cm, 2020
[작품-16] 김은지, <Relationship : 성장 #1-4>, 80×45×21cm, 2020
[작품-17] 김은지, <Relationship : 성장 #1-5>, 80×45×21cm, 2020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작품-18] 김은지, <Relationship : 성장 #2-1>, 360x120cm, 2020

[도-92] Relationship : 성장 #2-1, 세부 이미지

연구자는 [작품-18] <Relationship : 성장 #2-1>을 통해 관계가 상실된 상황을 묘사하고자 했다. 자신의 통제 불가한 슬픔에 직면한 개체는 불안을 야기하고, 슬픔을 더욱 증폭시킨다. 그래서 누군가의 슬픔은 주변에 전염되고 증폭된 슬픔으로 인하여 불안과 불완전함에 몸부림치게 된다. 이 작품은 관계 상실로 인해 존재의 불안에서 오는 슬픔을 파편화된 구를 이용하여 가시화하여 불안해하는 존재를 은유하고 있다. 하지만 관계 상실에 있어 느끼는 고독감과 외로움은 홀로 느끼는 것이 아닌, 이 프레임 안의 다양한 존재들처럼 누구나 경험하는 것이다. 깨진 형상으로 상처받은 존재의 표현을 했지만, 그 이면에는 새로운 관계를 위해 자신을 회복하는 모습을 표현하고자 했다.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해체된 조각의 재구성으로 새로운 의미를 담은 헤링가 / 반 칼스빅의 작품의 파편들은 자연, 성장을 은유한다. 작품의 표현 요소인 구조와 결집은 오직 근접한 관찰을 통해서만 명확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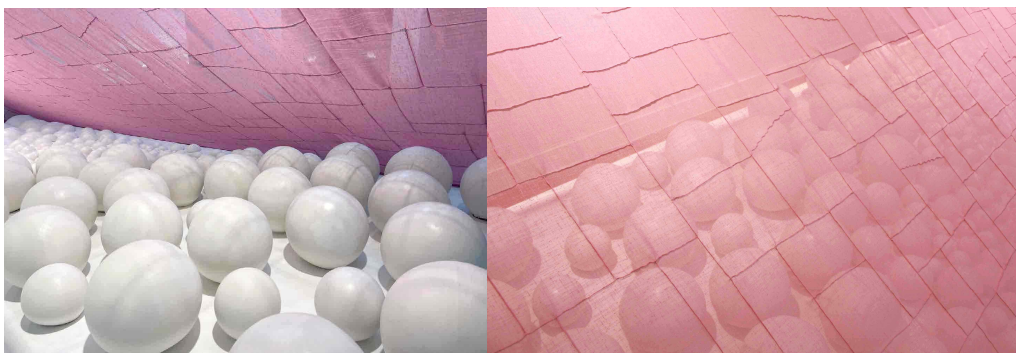
[도-93] Relationship : 성장 #2 작품 나타나는 교차와 중첩의 면 분할 및 그림자

연구자가 사용한 조각보에서도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다양한 크기와 형태의 조각천들을 규칙성 없이 자유롭게 배열한다. 천 조각을 모아 붙이는 과정을 우리의 기억이 시간과 공간의 단면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것과 같다. 우리가 경험하는 일상의 단편들은 바뀌고, 환상이 더해지며, 삭제되고, 이어 붙여져 기억으로 저장된다.

또한, 불규칙한 패턴으로 이어붙인 조각보는 천의 비침과 투명성을 특징으로 한다. 연구자는 섬유가 지닌 비침에 조각조각 붙이면서 자연스레 생기는 매듭 선을 우리의 의지와 무관하게 계속과는 타자와의 관계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소멸과 생성 부분의 프레임에 각각 사용된 천의 조각은 그 형태를 달리하고, 파생되는 그림자 역시 밀도분포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작품-19] 김은지, <Relationship : 성장 #2-2>, 360x120cm, 2020



[도-94] Relationship : 성장 #2-2, 세부 이미지

연구자는 [작품-19] <Relationship : 성장 #2-2>를 통해 관계의 상실에서 오는 슬픔과 불안은 회복되고, 삶의 새로운 관계를 생성하고자 다시금 변화한 본연의 모습을 표현하고자 했다. 파편화된 구의 인자는 원래의 자기 모습을 찾아가고 있다. 완벽한 원형으로 돌아온 각 개체는 관계의 끈에 얽히고설켜 군집을 이루고 새로운 네트워크를 형성한다. 연구자는 이 작품을 통해 관계는 결코 나의 의도와 상관없이 생성과 소멸을 반복하고 있음을 말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보이지 않는 관계의 모습을 가시화하였다. 인간에게 수없이 연결된 관계의 끈을 관람자가 좀 더 면밀히 관찰하도록 유도하였다.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도-95] Relationship : 성장 #3, 세부 이미지

연구자는 타인과 관계에서 타자 상실에 대한 불안이 아닌 본인에게 집중하는 것이 이상적 관계임을 깨달았다. 앞으로 관계에서는 본인이 주체가 되어 어떤 관계를 맺을지 스스로 결정하려 한다. 우리는 서로 다른 개별적 주체이기에 자신을 타인에게 맞춘다는 것, 타인이 나에게 맞춘다는 것은 처음부터 어려운 것이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에 대한 바른 이해가 필요하다.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관계에 대해 깊이 있는 고민이 선행되었을 때 비로소 가능할 것이다.

- 연구자의 작업노트 발췌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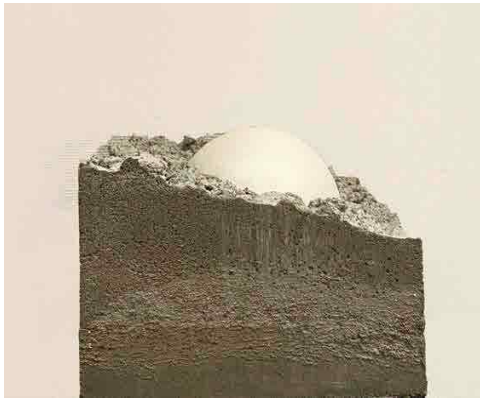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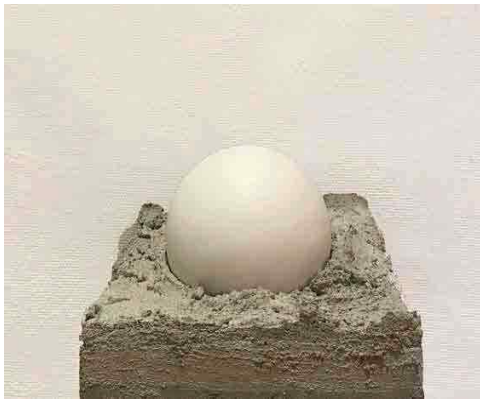
[도-96] Relationship : 성장 #3 작품 나타나는 규정화된 틀에서의 자아 탈피 과정

애니쉬 카푸어의 <보이드의 장>은 서로 다른 특성을 보인 이질적 요소들의 공존을 작품에 표현하고 있다. 연구자 역시 이질적 요소를 선정하여 작품에 표현하고자 했는데, 그 재료는 시멘트로 회색빛 도시와 연관이 있다. 현대의 도시는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는 표면적인 풍요의 외양과는 달리, 그 이면에 가공할 억압과 지배 구조를 숨기고 있다. 이러한 사회가 원하는, 또는 타자가 규정하는 시선에 각인된 통합적 관점의 삶의 실체이다. 시멘트 더미에서 빠져나와 연구자는 본연의 모습이 되고 싶었다. 소극적인 삶의 태도를 일관했던 본인에게 나를 드러내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거칠고 단단한 시멘트 안에 깨지기 쉬운 도자의 형상은 불안해 보이지만 조금 더 성숙한 관계를 위해 주체적인 자아를 천천히 보여주려 한다.

연구자는 [작품-20], [작품-21], [작품-22], [작품-23], [작품-24], <Relationship : 성장 #3>을 통해 인간의 이중성을 나타내고자 했다. 자신이 속한 세계로부터 자유를 추구하면서 세계에 의존하려는 속성을 가진 인간은 자신의 불안한 위치에서 기인하는 불안, 공포, 슬픔 등의 감정에 빠지기 쉬운 존재이다. 본인은 사회 혹은 타자의 테두리 안에서 편안함을, 하지만 또 다른 시각에서는 불편함을 느낀다. 이런 규정된 틀 안에서 깨고 나와야 진정한 본인에 대한 이해가 가능하다. 본질을 알고, 주체적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그 어떤 시선에 갇힌 상태가 아닌, 온전한 본인을 드러내야 가능할 것이다.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작품-20] 김은지, <Relationship : 성장 #3-1>, 30x30x22cm, 2020
[작품-21] 김은지, <Relationship : 성장 #3-1>, 30x30x22cm, 2020
[작품-22] 김은지, <Relationship : 성장 #3-1>, 30x30x22cm, 2020
[작품-23] 김은지, <Relationship : 성장 #3-1>, 30x30x22cm, 2020
[작품-24] 김은지, <Relationship : 성장 #3-1>, 30x30x22cm, 2020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헨리 무어의 <현이 있는 구상 - LH207>은 실험적인 현악기를 형상화한 것이다. 연구자는 이 작품을 통해 현악기가 인간관계를 대변하는 것 같았다. 연구자의 평소 취미는 바이올린 연주로 바이올린을 켜기 전 필수적으로 해야 하는 일련의 과정은 바로 현의 조율이다. 아무리 좋은 현악기도 오래도록 버려두면 줄이 느슨해지고, 이런 악기로는 결코 좋은 연주를 할 수가 없다. 그래서 훌륭한 연주가는 수시로 악기를 조율하면서 최적의 소리를 내기 위해 끝없는 반복을 계속하는 것이다.

[도-97] Relationship : 성장 #4 작품 나타나는 조율 표현

연구자는 인간관계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었다. 나와 상대의 이해가 수반되고 거기에 적절히 조율된 관계는 상대의 마음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더 세밀한 소리가 들려올 수 있을 것이다. 모든 인간은 같을 수 없기에 서로에 대한 이해는 반드시 필요하다. 우리는 타인과 관계의 사이에서 받았던 감정들이 타인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닌, 불협화음으로 인한 본인 스스로 느끼는 감정이었다. 조율이 잘된 우리의 관계는 결국 서로에게 비로소 이상적인 관계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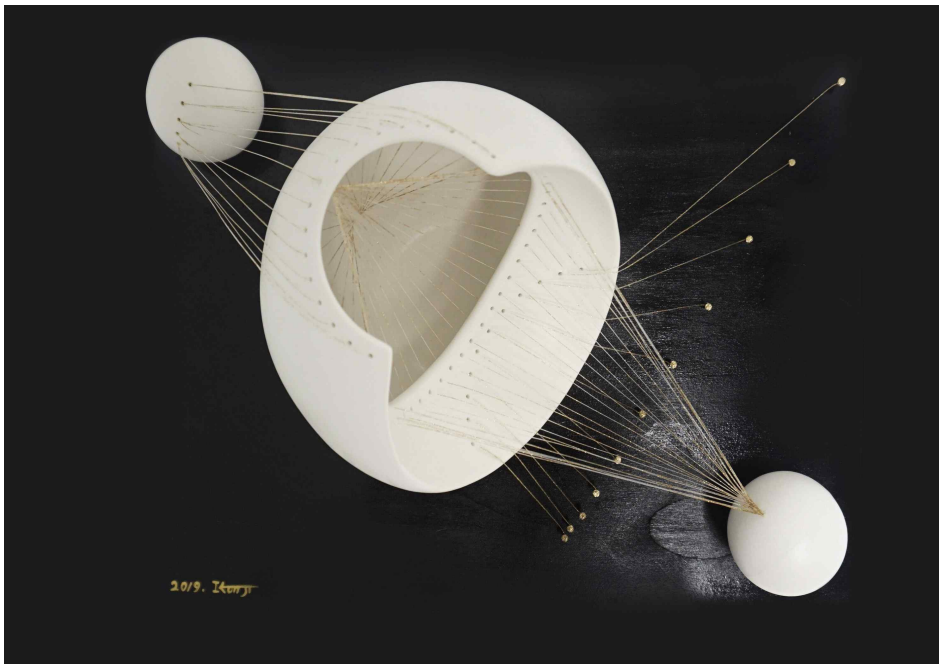
이렇듯 연구자는 타자와의 관계를 시작하고 형성하면서, 소통보다는 그 관계가 깨지지 않는 것에 더 집중했었다. 감정의 조심스러운 표현 방법은 결국 소통의 부재로 인해 우려했던 결과가 늘 뒤따르게 되었다. 이런 연구자의 개인적 애착 불안에서 비롯한 관계 상실은 생성과 소멸의 반복으로 인한 자기성찰로 이어져 비로소 주체적 자아를 형성할 수 있었다. 이런 연구자의 타자와의 관계 맺기 일련의 과정을 관계의 성장을 통해 표현하고자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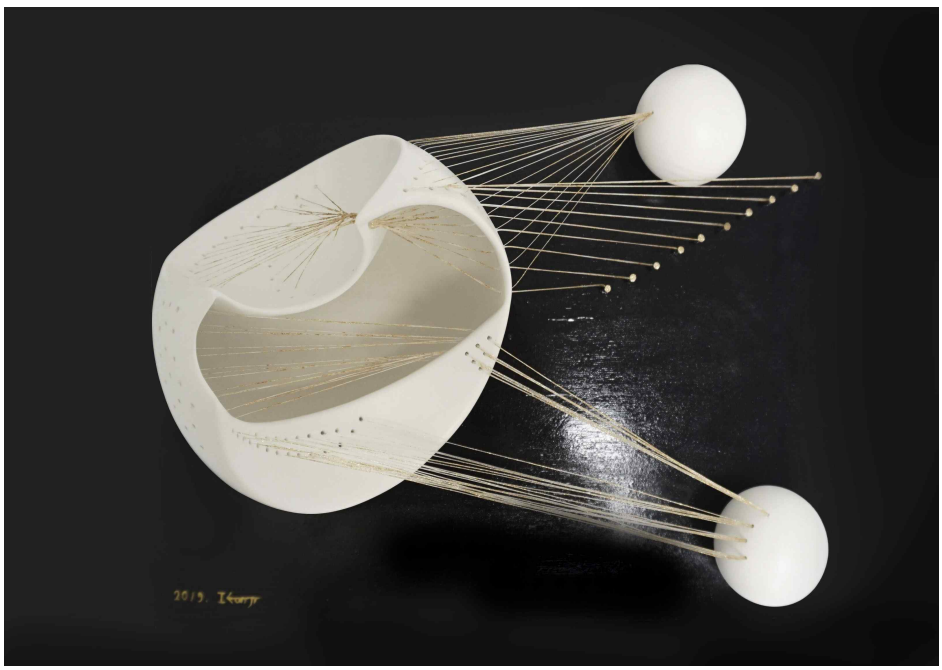
[도-98] Relationship : 성장 #4 작품 나타나는 주의를 집중시키는 공간 속의 원형

관계의 성장을 통해 주체적 관계 맺기를 표현한 이 작품은 낚싯줄 사용으로 핀셋을 이용한 세밀하고 정교한 작업 과정을 거쳤다. 따라서 보는 이로 하여금 주의 깊은 관찰을 유도하기 위해 아크릴 박스라는 공간 속에 원형을 담아 주의를 집중시키고자 했다.

연구자는 [작품-25], [작품-26] <Relationship : 성장 #4>을 통해 성장하는 관계를 표현하고자 했다. 타자로부터 동요된 자아의 모습은 앞서 보았던 타자로 인해 변형된 상처가 아닌, 상대와의 깊이 있는 관계로 인해 모체는 자연스레 변주된 형상이다. 또한 여러 감정이 수시로 거듭되는 삶의 형태를 본인과 타자에 줄을 연결하여 켜켜이 쌓아 마음의 악기를 은유했다. 이를 통해 타자와의 관계는 적당한 조율이 함께한 진정성 있는 소통의 표현으로 관계의 성장을 의미한다.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작품-25] 김은지, <Relationship : 성장 #4-1>, 40×30×22cm, 2019
[작품-26] 김은지, <Relationship : 성장 #4-2>, 40×30×22cm, 2019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작품의 관념 분석을 바탕으로 제작된 <Relationship : 성장 #1, 2, 3, 4>의 조조형적 의미는 [표-10]을 통해 정리하였다.

[표-10] 연구자의 작품 <Relationship : 성장 #1, 2, 3, 4> 조형적 의미 분석

<table>
<tr><th>작품명</th><th>프레임</th><th>자아</th><th>관계</th><th>의미</th><th>전시방법</th></tr>
<tr><td>성장 #1</td><td>경험적 관계</td><td>타자와의
관계 상실 불안</td><td>상호작용</td><td>소통의 적극적
변화 양상</td><td rowspan="4">깊이있는
관계의
변화 과정을
관찰 유도 위한
80cm 높이의
단상 위 설치</td></tr>
<tr><td>성장 #2</td><td>경험적 관계</td><td>타자와의 관계
소멸 및 생성</td><td>비의도적
관계 전개</td><td>천의 매듭선
이용한
원초적 소통</td></tr>
<tr><td>성장 #3</td><td>주체적 관계</td><td>주체성 회복</td><td colspan="2">부재료(시멘트) 사용으로
거친 사회의 틀 안에서
자아 획득</td></tr>
<tr><td>성장 #4</td><td>주체적 관계</td><td>타자와의 융화</td><td>조율을 통한
이상적 관계</td><td>진정성 있는
소통</td></tr>
</table>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3. 관계의 본질

가. 작품의 관념 분석

프롬은 행동 동기의 발생적 측면에서 인간이 관계 속에 살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한다. 인간이 태아 상태일 때는 어머니와 자연적 일체감이 있었지만, 세상에 나오면서 어머니로부터 분리 · 격리되며 불안감을 경험한다. 이러한 불안감으로부터 해방되기 위해 재결합하려는 '관계의 욕구'가 강하게 드는 것이다. 그래서 인간은 격리감, 불안감으로부터 해방되기 위해서 전 생애를 거쳐 관계의 욕구를 충족시킨다고 본다.[109]

인간은 근본적으로 관계를 위한 존재로 완성되었다. 하지만, 이것은 모험을 의미하기도 한다. 타자와의 관계에 있어 소통하기 위해서는 아무런 위험도 없는 숙지의 세계에 빠져서는 안 되며, 미지의 세계로 뛰어들어야 한다. 하지만, 이런 모험에는 위험이 따른다. 때로는 관계의 이전으로 되돌아가 상처받은 자아를 위로하고 싶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관계의 모험을 견디지 못해 스스로 고독에 빠지기도 한다. 하지만, 타자에게 관심을 가진다는 것은 자기 자신만의 세계에만 안주하지 않고 타인의 세계에 가담하여 더 넓은 세상을 보는 지평을 넓히는 것이다. 이로써 인간은 미지의 세계에 스스로 연결하고자 하는 용기를 가질 수 있게 되고, 사물을 인식하는 데도, 가능한 영역에서 자기를 초월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용기를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세계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자신과 관계한다는 것은 본인의 존재를 인식하는 것을 의미한다. 자신의 욕구를 발견하며, 자신의 억압되었던 문제들을 인식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자신에게 솔직해지며, 더 나아가 본인 내면에 대한 성찰이 가능하다. 자기 자신과의 관계가 관계에 있어 기본적으로 선행되어야 하는 이유는 자신과 온전히 관계하지 않으면서 타자와 바람직한 관계를 형성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연구자는 본인의 자아를 인식함에 있어 필수 불가결한 진정성 있는 관계의 모습을 관계의 본질이라 생각하고 작품을 통해 표현하고자 한다.

---

109) 손정훈, 「헨리 나우웬의 실존주의적 관계 모델 연구」, 서울신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9, p.19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나. 작품의 조형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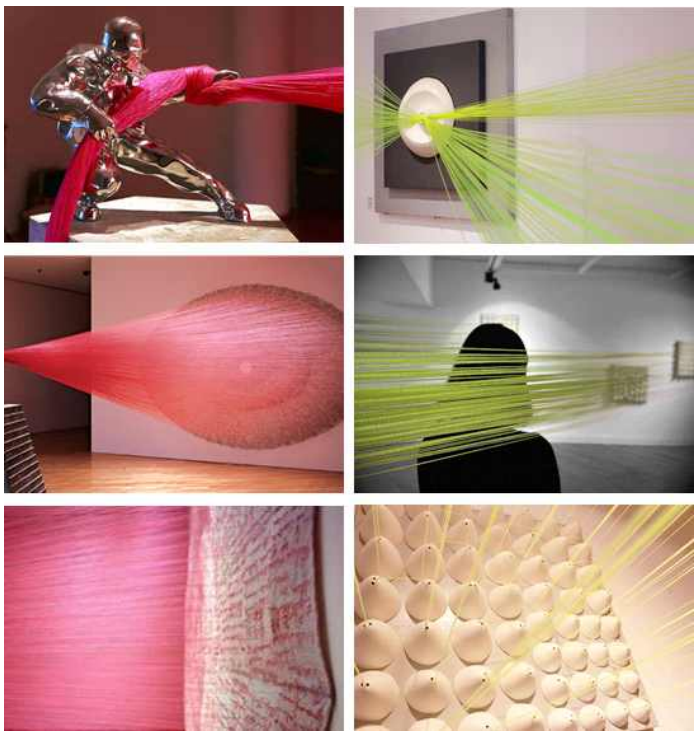
관계의 본질에 대한 작품은 관계의 간극과 관계의 성장을 거쳐 연구자가 관계의 본질을 규정하는 데 있어, 관계의 공존과 본질로 구분하여 작품으로 표현했다. 관계에서 비롯된 과거의 기억은 단순한 추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과거와 현재를 연결함으로써 현실의 상황을 재구성하고 새로운 시각에서 현재의 재해석이 가능하다. 하나의 유기체를 이루는 세포들이 새롭게 결합하면 기존의 유기체와는 다른 특성을 가지는 것처럼 새로운 존재를 형성으로 이어져 기억은 현재의 본인이라는 존재를 새롭게 구성하는 세포의 기능을 하고 있다.

[도-99] Relationship : 공존, 연출 이미지

기억은 파편이다. 분쇄되고 혼돈된 흔적을 합치는 것이 기억이라면, 기억의 흔적을 돌아볼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사고에서 작품은 출발한다.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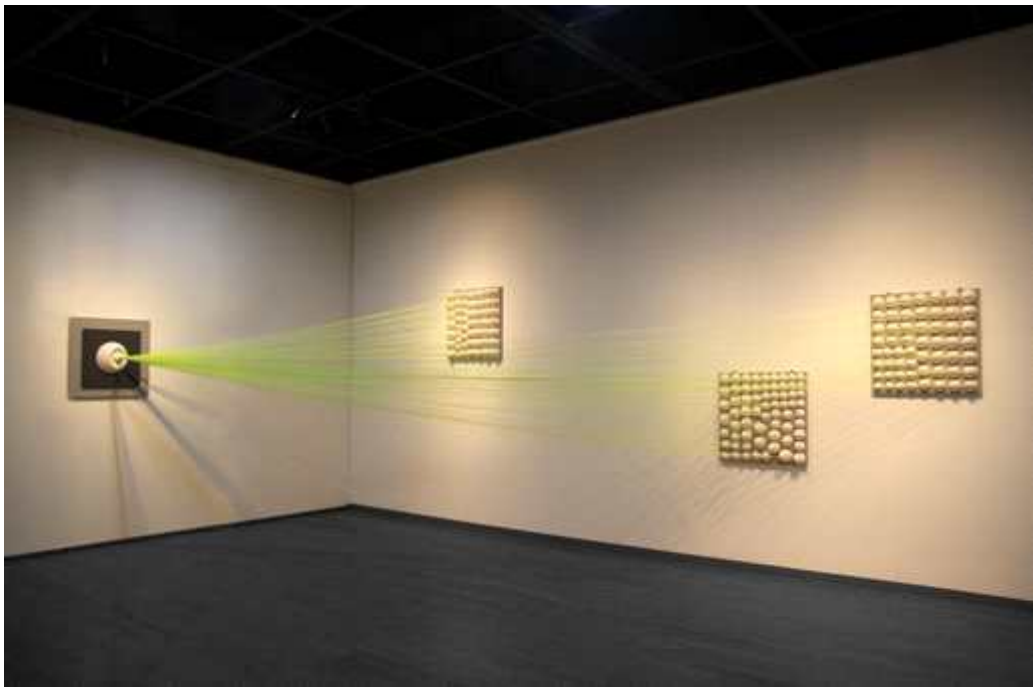
서도호는 낙하산병을 통해 개인의 운명과 정체성에 관해 이야기한다. 결국, 사람은 혼자 존재할 수 없는, 개인의 정체성은 인연에 의해 만들어진다는 관계의 표현을 실을 통해 구체화하였다. 연구자의 작품 역시 이와 맥을 같이한다. 서도호의 낙하산병은 연구자의 작품에서는 자아 표현으로, 실은 과거의 인연들, 마지막으로 서도호 작품 프레임에 쓰인 사람의 이름은 표현은 연구자는 기억을 소환하기 위해 원형의 기물을 잡아 당겨져 뾰족하게 올라온 형상으로 도식화하였다.



[도-100] Relationship : 공존 작품에 나타나는 정체성 표현

결국, 이 작품은 자아와 타자의 '관계', 그 '사이'에서 지속해서 호흡하듯 영향을 주고받는 열린 공간을 만들고 있다. 삶을 살아감에 있어 연구자가 겪어온 관계에서 파생되는 모든 파장은 서로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내 삶을 구성하며, 이는 결국 연구자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관계의 공존을 생성하고 있다.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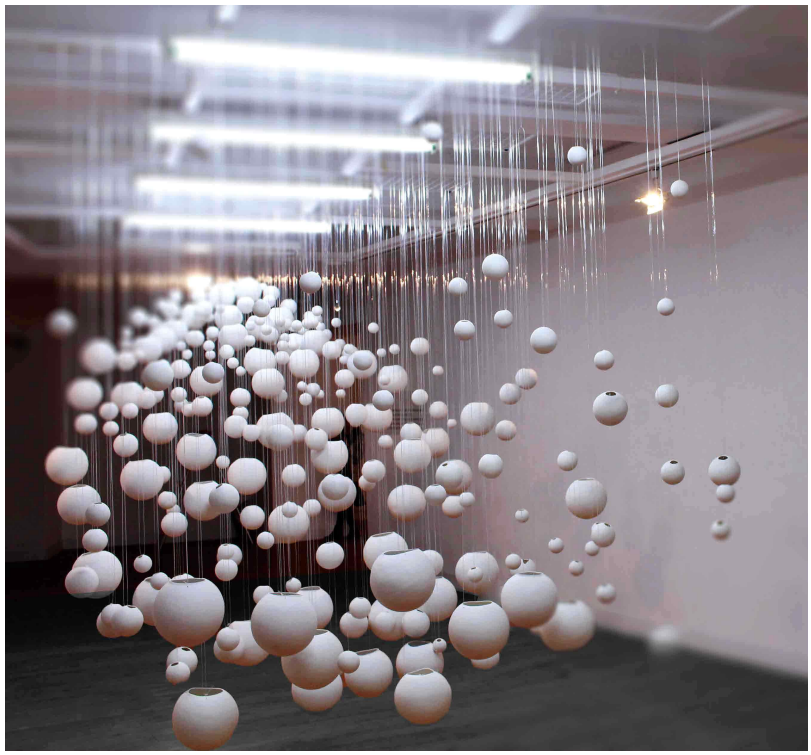


[작품-27] 김은지, <Relationship : 공존>, 가변설치, 2020

연구자는 [작품-27] <Relationship : 공존>에서 자아 인식을 위해 프레임 안의 이미 지나간 과거의 기억을 끄집어내고자 했다. 소환된 과거의 관계는 때론 상처가 되어 외면하고 싶었지만, 결국 하나하나가 나를 만드는 요소 임의 표현이다. 연구자가 체득한 과거의 경험은 현재로의 단순한 연결이 아닌, 삶에 있어 순환적 구조를 취하고 있기에 과거가 나는 곧 현재의 나를 형성함을 의미한다. 동시에 과거와 현재는 고정적인 형태가 아닌 변화 가능성을 가지고 유기적으로 변화하여 삶 전반에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내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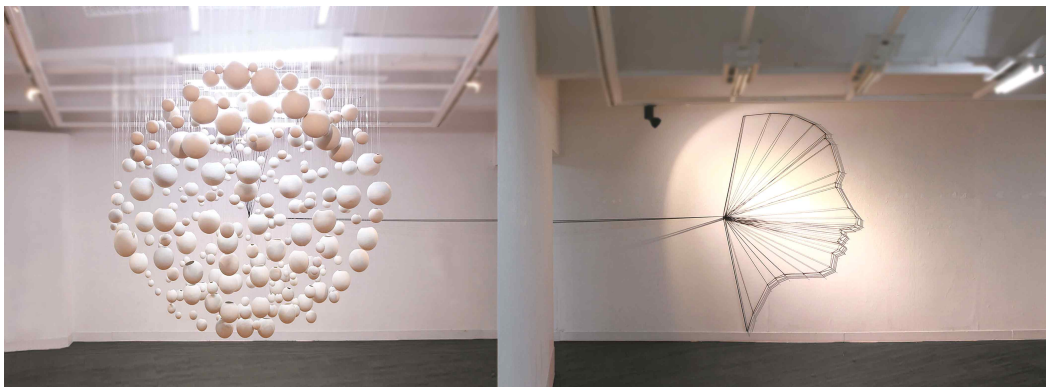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도-101] Relationship : 본질, 연출 이미지



[도-102] Relationship : 본질, 세부 이미지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작품-28] 김은지, <Relationship : 본질>, 가변설치, 2020

연구자는 [작품-28] <Relationship : 공존>에서 관계의 형상 작품을 통해 최종적 작업 의도를 전달하고자 한다. 본인은 동일하지 않은 타자를 통하여 세상을 더 넓게 바라보고, 그로 인해 더 많은 경험을 하였다. 그리고 타자와의 관계를 통해 갈등하고 공유하며 나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었다. 연구자가 체득한 유기적 관계는 살아있는 유기체가 매 순간 생성 · 소멸의 과정을 겪듯, 변화의 과정을 표현하고 있다. 관계의 본질에 대한 형상은 정적으로 형태 속에 역동적인 균형을 담아 전체적인 조직과의 조화 속에서 균형을 추구하였다. 이는 전체와 부분의 연관이라는 관점에서 인간이 살아가며 관계를 맺는 모든 것들은 결국 나를 형성하며 완성해가는 매개체로 인식함의 표현이다.

이 설치 작품은 본인의 경험뿐만 아니라 관객과 하나가 되는 표현으로써, 연구자는 관객과 같은 시선에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각각 다른 크기의 구는 존재를 형성하는 모든 관계를 의미하기에 전시장에서의 관객은 이 설치작품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능동적 참여를 유도한다. 또한, 본인을 대면하는 경험은 작품 안으로 전이되어 이해와 성찰을 돕도록 한다.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도-103] Relationship : 본질, 연출 이미지

연구자가 경험한 관계를 통해 궁극적으로 제시하고자 하는 것은 주체적 자아 형성을 위해 주체가 타자에게 함몰되거나 타자를 거부하지 않고 이를 인정하고 수용하는 것이다. 연구자는 이처럼 다양한 관계에서 오는 존재 방식을 나의 삶의 일부로 수용하고, 그에 대한 삶의 성찰을 통해 자아를 인식하려 한다. 나를 만드는 성장하는 자아는 특히 타자와의 부단한 소통의 시도를 통해 이루어지며, 이는 결국 나의 존재가치를 정립하게 한다.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작품의 관념 분석을 바탕으로 제작된 <Relationship : 공존, 본질>의 조형적 의미는 [표-11]을 통해 정리하였다.

[표-11] 연구자의 작품 <Relationship : 본질> 조형적 의미 분석

작품명	프레임	자아	관계	의미	전시방법
공존	관계의 공존	자아 성찰	과거와 현재의 연결	인식 변화의 가능성	능동적 관객 참여를 위한 설치
본질	존재적 인식	완벽한 자아	유기적 관계	공감, 소통, 전이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제 5장

결론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제 5장 결론

본 논문은 연구자 작품의 주제를 타인과의 관계에서 파생되는 감정의 형태인 '관계의 형상'으로 정하고 도자의 표현형식으로 어떻게 조형화하는가에 관한 방법론 연구이다. 사회 속에서 서로 다른 타인과 관계하며 살아가는 우리는 그 안에서 다양한 감정을 느낄 수 있다. 그중 연구자가 집중한 불안이라는 감정은 심리적으로 부담과 더불어 소외감이나 갈등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타인과의 관계 형성에 있어 보편적인 기분 중 하나인 불안은 연구자에게도 곳곳에 내재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본 논문의 관계와 불안에 대한 연구는 본인의 삶과 내면에 대한 통찰을 가능하게 해주었다. 인간으로서 고독, 상처, 욕망, 절망 등의 심리적 갈등이 불안 심리로 작용하여 연구자의 내면을 구성하고 있으며, 자전적 경험과 고찰에서 도출된 요소들은 본인 작업의 중요한 동기가 되어 작업에 반영되었다.

본 논문의 전개 방식은 연구 주제인 관계와 불안에 대하여 심리학적으로 고찰하고, 현대미술에서 반영된 표현 요소 분석으로 관계의 관념적 표현과 형상적 표현을 주제로 한 선행작가의 작품을 분석하고, 연구자 작품에 대한 분석으로 전개했다.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관계와 불안에 대한 심리학적 고찰로 주체 형성의 관계 이해를 위한 관계적 존재로서 무한히 연결된 관계의 영향력을 인간 실존의 본질적 · 필연적 측면인 관계성에 관해 기술하였으며, 그에 따른 관계 유형을 만남의 관계와 스침의 단계로 구분 지어 삶의 문제와 관계 문제에 관해 기술하였다.

실존적 관계철학에서 마틴 부버는 인간의 본성은 관계를 통해서 획득되었다는 것과 다른 사람들과 관계하지 않고는 실존할 수 없는 것이 인간존재의 본질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는 참된 인간관계인 나-너의 관계와 타자 이해의 원간격에 대해 제안하였다.

현상학적 대상관계이론에서 멜라니 클라인은 인간 정체성을규정하면서 관계에서 비롯되는 감정은 단지 피상적인 것 뿐만 아니라 기저에 깔린 내면의 심리도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함께 작용하여 타자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근원으로 보고 인간의 존재에 대해 깊은 내면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주체 관계의 불안에서는 존재의 정체성 인식을 위해 정신분석학과 철학에서 보는 불안의 개념을 고찰하였다. 프로이트는 불안을 무의식이라는 내적 충동의 영향에 의해 생기는 것과 그에 따른 방어기제에 한 불안의 원인론에 대해 서술하였고, 현대인이 지닌 불안의 양상에 대해 알아보았다. 정신적 결여에서 도출된 불안은 사회적, 정치적 상황에서 비롯되었다고 여기지만, 이는 인간에게 내재된 특정 경험을 근본 원인으로 보고, 내면의 성찰로 불안을 통한 주체적 자아 형성이 가능함을 기술하였다.

3장에서는 위의 연구를 토대로 관계에 대한 현대미술에 반영된 표현 요소를 알아보았다.

먼저 관념적 요소로서 사회에서 내재된 억압을 표현한 서도호, 웨민쥔, 에드워드 호퍼, 로버트 롱고, 조지 시걸, 자의식 표출요소로서 타자와의 개인적 관계를 주제로 한 작품을 선행한 안규철, 쿠사마 야요이, 루이스 부르주아, 펠릭스 곤잘레스 토레스, 시오타 치하루를 선행작가로 제시하였다. 작가들이 어떠한 시선을 가지고 자신의 메시지를 전달하는지, 작품에 내재된 심상에 대한 연구는 연구자 작품의 형성 배경에 근원이 되었다.

형상적 요소로서 자아정체성의 표현 매개체로 구를 선정하고 막스 빌, 신한철, 윤솔, 콘스탄틴 브랑쿠시, 이수경, 올라서 엘리아슨 작품에 나타나는 조형 요소가 지닌 유기성과 본질성을 도출하고, 상호 관계성의 표현 매개체로 선은 산티아고 칼라트라바, 헨리 무어, 바바라 헵워스, 서도호, 박선기, 재닌 안토니의 작품에 나타나는 순환성과 존재성을 도출할 수 있었다. 또한 표현 확장성으로 점토 사용의 은유성 표현의 방창현, 한예규, 켈리 오브라이언의 사례를 알아보고, 커스텐 스팅글, 애니쉬 카푸어, 헤링가, 반 칼스빅의 작품에서 나타나는 타 재료와의 접목을 통한 융합성 표현의 사례를 고찰하여 작품에 활용된 이미지와 오브제, 그리고 표현 형식들을 파악하면서 그들의 예술세계를 구축하는 과정과 작품이 담고 있는 개념에 대하여 살펴보고 자아표현과 관계 표현의 개연성에 대해 당위성 제시하였다. 이렇듯 연구자는 선행작가의 작품을 통해 관계와 불안을 작품에서 어떻게 다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루고 표현하는지, 그리고 작품 개념과 관람자와의 연결고리를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또한 선행작가들의 조형적 요소와 공간설치에 관한 연구를 통해 본인 작품의 형식적 가능성을 타진해 보았다.

4장에서는 연구자의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제작한 작품에 대한 철학적 · 심리학적 · 미술사적 배경을 조명하여 자신의 구체적인 사고를 말하고자 함에 있다. 본인은 현시대에 존재하는 사회적 구성원으로서 자신과 타인 그리고 사회와의 관계에서 파생되는 감정에 관해 이야기 한다. 연구자가 작업을 통하여 말하고자 함은 주체적 자아 형성이 안 되어있음에 관계에서 늘 불안함으로 귀결되며, 관계의 중요성 속에서 진실한 소통을 통해 본인의 자아 인식이 가능함과 동시에 건강한 인간관계를 구성할 수 있음에 있다.

연구자는 관계의 형상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경험한 불안 심리와 표현 형식에 따라 세 가지로 나누어 분석하였는데, 이는 '관계의 간극', '관계의 성장', '관계의 본질'이다. 연구를 진행하면서 본인의 삶에서 경험한 감정은 도자 표현을 통해 구체화 할 수 있었다. 막연했던 내면의 불안에 대해 고민하고 성찰하여 그 의미를 파악하는 과정은 본인이 직면한 또는 겪었던 불안에 대해 깊이 있게 성찰하는 시간이 되었다. 그에 따른 본 연구와 작업의 결과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 연구자는 타자와의 관계에서 부정적 부분으로 볼 수 있는 불안을 작품 활동을 통하여 긍정적인 방향으로 끌어낼 수 있었다. 연구자에게 창작행위는 삶에 존재하는 불안의 의미를 끊임없이 탐구해 나가는 경험의 과정이 되었다. 그리하여 연구자의 삶에 대한 감정을 구체화하여 내면의 불안을 직접적 또는 은유적으로 표현함으로써 예술로서 승화시켰다. 그 결과 연구자는 추상적으로만 존재해 온 관계를 시각화함에 따라 본인의 작품 세계에 새로운 가능성과 방향성을 열어주고, 삶에 대한 감정을 회복시키는 정서적 매개체로서의 도자 표현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관계에서의 불안은 지극히 정상적인 심리상태로 그 자체를 받아들이고 이해하려는 마음가짐은 본 연구자의 내면에 대한 이해로 이어져 자아 성장을 이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끌어 낼 수 있었다. 그리고 그 불안의 경험은 예술가로서 작품 활동의 원천이 되었고, 연구자 내면에 대한 진솔한 성찰은 결과적으로 본인의 존재성과 가치에 대해 물음하고 고민하는 의미 있는 경험이 되었다.

셋째, 연구자 작품의 표현 재료는 도자작품으로써 점토 뿐만 아니라 실, 천, 못, 시멘트, 목재 등 여러 요소가 혼합되어 있다. 이는 타 재료의 융합을 통해 도자예술 영역의 확대를 시도하고, 또한 연구자의 심리를 담은 작품은 자아 성찰적 경험의 기회를 만드는 예술적 실험으로서 가치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는 타자와의 관계를 통한 감정의 은유에 있어 비가시적 요소인 자아와 관계를 형상적으로 조형화한 방법론 제시로 타자로 인해 변화하는 자아의 유기적 표현으로 도출된다. 연구자가 다루는 주제인 관계의 간극, 관계의 성장, 관계의 본질의 작품 표현을 통해 연구한 결과, 일련의 예술 표현은 결국 사회적 인간으로서 타자와의 관계에 있어 원활한 소통을 위한 것이다.

연구자에게 있어 작업은 자신의 삶에서 본디 모습을 경험하고 진정한 자아를 찾아 발전할 기회를 만나는 것으로 생각한다. 연구자의 작품을 바라보는 관객 역시 본인이 마주한 심리적 상태를 서로 나누면서 연구자가 추구하는 보다 발전된 삶과 실존적 문제들에 대해 사유하는 경험을 유도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그들 자신의 인식을 환기할 수 있는, 그래서 자신의 실제 모습을 마주 볼 수 있는 소통의 도구로의 도자의 가능성을 기대하는 것이다.

오늘날 도자예술 분야는 실용성을 넘어 개념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그로 인해 도자예술은 실용성과 조형성을 나누는 선택의 문제를 넘어 그 영역이 서로 융합되고 확장되었다. 본 연구자는 도자예술이 우리 삶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 그리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수년간 고민하였다.

연구자는 본 논문의 주제인 관계의 형상화라는 심리적 상황을 도자와 연결 지어 조형적으로 표현함으로써, 도자 표현이 인간의 삶과 연결되고 심리를 담는 매개체로써 기능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이로써 이 연구가 인간 심리나 사회현상과 연결한 도자 표현과 더불어 디자인 부분에서의 새로운 연구 방향성을 열어줄 수 있기를 희망한다.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연구자가 관계에서의 감정 중 불안에 집중한 이유는 내면의 이해를 돕고 그를 통한 타자에 대한 공감에도 영향을 주는 긍정적 요소이기 때문이다. 연구자는 이 경험이 자신의 본래의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고 생각한다.

연구자는 예술 작업이 삶을 성찰하게 하는 철학적 방법론이라 여기고 관계 표현을 통해 본인의 본질과 성장하는 자아를 발견함으로써 자기 존재의 가치를 찾고자 했다. 또한 예술작품의 조건 중 하나는 소통이라고 믿기 때문에 본인의 작품을 통하여 관객들이 사색과 환기의 시간을 경험하고 사유를 통한 소통의 매개체가 되기를 기대한다. 이를 통해 타자와의 관계 형성에 있어 보다 건강하고 원활하게 소통하는 사회로 나아가는데 기여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참고문헌

<단행본>

강선보, 『만남의교육철학』, 서울원미사, 2003

권석만, 『May.R.,Mansearchesofhimself』, NewYork:Norton, 1997

김복태, 리키 이매뉴얼 『불안』, 이제이북스, 2002

김영필, 문정복, 『탈 근대적 자아를 넘어서』, 울산 : 울산대 출판부, 1995

김은정, Irwin Sarason, Barbason,『이상심리학』, 학지사, 2001

김태형, 『불안증폭사회』, 위즈덤하우스, 2010

남정길, 『인간이란무엇인가』, 서울대한기독교서회, 1983

이보연, 『이슈 중국 현대 미술』, 시공사, 2008

이재훈, 『정신분석적 대상관계이론』 서울 : 한국심리치료 연구소, 1999

임규정, 키에르케고르, 『불안의 개념』, 한길사, 1999

정여주, 『융의 분석심리학에 기초한 미술치료』, 학지사, 2002.

조성대, 『정보사회의 인간관계』, 서울 : 박영사, 2003

표재명, 『나와 너』, 문예출판사, 1977

최승자, 막스 피카르트, 『침묵의 세계』, 까치, 2011

한석우, 『입체조형 이론과 실제』, 미진사, 1991

한애규, 『여행이란 이름의 사색의 시간』, 일빛, 2015

Anish Kapoor, 『"Greyman Cries, Shaman Dies, Billowing Smoke, Beauty Evoked"』, Anish Kapoor et. al., Unconformity and Entropy, Madrid: Turner, 2009

Caroline Whitbeck, 『A different reality: feminist ontology』, Eds. Ann Garry & Marilyn Pearsall. Women, knowledge, and reality. Boston: Unwin Hyman ,1989,

Max Bill, 『di grafischen reihen ,verlag gerd hatje』, 1995

J.A.Ward.,『American Silences : TheRealism of James Agee』, Walker Evans, and Edward Hopper, Louisiana State University Press, 1985

<학술지논문>

강선보, 「21세기 인성교육의 방향설정을 위한 이론적 기초연구」,『교육문제연구』, Vol.0 No.30, 2008

김수현, 「초현실주의와 퍼포먼스 예술에 나타난 '불안'의 전이」, 『서양미술사학회』, 1999

김한수, 임영언, 「디아스포라의 초국적 정체성과 다양성에 관한 고찰」, 『한국과 국제사회』, Vol.No2, 2017

최성식,「마틴 Buber철학에서의 인간화의 길」,『철학연구』, No.5, 1995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학위논문>

곽유나, 「콘스탄틴 브랑쿠시 작품 연구」, 한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8
김나현, 「개념미술에 있어 주체성에 관한 연구」, 대구카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12
김수정, 「관계로서의 학습 Buber의 인간관과 그 교육적 시사」, 대구교육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10
김소현, 「산티아고 칼라트라바 건축의 구조적 조형미를 응용한 패션디자인 연구」,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18
김양지, 「현대도예의 기호와 상징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14
김은수, 「풍선의 조형적 형태 변화를 바탕으로 한 풍선의 욕망적 개념으로의 형상 연구」, 인천카톨릭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20
김자연, 「현대인의 불안한 자아에 관한 상징적 표현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15
강재영, 「현대도예의 장르 해체 경향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7
김현아, 「현대인의 유기적 인간관계를 표현한 도자조형연구」, 동아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16
문혜주, 「일상의 반복을 기록한 도자조형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18
박은혜, 「건강한 기독교 가정을 세우기 위한 가족치료 연구」, 서울기독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11
박종욱, 「경쟁불안에 대한 시각 표현 연구」, 한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19
박효신, 「요셉 뮐러 브로크만의 구성주의 디자인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07
선민아, 「현대미술에 나타난 불안의 표상적 특징과 심리학적 개념에 대한 연구」,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9
손정훈, 「헨리 나우웬의 실존주의적 관계 모델 연구」, 서울신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9
송미령, 「공동체 구성원의 이기적 관계로 인한 불편함에 관한 연구」, 국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19
안재영, 「한국현대도예의 예술적 특징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11
오아나 바보이, 「서도호의 작품에 투영된 한국인의 정체성」,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8
오혜진, 「사회문제 인식 함양을 위한 미술 감사지도 방안 연구」, 상명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18
유예진, 「소외감과 환영적 공간 표현에 관한 연구」, 한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18
이보라, 「현대미술에 나타난 시공간 표현과 현존성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18
이지나, 「인간의 관계성을 표현한 도자조형연구」, 국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14
이지선, 「이상적 인간관계에 대한 형상 표현」,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16
이해리, 「정신분석학적 대상관계에서 본 종교와 하나님의 표상」,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3
임유빈, 「내적 상처와 연민에 관한 표현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16
임현숙, 「루이스 부르주아의 작품세계 연구」,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2
장현지, 「내면적 소통으로서의 인간관계 표현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5
장혜정, 「감정표현에 관한 도자조형연구」, 상명대학교 예술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14
전정미, 「현대회화에서 상징형식의 스펙타클화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16
정용현, 「불안으로 본 도자 표현 연구」, 국민대학교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20
최계옥, 「에드워드 호퍼의 회화에 나타난 소외와 고독의 이미지 연구」, 한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9
최지민, 「관계성(Relationship)의 도덕교육적 의미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14
한호중, 「현대인의 일상을 통해본 고독감 표현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14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Website>

구글 이미지 검색 : https://www.google.co.kr/search

네이버 지식백과 : https://terms.naver.com/

다음 블로그 : http://blog.daum.net/

성남조각협회 : http://www.snsculpture.com/

위키백과 : https://ko.wikipedia.org/wiki

Artcelsi : http://www.artcelsi.com/

Brunch : https://brunch.co.kr/

Gallery bk : https://www.gallerybk.co.kr/

Pinterest : https://www.pinterest.co.kr/

<기타>

아리에하르톡 전시평문, 『ABSORB』, IdeaBooks, Amsterdam, 2001

월간미술, 『안규철 작가론 바깥의 '흔적'을 담는 메타미술』, 윤난지, 1999.7

BOMB Magazine, 『interview with Stuart Horodner』, Winter 1999, 66호

EBS특별기획다큐멘터리, 『오리엔탈의 빛, 재패니즈 바비걸-야요이 쿠사마』, 교육방송, 2004.12.28.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국문초록

본 논문은 연구자가 타자와의 관계 시 발생하는 감정에 기반하여 제작된 작품의 관념적·형상적 표현 형식을 분석하여 내적관계라는 비가시적 요소에 대한 도자예술 표현의 방법론 제안을 위한 연구이다. 인간은 사회 안에서 타자와의 관계를 통해 정체성을 형성한다. 타자와의 관계는 소통을 위한 상호작용에서 비롯되며, 파생된 감정은 의식·무의식에 축적되어 삶 전반에 걸쳐 영향을 준다. 연구자는 타자와의 관계에서 특히 불안에 집중하고, 감정의 발생 요인을 내관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었다. '관계의 형상'을 조형적으로 표현함으로써 연구자의 주체적 자아를 드러내고 인간의 내면세계를 형성하는 근본적 토대가 되어 연구자 존재 이해의 단초를 제공하며, 감정을 담은 은유의 매개물로 도자예술에 정신적인 가치를 부여하고자 한다.

이에 본 논문은 심리학과 철학에서 다뤄지는 관계와 불안에 대해 문헌을 통해 고찰한다. 먼저 관계적 존재로서 무한히 연결된 관계의 영향력을 인간 실존의 본질적 · 필연적 측면인 관계성과 관계 유형을 만남의 관계와 스침의 단계로 구분지어 삶의 문제와 관계 문제에 대해 파악해 본다. 마틴 부버의 관계 철학으로 참된 인간관계인 나-너의 관계와 타자 이해의 원간격에 대한 인간존재의 본질 이해와 더불어 정체성 규정을 위한 인간 내면의 심리 분석을 위해 멜라니 클라인의 대상관계이론을 적용하였다. 관계에서 파생되는 실존조건의 불안 해석은 프로이트의 불안과 방어기제에 대한 불안의 원인론에 대해 알아보고, 현대인이 지닌 불안의 양상을 통해 내면의 성찰로 불안을 통한 주체적 자아 형성이 가능함을 도출하였다.

다음으로 관계를 표현하는 현대미술 작가들의 작품을 살펴보았다. 관념적 요소로서 사회에서의 내재된 억압의 표현과 개인적 관계에서의 자의식 표출, 형상적 요소로 자아정체성에서의 유기성과 본질성, 상호 관계성에서의 순환성과 존재성,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표현 확장성에서의 은유성과 융합성을 표현한 작가들의 작품세계에 대해 알아보았다. 연구자는 작가들이 어떠한 시선을 가지고 자신의 메시지를 전달하는지, 작품에 내재된 심상을 전달하는 방식과 조형적 표현형식 방법에 주목하였다.

마지막으로 연구자 본인의 불안에 기인하여 관계를 표현한 작품의 의도와 개념을 불안의 이론적 관점들을 토대로 분석하였다. 먼저 연구 작품의 배경이 된 선행작품을 분석하면서 연구자의 작품관과 형상적 표현 요소에 대해 알아보았다. 관계의 형상 연구 작품은 각 주제별로 세 개의 파트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첫 번째, 관계의 간극으로 사회적 관계에서의 자기불일치로 인한 불안으로 타자와의 심리적 거리감을 작품에서 다루었다. 외부 요인에 의해 변화되는 자아의 모습을 형상화하고, 연결되지 못한 선의 일률적 표현으로 관계에서 발생하는 틈을 도자 조형으로 표현해 보았다.

두 번째, 관계의 성장으로 개인적 관계에서의 애착불안을 기반으로 하여 관계의 시작과 끝의 순환을 작품에서 다루었다. 파멸은 자기성찰로 이어졌으며, 이는 주체적 자아 형성과 이상적 관계 맺기의 과정으로 도달했음을 작품에서 다루었다. 타자와의 관계에 있어 자아는 파편화, 절단, 온전한 원형의 생성, 변주를 통해 생성과 소멸을 은유적으로 시각화함으로써 삶의 속의 지속된 관계의 메시지를 담고자 했다.

세 번째, 관계의 본질로 프롬의 인간관계의 발생적 측면의 동기와 본인 내면과의 관계를 통해 자신의 존재 인식을 작품을 통해 표현하고자 했다. 파편화된 지나간 기억에 대한 소환은 프레임, 실, 연구자의 복합적 관계 형상으로 나타나며 본인과 관계한 모든 것들은 서로 영향을 주고 받으며, 연구자의 삶을 완성함을 작품에 담았다. 이는 결국 타자와의 부단한 소통을 통해 주체적 자아형성과 더불어 존재 가치를 찾을 수 있는 관계의 공존을 의미부여하고자 한 것이다.

이와 같은 관계에 대한 고찰과 작품분석으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할 수 있었다. 연구자는 관계에서 파생되는 감정의 진지한 탐구과정을 통해 '관계의 형상' 작품으로 구체화함에 있어 은유적 표현은 유기적 변화에 따른 방법론적 측면을 볼 수 있었다. 또한 본인의 작품 세계에 있어서 새로운 가치와 가능성을 찾고 도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자기가 심리표현의 매개체로서의 의미를 지님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부정적으로 인식되는 불안을 인간의 보편적인 기분으로 이해하고 극복하려는 의지는 연구자의 심리적 성장에 도움을 주었다.

본 연구를 통해 비가시적 요소인 관계의 형상적 표현 방법론 제시로 도자예술의 개념과 가치 확장을 시도하였다. 창작 행위는 본인의 내면에 대한 깊이있는 탐색으로 이어져 마음의 안정을 얻고 정체성에 대하여 성찰하는 경험의 과정이었다. 따라서 본 논문은 연구자의 관계를 도자로 표현하여 성찰적 사고를 이끄는 매개물로서의 조형의 의미를 강조하고, 확장된 도자예술 분야에 있어서 새로운 개념을 제안한 사례로서 의미를 지닌다고 본다.

연구자에게 도자 작업은 본인의 삶에 대한 끊임없는 탐구 과정이다. 이 연구가 인간 심리나 사회현상과 연결한 도자표현과 더불어 디자인 부분에서의 새로운 연구 방향성을 열어줄 수 있기를 희망한다. 연구자는 관계에 대한 성찰에서 작품으로서 승화하는 과정을 통해 자신의 본래적인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생각한다.

예술작품의 조건 중 하나는 소통이라고 믿기 때문에 본인의 작품을 통하여 관객들이 사색과 환기의 시간을 경험하고 사유를 통한 소통의 매개체가 되기를 기대한다. 이 연구를 통해 타자와의 관계 형성에 있어 보다 건강하고 원활하게 소통하는 사회로 나아가는데 기여하는 바가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이다.

주제어 : 내적관계, 불안, 자아, 대상관계이론, 도자표현